

#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Danuri Helpline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됩니다.



031-257-1841

제190호 2021년 02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 무관심이 빚어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제도 개선 나설 것

다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교영인 국회의원)가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현장 참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온라인 화상회의를 동시에 진행했다. 교영인 위원장은 이날 발대식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한 이주다문화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최근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해결방안 등 다문화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청취하는 등 최근 다문화정책 개발 행보를 이어갔다. <관련기사 8면> 송하성기자

## 외국인 3명 중 1명은 경기도 거주, '공존'의 상호문화사회로 나아가야

2019년 기준 한국의 외국인주민은 221만명이며 이 중 32.5%인 72만명은 경기도에 거주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31개 시군별로는 안산시, 화성시, 수원시를 포함한 23개 시군이 외국인 규모가 1만명 이상이거나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으로 분류됐다.

경기연구원은 이처럼 경기도의 높은 외국인 주민 비중을 고려할 때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사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상호문화도시와 경기도 상호문화 이해 증진 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내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로부터 다문화주의로 변화해 왔지만, 자문화와 타문화가 '병존'하는 다문화주의는 주류와 비주류라는 이분법적인 분리

를 전제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등한 존재로, '공존'을 기반으로 다양성을 수용하는 상호문화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선주민과 이주민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보다는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위주의 추진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이후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다문화교육은 이주학생에게 한국어, 한국문화를 학습하도록 하는 동화교육에 머물러 있으며, 단순히 많은 문화를 가르치는 국제이해교육과 혼동되고 있다.

'분절'이 아닌 '통합'으로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와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경기도의 전반적인 다문화 수용성 수준은 2012년 49.94점에서 2015년 55.32점으로 소폭 증가하며 전국 평균 53.93점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2018년에는 55.00점으로 감소하며 다문화정책 추진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반면 한국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 동화 기대가 증가하는 추세로 상호문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분절이 아닌 통합으로서의 상호문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산시(9만 2,787명), 수원시(6만

7,073명), 화성시(6만 5,040명), 시흥시(5만 9,634명)의 경우 전국 시군구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상호문화사회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김성하 연구위원은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로 ▲정책 및 사업 기획·운영 시 차별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대상으로 관점 전환, ▲상호문화 교육 개발 및 보급, ▲경기도 내 상호문화도시 지정 희망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지원, ▲경기도 상호문화 협력 활성화 기반 구축 및 다양한 문화배경 주민 참여 확대, ▲경기도민 상호문화 관심 제고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이지는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16, 20, 23, 32, 45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10, 13, 25, 34, 35, 40 일본어(Japanese) 日本語 3, 6, 9, 25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9, 46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5, 12, 17, 23, 26, 29, 31, 45, 48 키르기스스탄 43 영어(English) 6, 26 타갈로그어(Tagalog) 14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1, 2, 8, 9, 23, 25, 26, 41 생활정보 Information 7, 20, 21, 24, 39, 44, 45 금융 Finance 3, 13, 17, 19, 35, 40, 44, 45, 46, 47, 48 도서관 Library 12 육아 Infant Care 28, 36, 39 복지 Welfare 2, 16, 31, 34 교육 Education 14, 27 기고 Column 4, 22, 27 문화 Culture 5 주거 Residence 6 인권 Human Rights 43 인터뷰 Interview 11 코로나 Covid19 10, 12, 18, 19, 25, 32, 47 요리 Cook 29 유학생 Foreign Student 23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4월에 모든 외국인주민에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 통해 밝혀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다.

온라인으로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은 이르면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오프라인(현장) 지급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3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로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위치한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주민은 내국인 접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인 4월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신청이 가능하다.

### ■ 코로나 확산 위험 줄이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길 당부했다.

온라인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PC 또는 모바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또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본인 명의의 카드로 인증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뒷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카드를 선택하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카드사 내 모든 카드가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 겸용카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는다.

### ■ 오프라인은 신분증 지참해 행정센터에서 신청

오프라인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548개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

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좀 더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 ■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도

특히 경기도 거주 외국인인 지급대상이 1차 재난기본소득보다 확대되어, 등록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된다.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하다. 온라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오프라인 대리신청 범위는 내국인과 동일하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요일별 5부제 없이 신청기간 중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중국어 16면, 베트남어 34면, 러시아어 31면〉

송하성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박창순 위원장)는 28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

이집 지원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장태환(더민주, 의왕2)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책임연구자인 구광현 교수(안양대학교)는 중간보고회에서 그동안 조사한 경기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현황을 발표하였고, 현재 부모와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어린이집 지원사업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를 토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태환(더민주, 의왕2)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실효성있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거쳐 2월 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된 조례 개정 등 입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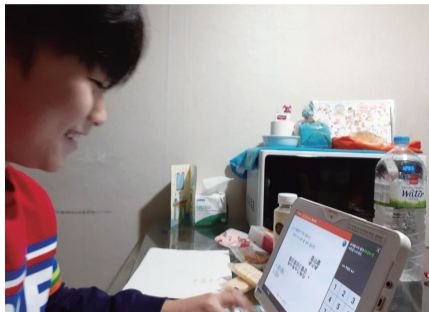
송하성 기자





##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권, 찾아가는 다문화 '(多)다있다' 멘토링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력 격차 보완. 자녀 돌봄. 교육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학력 격차 보완과 자녀 돌봄 및 교육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위기가정 지원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 '(多)다있다' 멘토링을 실시한다.

#### #온라인수업, 교육격차, 부모, 자녀에게 영향

이번 멘토링 사업은 고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등록회원 3,04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7일 실시한 전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센터에 따르면 조사 결과 회원들은 조속한 한국어 수업 재개 희망, 자녀 원격 수업 관리 소홀 및 학습 격차, 가정 내 돌봄 기간 장기화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경제적 위기로 취업 및 생계지원 필요, 조속한 프로그램 재개 등, 기타(다른 지역 이사로 정보제공 필요, 국적취득 안내 등) 등의 순으로 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및 온

라인 수업 등으로 교육격차 발생 및 학습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기초학력 미달 다문화 자녀 학력 저하 심화,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부모·자녀 관계 악화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 #학령기 다문화 자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행정안전부의 지난 2018년 11월 기준 고양시 다문화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학령기에 해당하는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 1,586명으로 전체 49.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이 비대면 학습 위주로 전환되면서 야기된 학습 공백으로 학습격차의 문제를 겪고 있거나, 학습관리 부재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파악하고, 발굴하여 원격수업 기반시설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인공지능(AI) 학습관리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일대일 멘토링 등)를 확대, 보급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학력 격차 보완 및 학업능력 향상과 자녀교육지원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 및 자녀 양육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다문화 '(多)다있다' 멘토링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진행하고 있다.

#### #맞춤형 학습지원, '(多)다있다' 멘토링 실시

찾아가는 다문화 '(多)다있다' 멘토링은 맞춤형 학습으로 주 5회, 일 1시간 이상 진행되며 멘토링 주 1회 1시간, 부모 상담 월 1회 1시간이 이뤄진다.

맞춤형 학습은 자율학습 교육 콘텐츠 활용한 학교 교과과정 학습 및 성과측정, 학교 교과과정 학습과 학습매니저를 통한 관리 등이다. 멘토링은 학습의 동기 부여 및 지속성을 위한 멘토의 학습관리 및 학업 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학습상담이 가능한 고양시민 4명의 멘토가 학습지도가 필요한 다문화 자녀 및 이주배경청소년 21명을 만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능력 및 학교 적응력을 향상하고 정서적 공감대 형성으로 가정 돌봄 스트레스 해소 등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내·외국인 간 격차 좁히는 적극적인 지원책

찾아가는 다문화 '(多)다있다' 멘토링과 관련 이재준 고양시장도 지난해 9월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를 코로나19 시대의 가장 큰 숙제로 꼽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한국어 교육과 결혼이민

자 취업 지원, 다문화 청소년 교육 지원 등 관련 정책을 비대면으로 바꿨다.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가정마다 지급해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정의 상황에 따라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생업에 종사하는데, 최근 자녀 교육과 가족 돌봄까지 떠맡으면서 피로도가 높아졌다"라며 "일부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거나 기타 출입국 정책 등으로) 본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며 생이별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대일 방식의 멘토링 사업을 준비하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일주일에 두 차례씩 공부를 돕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내외국인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인구 108만명 중 등록 외국인인 2.24%에 해당하는 2만4천여 명이 다.

다문화가정은 5천 가구가 넘는다. 원예·산업이 발달한 관내 특성상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과 화훼농장업, 운송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 多文化家族にもお薦め、京畿道'小商工人コロナ19克服通帳'

### 最大5年間保證料免除 ... 業者一カ所あたり1千万ウォン、年2%代低金利支援

京畿道가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코로나19)長期化による經濟難を受けている小商工人に、1000万ウォン限度のマイナス通帳開設を支援する。

京畿道は1月から'小商工人コロナ19克服通帳事業'を推進すると12月29日に発表した。

これは全國地方自治團體でも初めての試み。資金融通が急がれるが、信用等級が低く第1金融圏利用が困難だったり、高金利私債に苦しむ小商工人に、保證料なしで無擔保·低金利貸出を支援するものだ。この通帳は業者ごとに最大1000万ウォンの貸出が可能。

貸出期間は1年だが、計4回の延長ができ、最大5年間利用可能だ。3ヶ月變動金利(12月17日基準)は年基準2.58%、1年固定金利は2.76%だ。特に既存の京畿信用保證財團を利用した特別保證は、利用者が年1%代の保證料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が、今回のコロナ19克服通帳は京畿道が代わりに保證料を全額負担する。

京畿地域で營業する小商工人のうち、代表者が信用6等級以下、中位所得(4人世帯基準80%以下)、40~50代退職失職世帯、脱北者、障がい者、一人親世帯、多文化家庭、子沢山世帯、基礎生活保障受給者、次上危計層、高金利金融利用者、

満39歳以下の青年再創業者などに該当すること。

支援規模は計2000億ウォン、少なくとも2万の業者が恩恵を受けられるだろう。この通帳は1月11日から京畿地域内のNH農協銀行154營業店と61所出張所にて開設業務を行う。

京畿道は'緊急災難克服通帳'の名にふさわしく、道民が簡単に迅速な支援を受けられるよう、NH農協銀行で保證申し込み、受付、審査(現場実査含む)および貸出など、すべての業務をワンストップ(One-stop)で行う。支援を希望する小商工人は京畿信用保證財團25支店(代表番

号1577-5900)にて相談可能。京畿道内のNH農協銀行154營業店および61出張所(代表番号1661-3000、1522-3000)にて申し込み可能だ。

今回の'京畿小商工人コロナ19克服通帳'事業に関連し、主務部署の京畿道特化企業支援課ファン・ヨンソン課長は、"この事業はコロナ19により經營に困難をきたしている小商工人に災難を克服し、また立ち上がる力を与えるために施行する經濟防疫対策だ"とし、"円滑な資金融通を通じて、地域經濟循環させる呼び水の役割を果たすことを期待する"とした。(한글 기사 44면) 아키오 기자



## 〈수기〉 유지성 학생, 13살에 중도입국해 연세대에 합격하기까지

# "제 능력만으로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덕분에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유지성

나에게 이사는 아주 흔한 일이다. 인도네시아에서 13년 살면서 이사를 3번 해왔다. 길면 5년, 짧으면 1년 주기로 말이다. 그래서 한국에 갈 거라는 사실을 안후에는 “또 이사는구나”로만 생각했다. 설렘도 느껴지지만, 근심·걱정이 앞섰다. 더군다나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생활해야 하니 막막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보던 한국 드라마 처럼 학교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할까봐 무서웠고, 수업을 따라잡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아니 학교는 갈 수 있는지 걱정이 되었다.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아빠는 한국에서 살려면 무엇이든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셨다. 공부든 친구 관계든 자신 있게 먼저 다가가면 된다고 하셨다. 다행히 인도네시아에서 아빠가 준비해 오신 서류들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처음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이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그전에 걱정했던 괴롭힘은 없었고 담임선생님께서 보충수업을 받게 했다. 나도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첫 수업을 받고 집에 오는 길에 현

책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 참고서를 사들고 집에 왔다. 그 참고서를 읽으면서 오늘 했던 수업을 떠올리면서 복습했다. 그리고 받아쓰기를 잘하려고 교과서에 실린 글을 소리 내 읽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절반 이상을 틀렸다. 내가 뜻은 모르고 발음으로만 쓰다 보니 많이 틀린 것을 깨닫고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조선왕조실록과 국어사전과 영어사전을 빌렸다. 처음으로 읽은 한국어 책이 조선왕조실록 덕분인지 한자도 익힐 수 있었다. 덕분에 단어의 뜻을 유추할 수 있어서 어휘력이 풍부해졌고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 이렇게 학교생활을 잘하다가도 엄마가 보고 싶어 하곳길에 울면서 갔었다. 하지만 아빠랑 있을 때는 되도록 밝게 있었다.

한국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빠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런저런 큰일들을 겪고 병을 얻어 치료하기 위해서다. 엄마가 같이 못 오는 이유도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아빠는 나를 살뜰히 챙겨주셨다. 일하면서 등하곳길을 같이 가주었고, 반찬도 해주었고,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보를 모으셨다. 심지어 나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이사도 했다. 맹모삼천지교가 저절로 떠올랐다. 그렇게 해서 입학한 중학교에서 처음

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한국어 공부도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배웠다. 사실 아직은 학교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친하게 지내는 게 어려웠다. 실수하면 어찌지 한국어 발음이 어눌해서 놀리면 어찌지 하고 먼저 다가가기도 두려웠고 친구가 친하게 다가와도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센터 프로그램 내에서 나와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매우 기뻐했다.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아주 좋았다. 이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이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사귀 친구들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국어 선생님도 아주 좋았다. 한국어 수업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다. 학업, 진로, 교우관계 고민을 들어주셨다. 고양외고 진학에 고민이 있었는데, 한국어 어교실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주시고 면접을 대비하여 연습도 같이 해주셨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장학재단도 소개해주셨다. 그렇게 해서 고양장학회를 알게 되었다. 고양장학회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다. 고양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합격통지를 받았을 때 등록비가 부담스러워서 입학 포기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양장학회의 도움으로 덕분에 가고 싶었던 고양외고에 진학할 수 있었다.

고양외고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실력이 쟁쟁한 친구들과 사이에서 헤맬 때도 있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노력했다. 고등학교 진학 한 후부터는 12시에 자는 습관이 거의 없었다. 가끔 힘들어지면 힘들게 가족을 부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동안 도움을 아낌없이 주셨던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생님들과 고양장학회 후원자분들을 생각하며 3년을 버텼다. 이렇게 버티다 보니 가고 싶었던 연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 다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전공을 탐색하며 공부하고 싶다.

이제 나는 새로운 꿈을 꾀다.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엄마나라인 인도네시아와 아파나라인 한국 우리나라를 위해 외교관으로서 일하고 싶었다. 대학에서 더 많은 공부와 고민을 통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두 나라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공존을 이끌어 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외무고시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글을 마치며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움을 주었던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다. “제 능력만으로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도움을 주셨던 분들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조언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더 발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문화가족도 편리하게 이용해요, 신축 이전한 덕양 여권민원실 개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찾고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시민 중심 공간, 여권 민원 해결 ‘열린 민원실’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새로 단장한

‘덕양 여권민원실’을 지난 1월 18일(월) 개소해 운영을 시작했다.

고양시는 이번 덕양 여권민원실 신축 개소를 통해 보다 많은 고양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민원실을 만들고, 특례시 지정에 따라 향후 증가할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덕양 여권민원실은 덕양구청 4층에 위치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고양시는 보다 쾌적한 민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11월부터 신축 공사에 착수했다.

새롭게 조성된 덕양 여권민원실은 민원인들의 접근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덕양구청사 뒤 보행자 전용도로 쪽에 지상 1층 규모(172㎡)로 건립됐다.

건물 내부 공간에도 신경을 썼다.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은행과 민원업무 공간을 분리하고,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를 배려한 좌식형 서식 작성대도 배치했다. 그리고 민원실 입구에는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코로나19 방역에도 만전을 기했다.

고양시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덕양

여권민원실 신축 이전으로 시민들의 여권민원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리라 기대된다”며, “덕양 여권민원실이 고양시를 대표하는 ‘열린 민원실’로 누구나 부담 없이 찾고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시민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1월 18일(월) 오전 9시 개관한 덕양 여권민원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야간 운영도 한다.

이지은 기자



## “Три мясных слоя” или самгёпсаль! 한국의 식문화 ‘삼겹살’

〈이주민의 시선〉 삼겹살, 굽기부터 먹기까지 전 과정이 색다른 한국의 식문화로 자리잡아



삼겹살 - это наверное одно из самых любимых как корейцами, так и иностранцами корейское блюдо. А весьма простой способ приготовления делает это блюдо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в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Первым делом, я считаю что в этой статье нужно рассказать что же представляет из себя самгепсаль для тех, кто ни разу не пробовал или не слышал о таком блюде. Что является маловероятным. Ведь даже если вы не были в Корее, то возможно видели и в корейских сериалах или фильмах как люди едят самгепсаль во время ужина с друзьями или коллегами. Само слово “самгепсаль” буквально состоит из трех слов “сам” - три, “гён” - слой, “саль” - мясо или же “три мясных слоя”, ведь именно так выглядит свиная грудинка в разрезе.

삼겹살 - это кусочки свиной грудинки обжаренные либо на жаровне, либо на барбекю. Особенностью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мяс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не маринуется и не приправляется никакими специями. Т.е. мясо готовится в собственном жиру и соку, что делает его очень сочным и нежным. После приготовления мясо нарезается ножницами небольшими ломтиками (что тоже интересно для русского человека, ведь обычно мы не испол-

зуем ножницы на кухне). Сразу перед употреблением небольшой кусок мяса обмакивается в приправы, такие как паста из красного перца, соевая паста, кунжутное масло или же просто съедается. Однако 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й и интересный способ приема пищи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кусок мяса кладется в лист салата или лист кунжута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любимыми ингредиентами (например, кимчи, чесноком, луком, грибами, отварным рисом и т. д.), оборачивается и затем съедается целиком. За счет этого мясо не оставляет неприятное жирное послевкусие.

Весь процесс от приготовления до употребления самгепсалья можно выделить в отдельную культуру. В какой еще стране блюдо становится практически центральным элементом меню для встречи друзей или коллег? Я думаю в России такого блюда точно нет. Но в Корее, я думаю, это однозначно самгепсаль.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образна и уникальна, что делает ее такой притягательной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С появлением портативных газовых плит процесс приготовления самгепсалья упростился в разы, ведь теперь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дти в ресторан или же в место для кемпинга. В лю-

бой момент можно приготовить это незамысловатое блюдо даже дома. Что мы и делали вместе с корейской семьей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ые выходные. Однако предпоследние выходные января выдалась по-весеннему теплыми, поэтому было решено купить решетку для барбекю и отправиться на природу. Каково же было мое удивление что благодаря запаху дыма, пропитавшее мясо, привычный вкус свиной грудинки стал в разы интереснее. Сладкие нотки ароматного свежеприготовленного самгепсалья были настолько сильными, что над нашим местом постоянно кружили птицы. А разнообразные закуски только улучшали вкус мяса. Попробовав мясо на природе мы решили, что теперь готовим только на огне. Используя свой опыт, я рекомендую читателям этой статьи попробовать устроить барбекю на природе. Я уверена, что вы точно не разочаруетесь!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삼겹살은 아마도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가장 사랑받는 한식 중 하나일 것이다.

쉽고 간단한 요리방법으로 가장 인기 있는 한식 중에 하나가 됐다.

우선, 삼겹살을 먹어 보지 않았거나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삼겹살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 가본 적이 없더라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친구나 동료와 함께 저녁에 삼겹살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삼겹살’이라는 단어 자체는 말 그대로 ‘삼’-3개, ‘겹’-층, ‘살’-고기 즉, ‘고기 3층’이라는 뜻으로 단어에서 ‘삼겹살’이 보인다.

삼겹살은 직화 또는 바베큐에서 구운 돼지 가슴살 고기이다. 특별한 특징은 고기를 미리 절이지 않고 향신료로 양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고기는 자

체 지방과즙으로 조리되어 매우 육즙이 많고 부드럽다.

구운 후 고기를 가위로 작은 조각으로 자른다. 보통 러시아인들은 부엌에서 가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삼겹살을 먹기 전에 고추장, 된장, 참기름 등의 양념에 고기를 찍어서 또는 그대로 먹는다. 그러나 더 좋고 재미있게 먹는 방법은 좋아하는 재료(김치, 마늘, 양파, 버섯, 밥 등)와 함께 상추나 깻잎에 고기 한 조각을 넣고 싸서 통째로 먹는 것이다. 그래서 고기 특유의 지방 뒷맛을 남기지 않는다.

굽기부터 먹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문화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의 요리가 친구나 동료의 만남에서 메뉴의 중심이 되는 식문화가 다른 어느 나라에 있을까? 러시아에는 그런 요리가 확실히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분명히 삼겹살이 그런 문화를 대변한다.

한국 문화는 다양하고 독특하여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이다.

휴대용 가스 스토브의 출현으로 삼겹살을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쉬워졌다. 이제는 식당이나 캠핑장에 갈 필요가 없다. 이 간단한 요리는 집에서도 언제든지 해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의 주말마다 한국 가족과 함께 삼겹살을 먹는다.

그런데 1월말 주말에는 날씨가 봄같이 따뜻해져 바베큐그릴을 사서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고기에 벤 숯불 향 덕분에 평소 삼겹살 맛 보다 몇 배 더 흥미로워졌다는 것이 저를 놀라게 했다.

신선하게 준비된 향기로운 삼겹살의 달콤한 향이 너무 강해서 새들이 우리 주위를 끊임없이 돌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는 고기의 맛을 더 향상시켰다. 자연에서 고기를 맛본 우리는 앞으로는 바베큐만 구워 먹기로 했다.

독자들도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19 방역규칙을 준수하며 자연에서 바베큐를 시도해 볼 것을 권장한다. 분명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울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고양시청 031-909-9000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38-9801 고양이민자통합센터 031-970-3000 누리다문화학교 031-919-4025 (사)밝은미래  
경기도지부 031-925-0400 고양교육지원청 031-900-2800 고양파주여성민우회 031-907-1003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12-8555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20-3937 범죄신고 112 고양경찰서 031-974-4311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www.khug.or.kr



영어

# How to safeguard your Jeonse security deposit with HUG!

## Checkpoints for Jeonse contract

Check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frequently, including immediately before and after having entered into the Jeonse contract, prior to the payment of the balance and after having reported moving into the new residence! In particular, you must check the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prior to the payment of the balance to confirm any relevant issues including collateral security, provisional seizure, and disposition, etc!

##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following terminology.

- Handing over** : Receive the keys and move into the residence
- Report moving in** : Now that you have moved into the new residence, report to the competent authority to register the change of address.
- Fixed date** : Confirmation of the date on which the residential lease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by the competent authority with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new residence.
  - ※ Once the above 3 requisites are fulfilled, you will have the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payment right from midnight of the date that immediately follows.
- Opposing power** : It refers to the legal power of the lessee in claiming the details of the lease against a 3rd party, that is, assignee of the leased resident, person who succeeded the right to lease,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for the leased period.
- Preferential payment right** : It refers to the right of payment with priority over the general creditors and holder of the subordinated collateral rights from the proceeds of sales at the time of the auctioning of collateral.

## What is the guaranty for returning of the Jeonse security deposit?

If the lessor is not able to return the Jeonse security deposit to lessee upon cancellation or termination of the Jeonse contract or if the dividend payment from the proceeds of auction/public sales of the Jeonse residence falls short of the Jeonse security deposit paid by the lessee, it is the system of the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that returns the entire Jeonse security deposit to the lessee on behalf of the lessor.

## Why is it necessary?

- Even if the lessor is unable to return the security deposit, it is possible to have the security deposit repaid only through the claim for the execution of the guaranty. (It is essential to check the conditions of claim under the agreement provisions.)
- It is possible to move to a new residence after having registered residential leasehold right upon the expiration of the Jeonse period.
- The lessee can execute the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the guaranty certificate on his/her own (consent of the lessor is not necessary).

## How can I subscribe to the guaranty for returning of the Jeonse security deposit?

- Visit the sales outlet of HUG nearest to you.
- It can also be issued by banks. (As of November 2020, Gwangju Bank, Gyeongnam Bank, Hana Bank, Kookmin Bank, Industrial Bank of Korea, Nonghyup Bank, Suhyup Bank, Shinhan Bank and Woori Bank are handling the issuance of the guaranty certificate.
- It is also possible to conveniently apply for the guaranty via mobile or internet (<https://khig.khug.or.kr>).
- ※ For the requirements for subscription to the guaranty, refer to the website of HUG or inquire with the sales outlet of HUG with jurisdiction.



# How to safeguard your Jeonse security deposit with HUG!



## What are the precautions to be exercised for the guaranty for returning of the Jeonse security deposit?

- If the contract is changed or extended (including implied renewal), and if the lessor has been changed, please make sure to contact HUG!
- You must reside in the residence that you actually contracted.
- Interest and compensation payment other than the Jeonse security deposit will not be guaranteed under the guaranty certificate.
- If you have to move out of the residence due to expiration of the contract period but the Jeonse security deposit has not been returned to you, you need to give notice of such fact to HUG first (notification of guaranty accident).
- Then, you need to complete the order for registration of leasehold right before claiming execution thereof to HUG.

## How do I claim the execution of the guaranty for returning of the Jeonse security deposit?

- If the Jeonse security deposit has not been returned within 1 month of cancellation or termination of the Jeonse contract, you need to claim execution after having completed registration of residential leasehold right.
- If auction or public sale of the Jeonse residence has been executed during the Jeonse contract period and the guaranty creditor failed to have the Jeonse security deposit returned after the demand for dividend payment, you need to make a claim by submitting a document such as dividend coupon that proves the amount out of the Jeonse security deposit was not returned.
- You must claim the execution of the guaranty liability to HUG within 2 months of the date of the guaranty accident.

## Guaranty execution is not possible in the following cases!

- If you have lost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payment right (including the case of renewal of the guaranty due to extension of the Jeonse contract, etc.) during the Jeonse contract period.
- In the event of occurrence of losses of HUG due to sequestration, provisional seizure, full collection order and assignment of bond, and provision of the Jeonse security deposit (all or portion of) as collateral to financial institution by and for 3rd party.
- In the event of occurrence of losses to HUG by violating the obligation to notify or in the event of other causes for indemnification under the guaranty agreement provisions.

## Is there a system to safeguard Jeonse security deposit other than the guaranty for returning of the Jeonse security deposit?

### Establishment of Jeonse right

It is possible to safeguard the Jeonse security deposit by entering the name of the lessee, Jeonse security deposit amount, duration and the date of filing of the establishment of Jeonse right, etc., in the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in order for the lessee to have priority right over other creditors with lower priority. However, it can only be applied upon consent by the lessor, and you may need to bear the cost of establishment thereof. Furthermore, if the price at which the residence is sold through auction is lower than the amount of the Jeonse security deposit, you may not be able to have the security deposit fully returned to you.

### Foremost priority payment right

It is a system that enables the lessee to have the lease guaranty deposit with priority over other creditors if the said deposit is less than the prescribed amount. Since the range of the security deposit and the amount of the payment with the foremost priority differs for each of the regions of the country, make sure to check them!

www.khug.or.kr



일본어

# HUGがごいっしょする住宅保証金防衛!



## チョンセ(貸し切り、以下「チョンセ」という)契約のチェックポイント

チョンセ契約締結直前直後、残金納入前、転入届後、随時、登記簿謄本を確認してください! 特に残金納入前! 必ず登記簿謄本を確認し、根抵当、仮差押え仮処分など該当事項がないか確認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知っておきましょう。

- 引渡し** | 家の鍵を受けとって引っ越しすること
- 転入届** | 新しい家に引越したので、居住地の変更と登録のために管轄機関に申告すること
- 確定日時** | 新しい居住地の管轄機関に住宅賃貸借契約を締結した日付を確認すること
  - ※ この三要件が満たされれば翌日00時から対抗力および優先返済権が生じます。
- 対抗力** | 賃借人が第三者、すなわち賃借り住宅の譲受人、賃貸する権利を継承した者、その他、賃借り住宅に関し利害関係を有する者に賃貸借の内容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法律上の能力
- 優先返済権** | 担保物件の競売の際、売却代金で一般債権者および次の順位の担保権者に優先して返済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権利をいう。

## チョンセ保証金返還保証とは?

チョンセ契約の解約または、終了後、賃貸人がチョンセ保証金を払い戻すことができない場合、または、チョンセ目的物に競売・公売が実施されて配当後、チョンセ保証金の不足分が発生した場合、住宅都市保証公社が賃貸人に代わって賃借人にチョンセ保証金を払い戻してくれる制度です。

## なぜ必要なのですか?

- 賃貸人が返還することができなくとも保証履行請求だけで保証金の返還が可能です。(約款上、請求条件の確認要)
- チョンセ期間満了の際、住宅賃借権登記後、住居移転が可能です。
- 借家人が単独で保証書発行の申請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家主の同意不要)。

## チョンセ保証金返還保証への加入はどのようにするのですか?

- 近くの住宅都市保証公社の営業所をご訪問ください。
- 銀行でも発行が可能です。(2020.11.現在、光州、慶南、ハナ、国民、企業、農協、水産協同組合、新韓、ウリ銀行が取り扱い)
- モバイルまたは、インターネットで手軽に保証申請が可能です。(https://khig.khug.or.kr)
- ※ 保証加入要件は公社ホームページをご参考いただくか、管轄営業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HUGがごいっしょする住宅保証金防衛!



## チョンセ保証金返還保証の注意点?

- 契約が変更されるか延長(暗黙的更新を含む)、賃貸人が変更された場合、必ず公社にご連絡ください!
- 実際に契約した家に居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保証書上のチョンセ保証金以外の利息、賠償金などは保証しません。
- 契約期間が終わって引越しなければならぬが、住宅保証金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場合、まず保証公社に該当事実を通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保証事故通知)。
- その後、賃借権登記命令を終えて住宅都市保証公社に履行請求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チョンセ保証金返還保証履行請求はどのようにするのですか?

- チョンセ契約が解約または終了した後1月以内に、チョンセ保証金が払い戻されなかった場合、住宅賃借権登記を終えた後、履行請求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チョンセ契約期間中、チョンセ目的物に対して競売または、公売が実施された場合であって、配当要求後、保証債券者にチョンセ保証金が払い戻されなかった場合には、配当表などチョンセ保証金のうち受け取れなかった金額を証明する書類を提出して請求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保証事故日から2月以内に、公社に保証債務履行を請求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このような場合には保証履行が不可能です!

- チョンセ契約期間中、対抗力および優先返済権を喪失(チョンセ契約の延長などにより保証を更新する場合を含む)したとき
- チョンセ保証金に対し第三者から差押え、仮差押え、転付・取り立て命令、債権譲渡、金融機関担保提供(チョンセ保証金の全部または、一部等により公社の損害が発生したときなど)
- 通知義務に違反して公社に損害が発生するか、それ以外に保証約款上、免責事由に該当する場合

## チョンセ保証金返還保証以外にも住宅保証金を防衛することができる制度がありますか?

### チョンセ権の設定

登記簿謄本に賃借人の氏名、チョンセ保証金、期間、チョンセ権設定受付日時などを記載し、他の順位の債権者より優先権を保有するようにし、住宅保証金を保護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ただし、賃貸人の同意の下に申請が可能であり、設定費用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り、競売実行の際、住居価格が住宅保証金より小さければ保証金を全部受け取れない可能性もあります。

### 最優先返済権

賃借り保証金が一定金額以下の場合、他の債権者より一番最初に払い戻される制度です。地域および保証金の範囲ごとに最優先返済金額が異なるので必ず確認してください!



#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동포 등 포함

소영환 도의원 대표발의,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통과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더민주,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재난 상황에서 인도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을 지원하고자 발의하였다. 또한, 지난 2020년 6월, 제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재

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소영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도내 주소가 신고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도민으로 인정된다”면서 “장기 체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도 경기도에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약 39만 명, 거소신고자는 19만여 명으로, 조례 개정으로 총 58만여 명의 외국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소영환 도의원 등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거주 외국인주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김영의 기자

# 다문화가족, 도시농부의 행복 분양

고양 행복텃밭, 다문화가정 등에 우선 분양



다. 고양시 관내 14개 농장의 16.5㎡ 총 700구좌를 1세대당 1구좌씩 분양한다. 임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임대비용 총 10만원 중 3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며 자부담금 7만원은 납부해야 한다. 고령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분양하고 농장별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는 입금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과거 텃밭을 분양받은 다문화가족들은 모국 채소 재배 등 자기만의 노력으로 텃밭을 꾸며 왔다. 고양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오는 3월 5일까지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월 26일까지 가족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기르며 이웃과 하나 되는 공간인 ‘행복텃밭’을 분양한다. ‘행복텃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고양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

## < 방문교육서비스 안내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돕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리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들에게 대상으로 가정에서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교육과 가족생활(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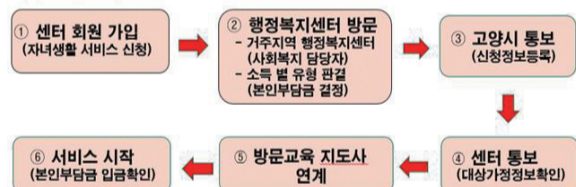
항목	한국어교육 서비스	가족생활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
내용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서비스 제공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에게 서비스 제공	•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서비스 제공
대상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 생애주기 별 각 1회 지원(3회 지원) ① 임신·출산(임산중-생후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초과-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초과-만 12세 이하)	• 만 3세-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도입국자녀
내용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인지영역 • 자아·정서·사회영역 • 문화역량강화 영역 • 시민교육영역
서비스 제공시간	• 주 2회, 회당 2시간 • 80회기	• 주 2회, 회당 2시간 • 40회기	• 주 2회, 회당 2시간 • 80회기
기타	•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발생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좌 • 입금(우리 1005-802-586332)	•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발생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좌 • 입금(우리 1005-802-586332)	•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발생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좌 • 입금(우리 1005-802-586332)

#### ※ 우선선정 대상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모자가정 및 차상위 계층(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2% 이하인 자),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등

### ■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사업(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 1. 이용신청절차



- 방문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우선선정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2. 본인부담금 시간당 단가 및 정부지원 시간

유형	21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인기준)	시간제 (원/시간)		비고 (4주 부담금) *4주 8회 16시간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7,314천원 이하)	13,620원	무상	무상
나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월 7,314천원 초과)	9,540원	4,080원	65,280원

#### 3. 본인부담금 선입금

- 서비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 7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자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좌로 본인부담금 입금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 방문교육서비스 중지 및 일시 중지

#### 1. 방문교육서비스 중지

- 지도사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는 경우 (ex. 차량지원, 경조사 등)
- 지원대상 가정의 사정 변경 (이사, 타 가족구성원의 반대 등)된 경우
- 센터 및 지도사와 사전 협의 없이 수업시간을 3회 이상 어긋난 경우
- 유사사업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
- 기타 지도사의 보호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한 서비스 기간 또는 회기를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종료가 된 경우라도 서비스가 1회 제공된 것이므로 추후 서비스 제공 불가





## 무관심이 빚어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제도 개선 나설 것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온라인발대식 통해 차별 해소 다짐

이주민, 외국인 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 이를 막을 대안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 고영인)가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현장 참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온라인 화상회의를 동시에 진행했다.

다문화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포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죽은 근로계약서를 무시하는 강제노동의 현실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예고된 죽음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외국인 아동보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유아로 외국인을 제외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 외국인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대식은 새롭게 구성된 다문화위원회의 현황보고, 사업계획서 발표에 이어 현안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 대책, 외국인 아동보육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 후 각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 다문화위원회 홍미영 상임고문, 다문화위원회 원미정 부위원장 등 30여 명의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국내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10쌍 중 1쌍은 다문화가정인 다문화 시대이나 여전히 과제는 존재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용허가제], 문재인 대통령의 [다문화정책기본계획] 등 우리당이 축적해온 힘으로, 다문화인들을 더 편

하게 만들어주는 상생사회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원이 106만명을 돌파했지만, 우리의 인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다문화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 내려야 새로운 원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격려했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외국인주민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희망 잃지 않고 도약하고 성장하며 어려움 극복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이날 발대식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한 이주다문화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다문화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청취하는 등 최근 다문화정책 개발 행보를 이어갔다.

송하성 기자

## 안산, 중대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조례 개정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도록 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과 보호에 나선다.

안산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안산시는 법무부 산하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조성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전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범죄피해가 심각해 긴급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은 보호와 함께 ▲치료비·간병비 및 심리상담비 ▲생계비 ▲취업지원비 ▲주거환경비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 등이 지원된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5억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개정 조례안은 2월 17일 공포 시행 예정이며, 안산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기금 및 관련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히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애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환경을 철저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 안산에서 전국 최초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 지원조례 통과!!!

##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안정적 이중언어 교육 토대 마련”

안산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조례를 갖게 됐다.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는 지난 1월 29일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정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여 가정 및 사회생활의 적응을 돕고 나아가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교육 명문화 ▲이중언어 기본계획 수립 ▲이중언어 교육 및 관련 자격증 취득, 연구 및 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도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초·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해 청소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안산시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고등학생들도 이

중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앞선 1월 25일에는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윤석진 의원은 “이 조례로 인해 확대되는 이중언어 사업이 일부 센터에만 집중된다면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센터에 오지를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받는 아이들만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희 의원은 “전국에 없는 조례가 안산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중언어 교육을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내국인 가정으로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비용, 인력 등을 정확히 추산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 조례는 꼭 필요한 것으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며 “교육청 등 여러 기관과 협의해 실천 방안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정숙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몇 명의 학생이 참여할지, 강사는 어떻게 확보할지, 코로나 상황에서 프로그램 진행은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

가 아니다”고 실행방안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바우나 의원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집에서도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 자녀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될 수 없어 자녀들의 정서발달에도 문제가 된다”며 “차라리 엄마의 모국어로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이 정서 문제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송바우나 의원은 경기다문화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커서 이중언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더 큰 노력이 들고 쉽지도 않다”며 “조례를 통해 청소년기에도 안정적으로 이중언어를 배우도록 명문화하고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상임위에 출석한 김선미 외국인주민지원과장은 “교육청과 학교와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조례에 따른 이중언어 교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 京畿道女性家族財團、“코로나19狀況で誰もが排除されない幅広い連帯必要”

京畿道女性家族財團が「グローバル災難、コロナ19と移住民」 이슈어 분석報告書を發刊した。

この報告書によると、コロナ19は社会的弱者で疎外された状況にある人々に影響をおよぼしており、特に移住民により大きな影響があるとする。コロナ19への對應は移住民を含む社会的弱者の權利を保護、社会統合、意思疏通とも大きく関連している。

今回のイシュー分析では國家人權委員會が昨年11月に發表した、‘コロナ19と移住民人權モニタリング結果’を活用し、移住民があげたコロナ19により困難になったこと、制度と政策などについて知らしめる結果となった。

調査結果、移住民があげるコロナ19による困難は、‘所得減少による經濟的被害

(1次66.6%、2次65.7%)’、買い物・大衆交通利用などの日常生活の不便さ、醫療機關を利用しにくい、差別的な制度と政策などの順だ。またコロナ19によって仕事場で被害を経験し(90.9%)、賃金削減、無給休暇、解雇、勸告辭職などの被害もあることがわかった。

強力な單一言語使用國家である韓国は政府の公式發表も韓国語のみで行われる。韓国に住む移住民たちは言語および社会文化の壁により、コロナ19予防情報のアクセスも容易くない。

特に移住民に直接的な影響を与えるビザと在留、出入國関連情報、外国人感染者の治療費など、多様な外国人対象政策の細かい内容が、コロナ19現況により随時變更されている。しかし関連情報などが移住民に十分に提供されていない。

そのため昨年京畿道が運營した京畿外国人SNS記者團’事業は、移住民たちの母語で関連記事を提供し、コロナ災難狀況改善に大きく寄与した。

一方で2020年3月コロナ19による經濟的が打撃が可視化し、ソウル市、京畿道などの一部自治体を中心に災難基本所得支給に関する論議が本格化した。4月からは中央政府次元でも災難支援金が支給された。この際中央政府と自治体の災難支援金対象から外国人が排除されるという事態が生まれた。

これに京畿道はコロナ19支援から外国人を排除するのは差別’だという國家人權委員會の勸告を受け入れ、2次災難基本所得支給対象にすべての道内登録外国人と國內に居所申告をしている外國國籍同胞を含むと決定した。

研究責任者チェ・ヨンミ研究委員は、“ウイルスに打ち勝った人体が免疫力を得るように、災難は共同體を破壊するが、災難をうまく克服した共同體はそれ以前より一層強固で安全になるだろう”とし、“ウイルスが國境と人種を分け隔てないように、これに抗う私たちも嫌悪と差別を超え、誰も排除しない幅広い連帯が必要だ”と指摘した。

チェ研究委員はまだ“同じ領土で同じ災難により大きな影響を受ける移住民を含む災難對應政策が求められる”とし、“國家は移住民を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対象として積極的に取り込み、疎外されないように特別留意すべきだ”と強調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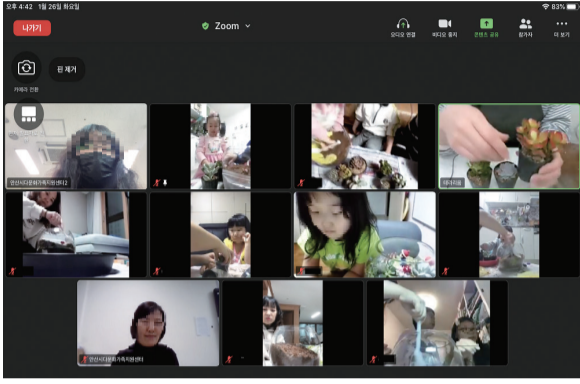
<한글 기사 41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 "가족이 함께하는 집콕놀이로 스트레스 싹~"

##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개강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지난 1월 23일 심리상담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이 개강했다.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에서 발생한 심리적 피로감 등을 지원하고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지난 1월 26일에는 놀이전문가와 함께 집콕놀이로 ‘테라리움’ 만들기를 진행했다. 집콕놀이는 5~8세 자녀가 있는 가정

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놀이전문가와 함께 집콕놀이와 심리상담 외에도 도시락 수다방이 함께 진행된다.

놀이전문가와 함께 집콕놀이는 자녀 1명과 부모 1명이 참여해 5~6세 반과 7~8세 반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5~6세 반은 지난 1월 26일과 28일 두 차례 운영됐다. 7~8세 반은 2월 2일과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꾸러미를 제공해 실시간 화상원격 줌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아이들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전문가와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배우고 참여하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도시락 수다방은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소그룹 수다방을 3개 그룹으로 나눠 2월 16일과 18일, 2월 23일과 25일, 3월 2일과 4일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심리상담은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및 육아 및 가사 스트레스 관리 심리상담으로 3회기 실시간 줌을 이용해 진행된다. 지난 1월 23일 개강과 함께 1회기 심리상담이 이뤄졌다. 김영의 기자

# 다문화가족도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해요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

민선7기 윤화섭 안산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신혼부부 815가구가 모두 8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555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자녀가 없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을 지원받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우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선착순으로 선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관내 거주기간과 연령,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모집 기간은 2월 15~26일이며,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사본을 구비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1666-1234 김영의 기자

#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ũng được nhận “Tiền bồi thường những tổn thất về thu nhập do nghỉ dưỡng bệnh” khi khám xét nghiệm Covid.

Người lao động phải tiếp xúc với nhiều người khác nhau trong mỗi trường lao động của mình nên khả năng nhiễm Covid-19 là tương đối cao. Đặc biệt đối với những lao động theo ngày hay những lao động thuộc tầng lớp cần được bảo hộ khi có những triệu chứng nghi nhiễm Covid và cần phải làm xét nghiệm thì đảm bảo kinh tế sinh hoạt là điều đầu tiên mà họ quan tâm lo lắng.

Trường hợp ví dụ cụ thể đó là kho hàng của Cupang tại thành phố Bucheon. Một số lao động theo ngày được thuê và làm việc tại kho hàng thì số tiền lương mà họ nhận được hàng ngày chính là số tiền nuôi sống bản thân và gia đình họ, do đó khi phát hiện bản thân mình có triệu chứng nghi ngờ nhiễm Covid thì việc đi khám xét nghiệm đối với họ cũng là một điều thực sự khó khăn. Chỉ một cá nhân trong số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đó có triệu chứng nhưng không đi khám xét nghiệm kịp thời dẫn đến việc lây lan dịch bệnh cho toàn xã hội, đây là kết quả tất yếu.

Do đó nhằm hỗ trợ những lao động thuộc tầng lớp khó khăn có thể không cần phải lo lắng quá nhiều đến kế sinh nhai của gia đình để họ có thể yên lòng tiến hành xét nghiệm nhiễm Covid-19 tỉnh Gyeonggi quyết định hỗ trợ “số tiền bồi thường những tổn thất về thu nhập do nghỉ dưỡng bệnh” là 230,000won/người.

■ Tiền bồi thường những tổn thất về thu nhập do nghỉ dưỡng bệnh, tập trung chủ yếu vào đối tượng người lao động theo ngày... Bắt đầu tiếp nhận hồ sơ từ tháng 2

Trong năm nay chính phủ đã đẩy mạnh công tác phòng chống dịch thông qua một số dự án như không phân biệt người lao động có triệu chứng hay không có triệu chứng mà chỉ cần người lao động đó nằm trong diện cần phải làm xét nghiệm nhiễm Covid thì họ đều phải tiến hành xét nghiệm.

Cùng với đó chính phủ cũng sẽ có những hỗ trợ nhất định dành cho họ trong công tác khám xét nghiệm. Đây cũng chính là một trong những bước tiến quan trọng nhằm đẩy mạnh công tác phòng chống dịch Covid-19 của chính phủ.

Cùng với đó, phạm vi hỗ trợ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dự án cũng đã được mở rộng. So với năm trước, hỗ trợ chỉ dừng lại cho những người có quyền định cư vĩnh viễn F-5 và những người kết hôn mang visa F-6 mới có thể nhận được hỗ trợ thì sang năm nay tất cả người lao động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và có đăng kí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sẽ nhận được hỗ trợ, trong số các đối tượng được liệt kê trên thì những kiều bào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hiện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cũng sẽ được nhận hỗ trợ.

Thời gian đăng kí bắt đầu từ ngày 1 tháng 2 đến ngày 10 tháng 12. Thủ tục đăng kí bao gồm Giấy đăng kí, bản photo chứng minh thư, Giấy xác nhận chính xác liên quan đến việc cung cầu tiền bồi thường và thi hành tự cách ly, những giấy tờ xác nhận nhân thân, vv. Người lao động có thể gửi hồ sơ mà mình đã chuẩn bị qua địa chỉ E-mail, gửi theo đường bưu điện hay đến trực tiếp ủy ban nhân dân để đăng kí. Điều cần chú ý ở đây đó chính là chỉ khi nhận được thông báo Âm tính với Covid từ trạm y tế hay những khu kiểm dịch thì mới có thể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Nhằm ngăn chặn sự lây lan của Covid, Chính phủ khuyến khích người lao động nên đăng kí online thay bằng đăng kí trực tiếp tại hiện trường. Số tiền hỗ trợ mà người lao động có thể nhận được sau khi hoàn thành việc xử lý hồ sơ sẽ là tiền đặc thù của khu vực hoặc thẻ check của ngân hàng.

Người lao động có thể liên hệ đến tổng đài 031-120 của tỉnh Gyeonggi hoặc trực tiếp đến ủy ban nhân dân để được tư vấn chi tiết hơn.

Mặt khác, dự án hỗ trợ tiền bồi thường những tổn thất về thu nhập do nghỉ dưỡng bệnh sau khi được tình điều hành, chỉ 5 tháng đầu đã trợ cấp 232,530,000won cho 1,011 người lao động(tính theo số liệu ngày 16 tháng 11 năm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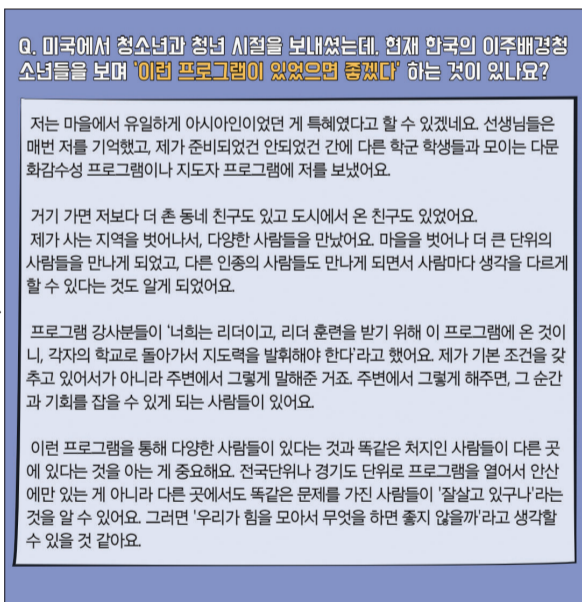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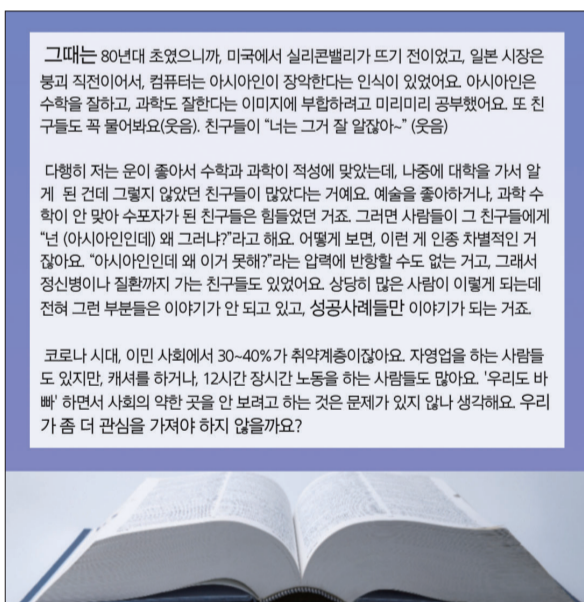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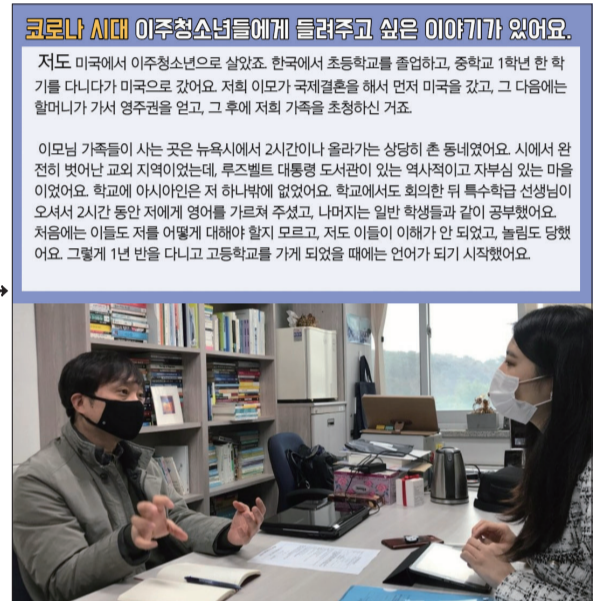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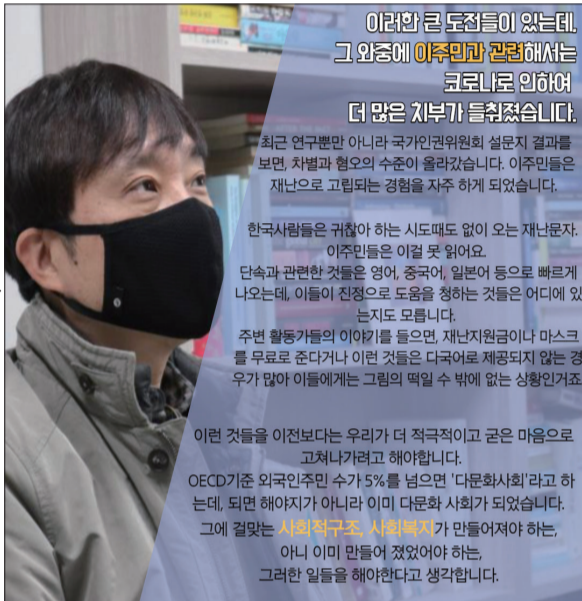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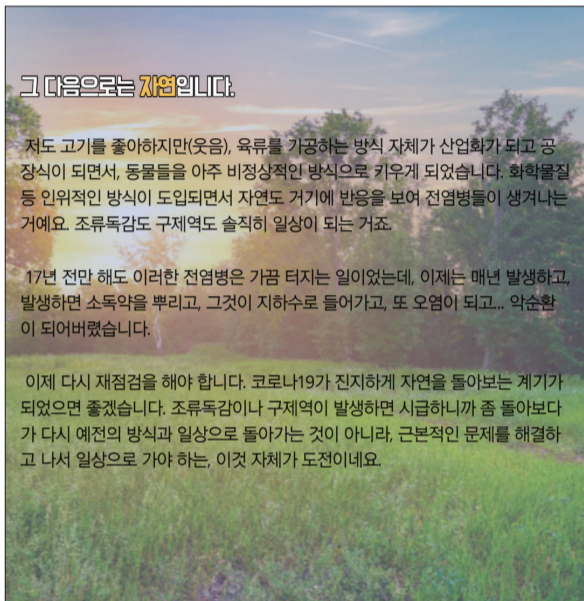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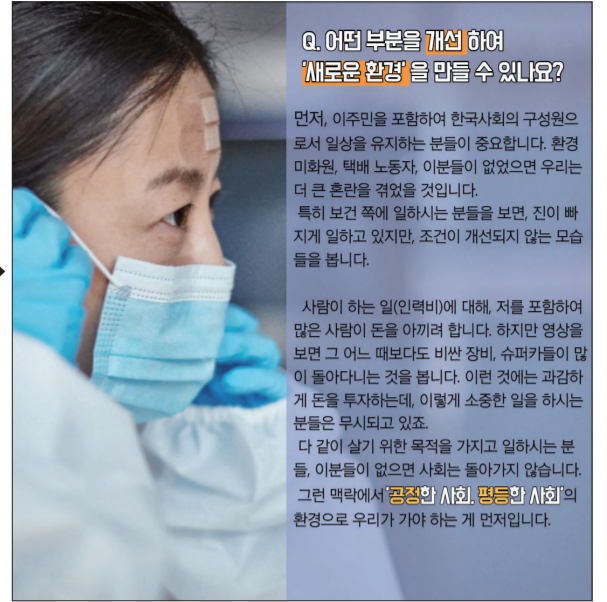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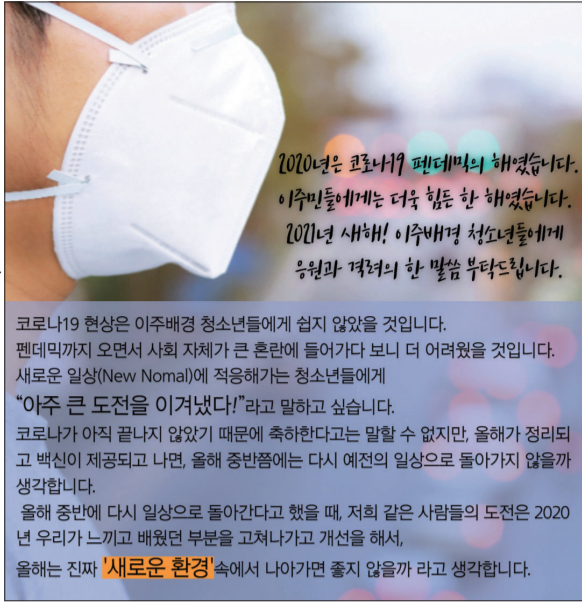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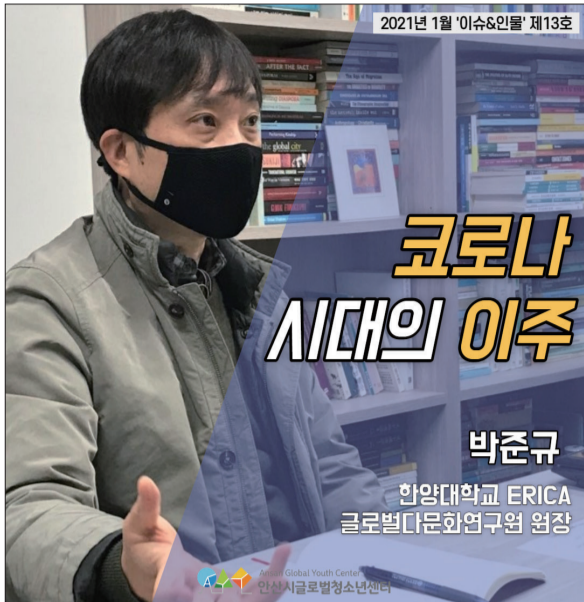
Trong số đó bao gồm 235 người lao động ngắn thời hạn, 429 người lao động theo ngày, 264 người lao động theo những mảng lao động đặc thù và 83 người lao động thuộc lĩnh vực điều dưỡng, vv

Đặc biệt tỉnh Gyeonggi đã có những chính sách hỗ trợ tuyệt đối dành cho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theo ngày mà số ngày đi làm của họ phản ánh sự sống còn của gia đình, khi có những triệu chứng họ không dám đi khám hay không thể nghỉ ngơi mà vẫn phải đến công trường để làm việc, số lượng người lao động này đạt đến 43% trong tổng số người lao động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của tỉnh Gyeonggi.

Khi mới triển khai kế hoạch, chỉ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có triệu chứng nhiễm bệnh phải đi xét nghiệm, phải thực hiện việc cách ly từ khi xét nghiệm cho đến khi nhận được kết quả mới là những đối tượng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nhưng bắt đầu từ tháng 7 trở đi, những lao động nhận được thông báo từ Ủy ban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trung ương yêu cầu cần phải làm xét nghiệm cũng là những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Ngoài ra, thời gian đăng kí nhận tiền bồi thường những tổn thất về thu nhập do nghỉ dưỡng bệnh cũng được gia hạn một cách khẩn cấp từ ngày 11 tháng 12 đến ngày 24. Đây là một biện pháp giảm thiểu tối đa những khó khăn trong sinh hoạt của người dân cũng như đảm bảo ngăn chặn việc bùng phát dịch trong cộng đồng của Chính phủ, hoàn toàn phù hợp với tình trạng bệnh nhân mắc Covid-19 ngày một cao như hiện nay. <한글 기사 47면> 강혜나 기자





## 이주민이 원하는 정보, 경기다문화뉴스가 기사화 하겠습니다!

### 당신이 원하는 기사를 알려주세요!

<홈페이지와 앱에서 2월 5일 시작!>

**中国** 中国 新闻 教育

请告诉我你想要的报道!

如果您在中国生活中感到好奇的内容或希望翻译新闻报道的内容, 请向京畿多文化新闻社反映. 移民们在异国生活中的经历和感受的内容, 也可以用母语发上来, 经过讨论后会刊登出来. 京畿多文化新闻社将与各位移民们沟通交流的报社.

**베트남** Việt Nam 新闻 教育

Hãy cho chúng tôi biết bài báo các bạn muốn đọc

Trong cuộc sống sinh hoạt tại Hàn Quốc, các bạn có thể liên lạc với tòa soạn báo đa văn hoá tỉnh Gyeonggi về những điều mà các bạn đang quan tâm hay những câu hỏi xảy ra trong cuộc sống hàng ngày mà các bạn cảm thấy cần được đưa lên báo và dịch thuật sang ngôn ngữ nước ngoài khác.

**러시아** Russia 新闻 教育

Сообщите о желаемой статье

Если вас интересует что-то из жизни в Корею, или вам есть о чем написать статью, или вы бы хотели, чтобы статья была переведена, пожалуйста сообщите об этом в редакцию газеты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новости Кёнгидо. Уважаемые мигранты, если вы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напишите о переезде, или чувствах, связанных с проживанием в Корею, то после рассмотрения вашей работы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ы.

**일본** Japan 新闻 教育

こんな記事を読みたい

一リクエストをお願いします

韓国生活の知りたいこと、翻訳してほしいことがあれば、京畿多文化ニュースにお知らせ下さい。移民の皆さんが、韓国生活の中で経験したり感じたことを母語で書いてみて下さい。検討してから掲載します。京畿多文化ニュースは移民の皆さんの声を反映するメディアを目指します。

**태국** Thailand 新闻 教育

กรุณาบอกเราถึง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

หากพวกคุณพบความน่าสนใจหรือต้องการข่าที่มีค่าจากท้องถิ่นหรือข่าวที่น่าสนใจ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กรุณาแจ้งให้เราทราบด้วยภาษาของคุณที่เป็นภาษาแม่ของคุณหรือภาษาที่เข้าใจและถนัดเป็นภาษาแม่ของคุณเพื่อที่พวกเราจะได้เข้าใจและสามารถแปลข่าวของคุณให้คนไทยได้

**영어권** Employment 新闻 教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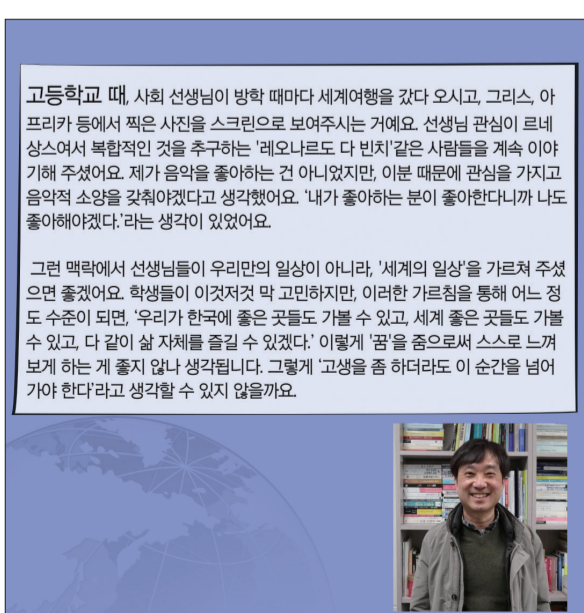
Tell us the article you want!

If you have any articles that you want us to write or translate while living in Korea, please inform Gyeonggi Multicultural News. Migrants' experiences and feelings can also be published after review if you post in your native language. Gyeonggi Multicultural News will become a newspaper that communicates with migrants.

**한국에서 만나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

한국생활 중에 궁금했던 내용 또는 기사로 쓰거나 번역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경기다문화뉴스에 알려주세요. 이주민 여러분이 한국생활 중에 경험하고 느낀 내용도 모국어 글자를 올리주시면 검토 후 게재하겠습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이주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신문사가 되었습니다.

www.danews.kr



2021년 1월 '이슈&인물' 인터뷰는 1월 21일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뷰어: 서지원(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행정기획 담당) 사 진: 이슬미(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만든 사람들\***  
기획편집: 서지원 발행인: 이슬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agyc@globalansan.com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26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3층 전화(031)599-1770 / 팩스(031)599-1799  
Ansan Global Youth Center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 적극 행정으로 해결해야”

김남국 국회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향해 문제해결 촉구



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1월 25일 열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후보자에게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적극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19만 676명이 근무 중이고, 이들 중 81%는 제조업, 12.9%는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농축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 해당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되어 외국인 근로자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시의 경우 반월

시화공단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대부도는 농어업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안산시 소재 일부 제조업 대표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법무부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출입국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다가올 봄과 여름이 문제”라면서 “임시라도 봄과 여름에 인력수급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박 후보자의 답변에 김 의원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대면 행사가 연이어 취소되자 비대면 방식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9일,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 안산시수암도서관, 예비 초등생 초등 저학년 대상 겨울방학특강

안산시(시장 윤화섭) 수암도서관은 2월 17~26일 유아 및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줌 프로그램을 활용한 ‘2021년 겨울방학특강’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강 프로그램 가운데 ‘진짜 일학년이 되는 그림책 생활’은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설렘 가득한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읽기 강의로, ▲책 가방 지키는 비법 ▲나와 다른 친구 이해하기 ▲친구 사귄 때 필요한 것 등 즐거운 학교생활을 상상하며 배울 수 있다.

또한 공예, 클레이, 북아트 등 책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

‘즐거운 그림책 생활’ 특강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내용을 그림책과 독후활동으로 배울 수 있는 강이다. 스토리텔링 그림책과 보석집사수, 클레이, 종이접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교과 공부를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다.

겨울방학특강은 기간 내 수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총 4차시로 진행되며, 수강료 없이 유아반은 5천원, 초등반은 1만원의 재료비만 내고 수업시작 전 도서관에 방문해 재료를 수령하면 된다.

문의 031-481-3967

이지은 기자

##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проходящие тест на коронавирус, также получают «компенсацию за потерю дохода по болезни». 코로나 검사받는 외국인주민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받는다

Среди работников, неизбежно контактирующими с людьми, установлено много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Согопа 19. В частности, уязвимые работники, такие как однопольные, прежде всего должны побеспокоиться о своих средствах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перед прохождением тестирования, если у них возникают подозрения симптомов Согопа 19.

Как и в случае с центром хранения и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грузов Соупранг в Бучоне, для однопольных рабочих ежеднев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а с их средствами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поэтому даже если у них наблюдались симптомы подозрения на коронавирус 19, они должны были пройти прост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или пойти на работу не отдохнув. Проблема в том, что если человек с симптомами инфекции не пройдет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ать, это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инфекции в обществе.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Кёнгидо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выплачивает по 230.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как «компенсацию потери дохода по болезни», чтобы уязвимые работники могли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Согопа 19, не беспокоясь о средствах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 Компенсация потерь доходов по бол

езни, эффективна для однопольных работников ...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в февр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литик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расширению тестирования на коронавирус19», было решено расширить услови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собия, согласно которым теперь независимо от наличия или отсутствия симптомов, все уязвимые работники, проходящие тестировани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Эта мер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дальнейшее обеспечение средствами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для уязвимых рабочих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Согопа 19.

Наряду с этим расширяются рамки поддержк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и ограничения, только имеющие ПМЖ и брачные иммигранты имели право на подачу заявления, но в этом году вс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 в том числе и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роживающие в Кёнгидо.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ок с 1 февраля по 10 декабря.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заявление, копия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подтверждение нахождения на самоизоляции или не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компенсации, документы о подтвержд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и др. Заявку можно подать по элек

тронной почте, обычной почтой или лично посетив управление города / округа, в котором живете. Н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можно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тестирования в центр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оровья или на временных пунктах тестирования, и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результата (отрицательного).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пандемии, рекомендуется подавать заявку онлайн вместо посещения. После проверки документов пособие выплачивается на Джиёкхвапхе (지역화폐) или на карту предоплаты.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и, пожалуйста, свяжитесь с кол-центром Кёнгидо (031-120) или управлением города / округ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 5 месяцев после нача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потерю доходов по болезни, по Кёнгидо было выплачено 233.253млн. вон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6 ноября 2020 года) 1.011 заявителям. Из них 235 почасовых рабочих, 429 однопольных рабочих, 264 работников спец сфер и 83 ухаживающих за престарелыми.

В частности, 43% из всех заявителей были однопольные рабочие, такие как рабочие на строите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кот

орые из-за прямой зависимости дневного заработка к средствам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не могли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или не отдохнули, даже при наличии симптомов. Это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быстрое внедрение политики Кёнгидо будет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м.

Первоначально это касалось только работников с симптомами корона 19, которые находились на карантине до получе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теста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тестирования, но с июля были также включены бессимптомные рабочие, которые посещали или пользовались объектами многолюдного посещения, о которых сообщали центральные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Кроме того, был срочно продлен срок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на компенсацию за потерю дохода по болезни вместо 11 декабря 24 декабря. В связи с быстро растущим числом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случаев коронавируса19, это была мера,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массов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пандемии,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можно было быстро протестировать рабочих, оказавшихся в невидимых зонах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причинам и т. Д.

(한글 기사 47면)

장울가 기자



#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어떻게 해요? “Quyết toán thuế”

## 근로자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홈택스에서 주거비 세액공제도 신청해요

◇ Các bạn đang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thì dịp này đang làm quyết toán thuế cho năm 2020.

◇ Vậy quyết toán thuế là gì? Sao phải làm quyết toán?

Vào dịp nửa cuối tháng 1 tới cuối tháng 2 thì chúng ta đã biết chính xác thu nhập 2020. Lúc này chúng ta phải xác thực số tiền tiêu xài trong năm 2020 để gửi cho cục thuế quyết toán:

◇ Thời gian cần làm quyết toán thuế

◇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tại công ty: cuối tháng 1 đến cuối tháng 2 hàng năm.

◇ Đối với tất cả các đối tượng: Vào tháng 5 hàng năm.

Người lao động tại các công ty, sau đợt quyết toán vào tháng 2 nếu có sai sót, có thể làm hoặc sửa đổi vào đợt tháng 5.

◇ Nếu đợt tháng 5 cũng vẫn cần được sửa đổi, thì sau đó vẫn có thể đăng ký sửa đổi, truy thu cho năm cũ. Có thể sửa đổi, truy thu cho 5 năm trở về trước.

◇ Quá 5 năm thì không còn cơ hội để sửa đổi quyết toán thuế năm đó nữa.

◇ Đăng nhập vào [https:// hometax.go.kr](https://hometax.go.kr)

로그인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bấm 조회 tất cả c c 0) => 한번에 내려받기

Gửi phần tài về vào mail của công ty là hoàn thành.

-Có hạng mục giảm thuế tiền thuê nhà hàng năm khá lớn . (Khoảng trên 10%nhưng hạng mục giảm thuế này chỉ được áp dụng cho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 Tuy nhiên, người nước ngoài vẫn có thể nhận lợi ích từ số tiền thuê nhà đã đóng, giống như những người Hàn không đủ điều kiện nhận 월세 세액공제. Đó chính là tính tiền nhà như một khoản chi tiêu tiền mặt (월세 현금영수증) để được miễn thuế như từ tiền tiêu dùng (신용카드). Nếu hàng tháng bạn thuê nhà 400k Won, sau một năm phần 현금영수증 của bạn sẽ có thêm 5 triệu Won.

◇ Sau khi đăng nhập [https:// hometax.go.kr](https://hometax.go.kr)

Mọi người vào làm như sau.

상당/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 Sau khi hoàn thành đăng ký, vào mục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 để kiểm.

Thường sẽ mất khoảng 1-2 ngày để xử lý. Sau khi xử lý xong, bạn có thể kiểm tra tiền nhà tại mục 현금영수증 trong 간소화 서비스 .

◇ Các lưu ý:

◇ Chỉ áp dụng cho người đứng tên hợp đồng.

Sau khi đăng ký thành công, trong thời hạn hợp đồng, tự động tiền thuê nhà sẽ vào mục 현금영수증 trong phần chi tiêu của bạn, không cần hóa đơn từ ngân hàng.

◇ Không cần sự đồng ý của chủ nhà, vẫn có thể đăng ký.

◇ Khi hợp đồng gia hạn, phải đăng ký lại nha.

Đôi khi cục thuế sẽ yêu cầu bạn nộp thêm bản giao dịch ngân hàng để chứng minh số tiền nhà đã nộp.

Tiền quản lý phí không được tính vào mục miễn giảm.

◇ Dịch bệnh còn phức tạp Tết đến gần rồi chúc mọi người bình an!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은 2020년도 세금을 곧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세금 신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신고 하면 되는지요?

1월 말 또는 2월 말에 본인의 2020년도의 실제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는 2020년도 1년 동안 사용한 돈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국가가 먼저 가져간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낸 소득세가 많았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는 것입니다. 국가에 낸 소득세를 돌려받으려면 근로자가 많은 돈을 사용했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 세금신고 기간 : 회사 소속 직원은 매년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 그 외 대상자 : 매년 5월

회사 소속 직원은 2월에 신고한 내용 중에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5월에 추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월에 재신고한 다음 또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면 수정은 가능하고 최근 5년의 내역까지 수정합니다.

◇ 5년 지난 내역은 수정 불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https:// hometax.go.kr](https://hometax.go.kr)

로그인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모든 항목에 “조회”버튼 클릭하기) => 한번에 내려받기

본인의 자료를 내려받기 한 다음 소속 회사의 메일로 보내기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조회한 항목 중 전세 또는 월세 부분이 가장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약 10% 정도 되지만 이 항목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해당됩니다).

◇ 하지만 외국인도 전세 또는 월세 관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것이 바로 월세를 납부할 때 받은 월세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4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1년에 총 사용한 현금 총액은 5백만원 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hometax.go.kr](https://hometax.go.kr)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 하면 됩니다.

상당/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 신청 항목이 완료되면,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를 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1~2일 정도 소요되는데, 처리 기간이 끝난 후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현금영수증” 항목을 조회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상 본인 명의에만 해당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근로 계약 기간 중에는 월세 부분이 현금영수증 항목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은행의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 집 주인의 허락이 없어도 월세 관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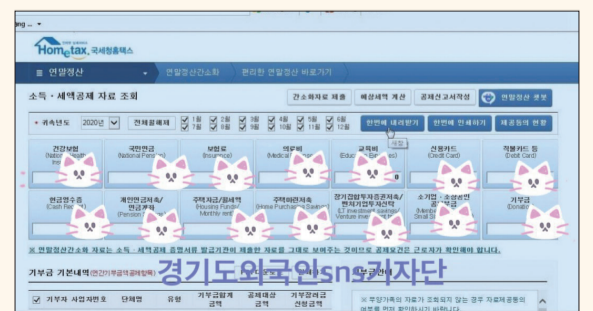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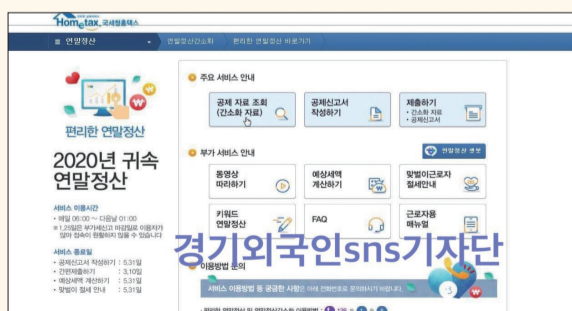
◇ 하지만 월세 계약이 갱신된다면 재신고해야 합니다.

가끔은 국세청에서 신청인 본인이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하였는지 본인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증명서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관리비는 세액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아직도 멈추지 않았으니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누엔탄빈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I Pamamaraan ng Pagpasok sa Paaralan

Mga Edad	Mga Paaralan
3-5	<b>Pagpasok sa Kindergarten</b> (Ihahanda ng mga magulang) Isumite ang aplikasyon sa pamamagitan ng website ng Paaralang Mauna (www.go-firstschool.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ga Oktubre - Disyembre (nag-iiba-iba sa mga kindergar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misita sa Paaralang Mauna (www.go-firstschool.go.kr) at magsign up bilang miyembro</li> <li>Basahin ang mga patrubay sa aplikasyon ng bawat kindergar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ingnan ang mga patrubay sa aplikasyon ng katugong kindergarten upang tuklasin kung nag-aakoi ng may katig na pagpapatala sa mga anak ng mga pamilyang multikultural</li> </ul> </li> <li>Isumite ang aplikasyon at kumuha ng resibo ng paghahain (mayroon para sa paglilimbag)</li> <li>Tingnan ang mga resulta ng loterya at irehistro ang iyong anak</li> <li>Dumalo sa oryentasyon, paunang pagpapatala, atbp</li> </ul> </li> <li>Enero - Pebrero ng susunod na ta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gparehistro para sa mga karagdagang pagpasok at tingnan ang mga resulta</li> <li>Magparehistro para sa mga kindergarten</li> <li>Dumalo sa oryentasyon, paunang pagpapatala, atbp</li> </ul> </li> <li>Unang bahagi ng Mar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remonya ng pagpasok sa paaralan</li> </ul> </li> </ul>
6-11	<b>Pagpasok sa Elementarya</b> (Ihahanda ng mga magulang) Pagtanggap ng abiso ng pagdalo sa paaralan at indibidwal na paghahanda para sa pagpasok sa paara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anggang Disyembre 20 ng pampaaralang taon bago ang taon pagpas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anggapin ang abiso ng pagdalo sa paaralan mula sa pinuno ng eup, myeon, at/o dong na sumasaklaw sa iyo (Tinatukoy ang paaralang dadaluhan at petsa ng pagpas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ghatandang ang pinuno ng sangay Eup/Myeon/Dong ng listahang naglalaman ng pangalan, numero ng pagpaparehistro bilang residente, at tirahan ng mag-aaral, at pangalan, petsa ng kapangyarihan, tirahan at mga detalye para sa pakikipag-ugnayan ng tagapag-alaga, at abisuhan nya ang pinuno ng paaralang papasukan ng bata.</li> <li>Hindi naglalabas ng mga sulat na nag-aabiso ng pagpasok sa mga mag-aaral na may pagkalamang benyaga</li> </ul> </li> </ul> </li> <li>Enero - Pebre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aunang pagpapatala: Pamamagitan ng pagpapatala</li> </ul> </li> <li>Unang bahagi ng Mar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remonya ng pagpasok sa paaralan</li> </ul> </li> </ul>
12-14	<b>Pagpasok sa Primarya</b> (Ihahanda ng mga magulang) Wala (Ang mga paaralang Elementaryang ang magsasagawa ng lahat ng nauugnay na gawiang administratibo at dokumentary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alagitnaan ng Ene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aglalaan ng primaryang paaralan (sistemang loterya)</li> </ul> </li> <li>Huling bahagi ng Ene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abisuhan ang mga mag-aaral tungkol sa kanilang inilang mga paaralan, isang paunang pagpapatala</li> </ul> </li> <li>Kalagitnaan ng Pebre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likasyon para sa muling paglalaan, karagdagang paglalaan, pagsusult para sa paglalagay sa klase</li> </ul> </li> <li>Kalagitnaan hanggang huling bahagi ng Pebre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pinabatid ang mga resulta ng karagdagang paglalaan</li> </ul> </li> <li>Unang bahagi ng Mar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remonya ng pagpasok sa paaralan</li> </ul> </li> </ul>
15-17	<b>Pagpasok sa Mataas na Paarala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ga karaniwang mataas na paaralan (kabilang ang mga nagsasaning mataas na paaralan)</li> <li>Mga dalubhasang paaralan: mga mataas na paaralan ng wikang banyaga, pandaigdigang mataas na paaralan, mataas na paaralan ng agham, mataas na paaralan ng sining, at mataas na paaralan ng pisikal na edukasyon</li> <li>Mga mataas na paaralang bokasyonal: mga mataas na paaralang bokasyonal (pangtrabaho), bokasyonal (alternatibo), mga mataas na paaralang meister</li> <li>Iba pang mga paaralan: mga paaralan para sa mga batang likas na maga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ag-iiba-iba ang mga parang ng pagpasok at mga petsa ng aplikasyon depende sa uri ng mataas na paaralan at mga panglungod at peralawigang tangapan ng edukasyon</li> <li>Kailangang tingnan ng mga mag-aaral ang website ng "Impormasyon sa pagpasok sa mataas na paaralan" (www.hschoo.kr)</li> </ul> </li> </ul>
18 o mas matanda pa	<b>Unibersidad</b>

1) Kung hindi mo magamit ang sistemang pamamahala ng pagpapatala sa kindergarten, ang "Paaralang Mauna (www.go-firstschool.go.kr)" maaari mong bitahin na lamang ang kindergarten nang personal upang isumite ang iyong aplikasyon.

## Magsumite ng Aplikasyon para sa Pagpasok sa Kindergarten

- Mga petsa ng pagsusumite**
  - Bagama't nag-iiba-iba ang mga petsa kada rehiyon at kindergarten, **sa pangkalahatan, tinatanggap ang mga bagong mag-aaral para sa susunod na taon mula Oktubre hanggang Nobiyembre.**
- Mga paraan ng pagsusumite**
  - Mayroong dalawang paraan ng paghahain ng aplikasyon para sa pagpasok sa kindergarten: **aplikasyon sa online** at aplikasyon inihuhulog, at maaari kang maghain ng aplikasyon para sa hanggang 3 kindergarten.
  - Aplikasyon sa online** : Maaaring isumite ng mga magulang ang kanilang mga aplikasyon sa pamamagitan ng website ng Paaralang Mauna.
  - Aplikasyong inihuhulog** : Bibisitahin ng mga magulang ang kanilang nagugustuhang kindergarten upang ihulog ang aplikasyon nang personal (Ang ilang pribadong kindergarten ay tumatanggap lamang ng mga aplikasyong inihuhulog).
- Nahahati ang mga aplikasyon sa **grupong may kaunahan at karaniwang grupo. Dahil isinasama ang ilang kindergarten ang mga batang mula sa mga pamilyang multikultural sa kanilang mga grupong may kaunahan, mangyaring makipag-ugnayan sa kindergarten upang malaman ang higit pa.**
- Sa ilang mga kaso, kinakailangan ng mga kindergarten ang pagsusumite ng mga karagdagang dokumento upang matukoy kung ang mga bata ay mula sa mga pamilyang multikultural: sa kadahilanan ng ito, mahalagang tingnan ang abiso ng pagpasok o makipag-ugnayan sa kindergarten upang tanungin ang tungkol sa mga kinakailangang dokumento.

## Pagpili at Pagpaparehistro ng mga Mag-aaral ng Kindergarten

- Ang pagpili ng mga mag-aaral ng kindergarten ay hindi isinasagawa sa batayang unang dumating, unang pagbibigyan. Kung mas malaki ang bilang ng mga aplikante kaysa sa mga puwestong mayroon, ginagawa ang pagpili sa pamamagitan ng isang loterya. Makikita ang mga resulta ng pagpili sa pamamagitan ng website ng Paaralang Mauna o indibidwal na pagsasabi sa mga aplikante.
- Kung hindi ka napili sa alinman sa mga kindergarten na inaplayan mo, o kung isinuko mo ang iyong pagpapatala sa mga kindergarten na pumili sa iyo, maaari ka pang makapagpapatala sa ibang mga kindergarten na bigong mapuno ang lahat ng mga puwestong mayroon.
- Sa sandaling matukoy sa wakas ang pagpapatala sa kindergarten, bibigyan ang mga magulang (mga tagapag-alaga) ng detalyadong impormasyon sa pamamagitan ng mga paunang pagpapatala o oryentasyon hinggil sa pagpasok sa kindergarten ng kanilang mga an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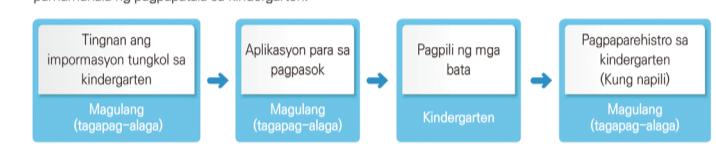
## Paghahanda para sa Pagpasok

- Ang paghahanda para sa pagpasok ay nahahati sa mga bagay na dapat ihanda ng mga magulang at mga bagay na dapat gawin ng mga magulang para sa kanilang anak.
  - Mga bagay na dapat ihanda ng mga magulang** : Beripikahin ang pagiging karapat-dapat na makatanggap ng suportang pangmatrikula at maghanda ng mga karagdagang dokumento sa pagpasok (aplikasyon para sa mga kurso pagkatapos ng klase para sa mga pamilyang dalawa ang naghahanapbuhay o iba pang depende sa kindergarten), mga litrato, mga sertipiko ng mga bakuna at mga pagpapatinging medikal, at iba pang mga materyal na kinakailangan ng mga kindergarten, atbp.
    - Mangyaring siguraduhing dadalo ka sa oryentasyon para sa mga magulang bago magsimula ang pasukan upang makatanggap ng ganap na pamamagitan. Makakatulong ding kilalanin ang kapaligiran sa pamamagitan ng pagbisita sa kindergarten nang maaga kasama ang iyong anak.
  - Mga bagay na dapat gawin ng mga magulang para sa kanilang anak**: Turuan ang iyong anak ng mga pangunahing panuntunan sa kaligtasan, paano manatiling komportableng malayo sa iyo (o sa ibang mga tagapag-alaga), paano makihalubilo sa mga kaeskuwela, mga pangunahing kaugalian (pagsasanay sa paggamit ng palikuran at mga ugali sa hapag-kainan), at ano ang mga dapat pag-ingatan kapag gumagamit ng mga pampaaralang bus.

## 01 Pamamaraan ng Pagpasok sa Kindergarten

- Mga Uri ng Kindergarten**
  - Pambansang kindergarten** : Isang kindergarten na itinatag at pinamamahalaan ng estado
  - Pampublikong kindergarten** : Isang municipal o panlalawigang kindergarten na itinatag at pinamamahalaan ng lokal na pamahalaan
  - Pribadong kindergarten** : Isang kindergarten na itinatag at pinamamahalaan ng isang korporasyon o isang indibidwal
- Mga Puntirang bata**
  - Karapat-dapat na makapasok ang **mga batang edad 3 at higit pa** sa kindergarten bago sila magpatala sa mababang paaralan.
- Petsa ng Pagpasok**
  - Pagpasok sa bagong semestre** : Tumatakbo ang pampaaralang taon mula Marso 1 hanggang katapusan ng Pebrero ng susunod na taon, at **karaniwang nagaganap ang pagpasok sa kindergarten sa Marso.**
  - Pagpasok sa kalagitnaan ng taon** : Dahil maaaring payagan ang pagpasok sa kalagitnaan ng taon depende sa kalagayan ng kindergarten, makipag-ugnayan sa kindergarten upang tuklasin kung makakapasok ang iyong anak.

## Pamamaraan ng Pagpasok



## Mga payo sa paghahanap ng mga kindergarten sa iyong kapitbahayan

- Maaaring matingnan online ang impormasyon tungkol sa kindergarten kada rehiyon sa pamamagitan ng website ng **sistemang pamamahala ng pagpapatala sa kindergarten (Paaralang Mauna)** o website ng **Impormasyon tungkol sa Paaralan ng E-child**. Bukod sa pangkalahatang impormasyon tungkol sa mga kindergarten kada rehiyon, malalaman mo rin ang tungkol sa mga petsa at paraan ng pagpasok at kanilang mga kurikulum.
  - Paaralang Mauna** (www.go-firstschool.go.kr)
    - Isang sistemang pagpapatala sa kindergarten na pinapayagan ang mga magulang (o mga tagapag-alaga) na naghahangad na makapasok ang kanilang anak sa kindergarten na maghainang nang maginhawa online ng impormasyon tungkol at maghain ng aplikasyon, at tingnan ang mga resulta.
  - Impormasyon tungkol sa Paaralan ng E-child** (e-childschoolinfo.moe.go.kr)
    - Impormasyon tungkol sa kasalukuyang istado at operasyon ng mga kindergarten kada rehiyon.
- Isaalang-alang ang apat na sumusunod na salik kapag pumipili ng institusyon ng edukasyong pangmusmus.
  - [Lokasyon]** Isang lugar na malapit sa tahanan o lugar ng trabaho ng mga magulang
    - Kung masyadong mahaba ang pagbibiyaha, maaaring maharap ang bata sa kapagurayan pisikal at pangkaisipan.
  - [Pilosopiyang pang-edukasyon]** Isang lugar na tumutugma sa pilosopiyang pang-edukasyon ng mga magulang
    - Dahil maaaring mag-iiba-iba ang pilosopiyang pang-edukasyon kada kindergarten, kinakailangang suring mabuti ang uri ng pampaaralang kurikulum na bibibigyang-diin.
  - [Mga pasilidad]** Isang ligtas at malinis na lugar
    - Dahil ito ay isang lugar kung saan gugugol ang bata ng higit sa kalahating araw, kailangang tingnan maigi ang kaligtasan, kalinisan, at espasyo kung saan isinasagawa ang mga aktibidad.
  - [Mga guro]** Mga guro may mabuting kasanayan sa pekikihalubilo
    - Para sa pag-unlad ng mga bata, mahalagang magkaroon ang mga guro ng mga positibong pekikihalubilo sa kanila.

## Tandaan Operasyon ng kurikulum ng kindergarten

- Pagsasaayos ng mga semestre at mga klase**
  - Ang pampaaralang taon sa mga kindergarten ay nahahati sa dalawang semestre.
    - Unang semestre** : Mula Marso 1 (dahil ang Marso 1 ay isang pambansang bakasyon, nag-uumpisa ang mga klase sa Marso 2) hanggang sa araw na itinakda ng pinuno ng kindergarten, na isinasaalang-alang ang bilang ng pampaaralang araw, bilang ng mga araw na walang pagtuturo at ang operasyon ng mga kurikulum ng mga katugong kindergarten
    - Ikalawang semestre** : Mula sa araw kasunod ng huling araw ng unang semestre hanggang sa huling araw ng Pebrero ng susunod na taon
  - Ang kurikulum ng kindergarten ay tumatakbo ng apat hanggang limang oras kada araw, at binubuo ang mga kurso pagkatapos ng klase ng mga serbisyong pangangalagang ibinibigay kasunod ng kurikulum at iba pang mga pang-edukasyong aktibidad.
  - Depende sa kalagayan at patakaran pang-edukasyon ng kindergarten, ang mga klase ay maaaring buuin ng isang klaseng iisa ang edad o mga klaseng halo-halo ang edad ng mga batang 3, 4, at 5 taong gulang.
- Bilang ng pampaaralang araw at pagdalo**
  - Kinakailangang nasa sesyon ang mga kindergarten sa loob ng higit sa **180 araw** kada pampaaralang taon, at ang eksaktong bilang ng araw ay maaaring tukuyin ng pinuno ng bawat kindergarten ayon sa kanyang mabuting pagpapasya.
- Kurikulum (Kursong Nuri)**
  - Ang kurikulum sa kindergarten ay tinatawag na **Kursong Nuri** at naglalayong makatulong sa kalusugan at maayos na pag-unlad, at upang mabuo ang batayan ng mabuting karakter at demokratikong pagkamamayan.
  - Ang Kursong Nuri ay binubuo ng limang larangan (pisikal na ehersisyo/kalusugan, komunikasyon, ugnayang panlipunan, karanasan sa sining, paglalugad sa kalikasan), at sa pamamagitan ng paglalaro, ang nilalaman ng limang larangan ay isinama at naiugnay sa mga karanasan ng mga bata.
  - Batay sa Kursong Nuri, ito ay isang plano na angkop para sa sitwasyon ng bawat institusyon ay itinatag at pinapatakbo, at ang paglalaro ng bata ay naayos at pinapatakbo upang ang paglalaro ng mga bata, kabilang ang panlabas na paglalaro, ay maaring ganap na maisagawa sa araw ng kindergarten.
- Pang-araw-araw na Talakdaan ng Klase**
  - Hindi katulad ng mga Elementarya, mga gitnang paaralan at mga mataas na paaralan, walang mga aklat-aralin sa mga kindergarten. Sa kindergarten ang mga bata ay malayang makilalok at makisaya sa paglalaro ayon sa kanilang mga interes.
  - Ang mga sanggol ay may ibang ibang mga karanasan sa kanilang araw upang maglaro, pang-araw-araw na buhay, at mga aktibidad. Tumatagal ang paglalaro ng pinakamahabang oras ng araw, kabilang ang paglalaro sa labas.
    - Kasama sa pang-araw-araw na buhay ang paghahardin, paghuhugas ng kamay, pagpunta sa banyo, menyenda, tanghalian, pagtulog at pamamahinga. Sa pamamagitan nito, sinasalamin nito ang pisikal na ritmo ng mga bata at sinusupportahan sila ng magsaya sa kindergarten.
    - Ang mga aktibidad ay suportado mula sa mga guro na tumutulong sa mga bata na mapalawak ang kanilang pag-aaral sa pamamagitan ng paglalaro. Ang mga guro ay nagpapalano at ngapatakbo ng mga aktibidad upang suportahan ang larong pinamunuan ng bata.
  - Halimbawa: edukasyong pangkaligtasan, pag-awit ng bagong kanta, pagbabahagi ng kwento, pakikinig sa mahiwagang kwento, atbp.



## 다문화특구, 정 나누고 안전 지키고

자원봉사센터 생생이동밥차, 소방서 길터주기 훈련



원곡동 다문화특구에는 최근 다문화가족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사들이 진행됐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생생이동밥차 운영을 개시하며 안산시민과 다문화가족을 응원했다. 또한 안산소방서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 #‘다가올 봄! 어묵탕 먹고 힘내 봄!’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안산시에 발맞추어 지난 1월 22일 원곡동 다문화특구 주택경로당 앞에서 생생이동밥차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로나19로 지친 안산시민과 다문화가족을 격려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예방 거리두기 동참 홍보캠페인과 함께 포장어묵탕 200개 나눔 행사인 ‘다가올 봄! 어묵탕 먹고 힘내 봄!’을 진행하였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MG새마을금고 안산시협의회(군자지점, 수암지점, 신반월지점, 안산서부지점, 안산중앙지점)와 IBK기업은행’에서 후원한 생생이동밥차를 통하여 관내 골목골목을 찾아가 한끼 식사를 제공하며 소통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어묵탕 나눔 행사를 통하여 2021년 생생이동밥차 운영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 갈 예정이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홍희성 이사장은 “생생이동밥차를 운영하여 안산시 관내 곳곳을 누비며 한끼 식사 제공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따뜻한 사랑 나눔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산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안산소방서는 지난 1월 22일 원곡동 다문화거리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공무원과 단원구청, 단원경찰서 등 차량 5대와 인원 20여명이 동원되어 차량통행이 많은 신길 아이파크 앞 도로에서 중앙대로 구간까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진입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주요 훈련내용은 출동차량 카퍼레이드 및 음원활용 홍보방송,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홍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등으로 진행했다.

김승남 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각으로 화재예방 및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화상 이주민 자녀, 지역사회가 돕다

안산시-(주)TS트릴리온, 전신 화상 치료비 전액 지원



온몸 곳곳에 3도 화상을 입은 4살 짜리 소년이 안산시(시장 윤화섭)와 (주)트릴리온 등의 도움으로 병원비 문제를 해결했다.

삼푸 전문 글로벌 기업 (주)트릴리온은 지난 2019년 관내 무국적·미등록 아동 등의 어려움을 도운 데 이어 또 다시 선행을 베풀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 사는 4살 소년 갖슨은 이달 8일 집에 불이 나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담당 의사는 머리와 어깨, 엉덩이, 두 손 등 온몸 곳곳에 3도 화상이 진단돼 2번 이상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출신의 갖슨 부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1년 가까이 일을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가 힘든 실정이었

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안산시는 안산제일복지재단(이사장 허요환)과 함께 동분서주하며 도움의 손길을 찾았고, 장기영 (주)트릴리온 대표가 선뜻 병원비 1천5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장기영 대표는 “이주민 자녀에게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낮선 나라에 꿈을 안고 찾아온 갖슨 가족들이 희망을 찾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영 대표는 기계에 손을 다친 캄보디아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수술비 전액을 후원하고, 장기손상 등 19개 질병을 갖고 태어난 미등록·무국적 아동에게 수술비와 더불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지원을 위한 결연을 맺는 등 따뜻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김영의 기자

## ‘원곡역’→‘시우역’으로 개정해

안산시, 시민 등 이용객 혼란 해소 안내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그동안 ‘온천 없는 온천역’으로 철도이용객들에게 혼란을 주던 안산선(4호선)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역명과 행정구역명이 달랐던 서해선 ‘원곡역’을 ‘시우역’으로 역명을 개정했다.

당초 ‘신길온천역’은 2000년 7월 안산선의 종점이 ‘안산역’에서 ‘오이도역’으로 연장 될 때, 당시 주변 온천 개발 기대감 등을 반영해 ‘신길온천역’으로 이름을 정했으나, 그간 온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철도이용객들의 혼란과 역명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역명 개정을 추

진하게 됐다. 또한, 서해선(소사원시) ‘원곡역’은 법정동이 원시동임에도 역명이 ‘원곡역’이라 불합리했던 점, 과거 이 지역의 마을명의 유래가 ‘시우’라는 점을 감안해 ‘시우역’으로 개정했다.

안산시는 작년 3월부터 시민의 견수렴 및 개정 절차를 통해 안산선 ‘신길온천역’과 서해선 ‘원곡역’의 역명 개정을 요구했으며,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우역’은 지난해 11월 24일, ‘능길역’은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공공증해소

**이민법 전문 변호사 안내**

---

김예진  
변호사

---

지율이민법센터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비자 변경, 국적 취득, 성분상설  
가족법 문제 등 모든 상담 가능

---

모국어 통역 상담

영어(English), 태국어(ภาษาไทย),  
중국어(汉语), 베트남어(Tiếng Việt),

---

이주민 상담

대표번호 1599-2569

#중하오 만개!



## 다문화가족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시흥시의 다양한 복지혜택

생계급여 더 많은 사람 혜택, 생활요금 부담 덜기, 일하는 여성 가사부담 경감 등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다문화가족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흥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부터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대상자 확인 조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

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인 노인, 한부모가구 신규 책정자에 대해 책정 통보 시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를 집중적으로 홍보중이다. 시흥시는 기준 폐지, 개정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요금 감면 미신청 대상자 집중 홍보

시흥시는 복지대상자의 생활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감면 신청 홍보에 나섰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의 복지제도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가 통신비 외에 전기요금, 도시가

스요금, TV 수신료, 지역난방비 등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에 따라 해당 여부와 감면 규모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반드시 감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생계, 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 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 월 2만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또한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를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일하는 여성, 새일반찬점 이용자 모집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2021년 새일반찬점 이용자를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새일반찬점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여성근로자의 가사부담을 경감시켜 재직 여성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고자 기획됐다.

매년 이용자 95% 이상이 가사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95%가 반찬점 이용이 가사노동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새일반찬점 이용자 모집 제출서류는 시흥시청 모집공고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올해 새일반찬점 위탁운영 업소로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라궁(능곡동), 꿈꾸는에이프린(하상동), 찬과함께(신천동), 로템의 올바른식탁(신천동), 영양사가 차려주는 밥상(산현동), 조리고볶고(월곶동), 참살이반찬(월곶동), 셰프삼촌(정왕동), 셰프삼촌(대야동), 응이네반찬(장곡동), 진이찬방(장현동), ㈜이피푸드(정왕동) 등 총 12개 전문 반찬점이 선정됐다. 새일반찬점 관련 문의는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031-310-6297, 6027)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2차 재난기본소득, 京畿道第二次灾难基本所得, 将支付给所有的外国居民

京畿道将于春节前的2月1日开始受理向道民每人支付10万韩元的“第二次灾难基本收入”申请。申请方法有有线、线下及弱势群体上门服务等3种。线上从2月1日到3月14日(上午9点至晚上11点)可以通过京畿道灾难基本收入申请网站,从京畿地区货币或市中12个信用卡中选择一个进行申请,最快将从2月2日开始使用。

考虑到防疫情况,决定将线下(现场)支付推迟到3月以后,活动将从3月1日开始进行到4月30日。访问住所地邑面洞行政福利中心时,用预付卡形式的京畿地区货币卡支付。

“上门服务”是以高龄者、残疾人、低收入单亲家庭及领取基础生活补贴者等为对象,从2月1日开始到2月28日结束。

灾难基本收入的使用期限为自收到使用许可短信之日起3个月,截止日期为6月30日。另外,只能在居民登记所在地市郡内的京畿地区货币加盟店所使用。

为了克服“新冠病毒”带来的经济危机,今年将向所有道民发放“第二次灾难基本所

得”与年龄、职业、收入无关。去年第一次灾难基本收入时,未能支援的48万名外国人和外籍同胞也包括在支援对象之中,因此约有1399万名京畿道居民将成为支援对象。至此,包括10万多名多文化家庭在内,居住在京畿道的所有58万名移居者将得到第二次灾难基本所得。但是支付时间要求根据防疫状况而定,尊重民主党的劝告,仔细检查新冠病毒状况和防疫趋势后再做决定。

京畿道知事李在明20日在京畿道厅通过包含上述内容的《第二次京畿道灾难基本所得支付相关道民报告》表示:“在新冠病毒毒结束,流行趋势将持续下去,由此带来的经济困难也将进一步加深。因此,为消除‘新冠病毒’而进行的保健防疫和防止经济恶化的经济防疫是必须协调解决的重要课题。”

李在明知事接着表明:“京畿道议会中包含了经济复苏的紧迫感和新冠病毒扩散的担忧,提出了京畿道灾难基本所得的支付方案”,“对为道民做出的有诚意的决断和提案表示感谢,并且京畿道在仔细研究了京畿道

议会的提案后,做出支付决定”。

当天,李知事在介绍灾难基本所得支援方法之前,对于对于第二次灾难基本所得的担忧的呼声,解释了自己的立场:“在京畿道议会提案后的近10天时间里,保健防疫和经济防疫达成了协调,对于最佳的结果,对于这个方案是什么,进行了激烈的讨论和思考。”

首先,对于“为刺激消费的灾难基本所得的支付稍有疏忽就会导致防疫上的障碍”的忧虑,他表示:“全世界关注的K-防疫的成功,是得益于国民的积极协助。我确信,具有这种成熟市民意识的道民在使用小额消费支援金时也会像现在一样彻底遵守防疫守则。虽然目前政府也发放巨额的选择性支援金,但没有任何迹象表明因为支援金而导致防疫恶化,而认为比这更小额的普遍性地区货币的支付会给防疫带来障碍的主张也很难找到根据。”

对于“地区间可能会出现差别”的指责,他表示:“地方政府根据各自的特色和状况、负责人的哲学开展行政活动,在不同的环境

中互相竞争学习,这是地方自治制度,因此很难接受。”

他还指出:“去年支付灾难支援金的京畿道内31个市、郡中财政自立度最低的抱川市反而人均支付了40万韩元的最高额,而且目前全国10多个财政自立度最低的市、郡都支付了灾难支援金,由此可见,财政自立度和财源筹措力量之间的关联性微乎其微。因此,与其说灾难支援金是财政余力问题,不如说是制定政策和预算的问题。这接近于优先级问题。”

第二次灾难基本所得的申请与第一次一样,通过网络和现场申请进行,申请期限和使用期限原则上与第一次灾难基本所得的方式相同。与只向结婚移民者和永住权者支付第一次灾难基本所得时不同,此次的第二次灾难基本所得不仅是登记的外国人,就连申报在国内居住的外籍同胞也将全部得到支援。

这是可以让居住在京畿道的所有外国居民切实感受到自己是京畿道居民并感到自豪的决定。(한글 기사 2면) 왕그나 기자



## Финансовые советы 외국인주민이 한국에서 더 잘 살기 위한 재정적 조언

어느 나라나 근검절약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 ... 시간 잘 활용하고 투자법도 익혀 실행해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рея вошла в Топ-10 самых дорогих стран мира. В учет брались пять показателей: стоимость покупки и аренды жилья, цены на продукты, средний чек в ресторане и покупатель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Чтобы в Корее не только выживать, но и жить с комфортом необходимо научиться очень аккуратно обращаться с финансами. Для этого известные финансовые консультанты и просит успешные люди рекомендуют:

1) Вести детальный учет доходов. Для этого существует много мобильных приложений, кто-то предпочитает таблицу в Excel, кто-то по старинке записывает в блокнот. Сюда входят все поступающие к вам деньги: зарплата, подработки, доход с бизнеса, премии, подарки от родных и т.д.

И расходов. Подробный учет поможет нам понять, куда уходит большая часть денег, какие статьи расхода можно смело или постепенно сократить. Вы с удивлением можете обнаружить, что до сих пор оплачиваете музыка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или платную подписку на сайт, которыми давно не пользуетесь, и что счет на кофе и макаруны превышает стоимость обеда.

Все расходы делим на Обязательные: жилье, коммунальные платежи, плата за садик, школу, продукты домой (без спиртного), расходы на лекарства, проезд и налоги; Необязательные: сюда входит все остальное. Плюс добавляем еще одну статью.

2) Накопления. Рекомендуется откладывать около не менее 10% от постоянного дохода и 50% от неожиданного (подарки, премии). Откладывают можно под матрас в наличных, открыть накопительный счет в банке, купить золото или валюту. И одна важ-

ная деталь: накопл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водить сразу после поступления денег к вам, то есть себе необходимо плати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а потом уже квартплаты, платежи по счетам и т.д.

3) Цель накоплений. Ремонт в доме, долгожданный отпуск за границей или начало нового бизнеса – четкое определение с целью, суммой и сроками поможет более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но подойти к откладыванию денег. После достижения цели можно ставить новую.

4) Высчитать стоимость одного рабочего часа. Для этого делим зарплату на количество часов, которые вы провели на работе, включая сборы, дорогу на работу и обратно. Цифра получится гораздо меньше привычной ставки. Например: зарплата 2,000,000. Рабочий день (начиная с пробуждения в 7 утра и заканчивая прибытием домой в 7 вечера) – 12 часов, работаете вы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пятницу, значит, вместо привычной 40-часовой рабочей недели вы работаете 60 часов. Итого 2,000,000 / (12\*5\*4)=8,333. При обычном расчете один час вашего труда стоил бы 2,000,000/(8\*5\*4)=12,500 вон. Такие расчеты здорово отрезвляют и помогают нам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спонтанных покупок. Когда захочется купить очередную розовую кофточку или черные джинсы, разделите стоимость вещи на стоимость вашего рабочего часа. Например, джинсы стоят 60,000 вон, а ваш рабочий час – 8,333. Чтобы заработать на данную вещь, вам необходимо проработать 7 часов. Стоит ли игра свеч?

5) Наведите порядок дома. Избавьтесь от вещей, которые не носите и не используете. Вещи в хорошем состоянии можно отдать н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ь или продать на сайте по продаже б/у вещей, остальное смело выкину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ы не только обнаружите, как много денег тратится на неиспользуемые вещи, но и можете, найдете тот самый свитер с еще не отрезанной биркой, о приобрет-

ении которого совсем забыли. Также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те ревизию в холодильнике, чтобы исключить лишние покупки.

6) Перед походом в магазин составьте список. И строго ему следуйте. И не ходите за продуктами на голодный желудок. Если возникает спонтанное желание купить что-то несъедобное, см. пункт 4.

7) Иногда устраивайте «диетические дни». Речь не о подсчете калорий и сбросе веса. Диету можно устроить своим финансам (моя коллега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тратила только на проезд в метро: обеды приносила с собой, не покупала кофе и вещи). И периодически разгружайте свой холодильник (냉장고 파먹기), вы удивитесь как, во-первых, много продуктов у вас в холодильнике; во-вторых, как при помощи этих продуктов можно разнообразно питаться.

Еще можно начать изучать акции и вложения в недвижимость, вспомнить, чем вы талантливы и попробовать превратить хобби в деньги, попросить вернуть долг, взятый подружкой много лет назад. Не ставьте сразу высокую планку, так как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будет сложно ее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и вы сорветесь раньше чем хотелось бы. И как во всех методиках, важнее всего периодичность. Необходимо выполнять намеченное, в той или иной степени но именно выполнять. Становитесь богаче!

지난해 한국은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10대 국가에 포함됐다고 한다. 물가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주거비(집을 사고 임대하는 비용), 식비, 외식비, 국민의 구매력 등 다섯 가지 지표가 고려되었다.

외국인주민이 한국에서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재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 잘 알려진 금융 컨설턴트와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 7가지를 권장한다.

1) 소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누군가는 Excel의 표를 선호하고 누군가는 메모장에 구식 방식으로 쓰는 걸 선호한다. 여기에는 급여, 아-

르바이트, 사업 수입, 보너스, 친척의 선물(용돈) 등 모든 받는 돈이 포함된다.

또한 비용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한다. 상세한 회계는 대부분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지출 항목이 안전하거나 점진적으로 줄어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기록을 하다보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음악 앱이나 유료 구독에 여전히 비용을 지불하고 커피와 마카롱 요금이 식사비용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다.

모든 비용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눠 볼 것을 권한다. 의무적인 비용에는 주거비, 공과금(관리비), 유치원 비, 교육비, 가정 식비(알코올 제외), 의료비, 교통비 및 세금 등이 있을 것이다. 반면 비의무적인 비용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2) 축적금: 정기적인 수입의 약 10% 정도와 예상치 못한 수입(선물, 보너스)의 50%를 따로 저축해 두는 것이 좋다. 매트리스 밑에 현금을 넣어두거나 은행에 저축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이나 외화(달러)를 살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은 저축은 돈을 받자마자 바로 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저축 후에 임대료, 청구서 지불 등을 해야 한다.

3) 저축의 목적: 집을 개조하거나(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외여행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등의 목적으로 금액 및 시기를 명확하게 정의하면 더 규칙적으로 저축할 수 있다. 목표에 도달한 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4) 한 시간의 비용을 계산해 본다. 먼저 월급을 계산하고 출퇴근 시간 등 근무 시간으로 나눈다. 수치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급여 2백만원의 경우 근무일(오전 7시에 일어나서 오후 7시에 집에 도착)은 12시간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 즉, 주 40시간 근무 대신 60시간 근무한다. 합계 2,000,000 / (12\*5\*4)=8,333 원 ; 따라서 기본 시급은 2,000,000 / (8\*5\*4)=12,500원이다. 이러한 계산은 매우 냉정하며(정신을 번쩍하게 하며) 충동적인 구매를 자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핑크색 블라우스나 검은 색 청바지를 더 사고 싶을 때는 물품 가격을 근무 시간으로 나눈다.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장울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시흥시보건소, 정왕1동 주민센터와 함께 관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3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센터 주차장에 설치 운영했다.(사진=시흥외복)

이번 임시선별검사소는 코로나19의 수도권 3차 유행에 따라 검사를 통해 감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영됐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받을 수 있는 선별검사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미등록 외국인들도 전화번호만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센터의 전직원이 검사를 받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이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관내 외국인주민들은 시흥시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를 방문하면 계속해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 필요없이 전화번호만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No need I.D. Any foreigner can visit to Siheung Public Health Center or Jeongwang Health Center to get free Covid19 test.

이지은 기자

### 다문화가족,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운동으로 건강 ON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로 인해 신체활동이 줄어든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내 몸 운동 모드 ON, 온라인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깥 활동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집에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오는 2월 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운영한다.

참여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화상 프로그램으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운동교실은 아령, 폼롤러 등을 이용한 신체 활동 수업으로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올바른 걷기 자세와 소도구 활용 운동법 등 실시간 소통으로 맞춤형 운동 상담도 할 수 있다.

한편 목감등에 소재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12월에 준공했다. 통합건강상담실, 운동지도실, 재활보 건실 등 전문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개소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중부권 지역주민과 온라인으로 만나기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보건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031-310-0703)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시흥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b>시흥시화병원</b> 24시간 운영	☞ 군자천로 381	☎ 031)5189-0075
<b>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b> 24시간 운영	☞ 공단1대로 237	☎ 031)8041-3752
<b>신천연합병원</b> 24시간 운영	☞ 복지로 57	☎ 031)310-6344
<b>시흥시보건소</b> 월~금 9시~18시	☞ 호현로 55	☎ 031)310-6815~8
<b>시흥시정왕보건지소</b> 월~금 9시~18시	☞ 정왕대로 233번길 19	☎ 031)310-6801~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외국인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ll Foreigners can get Covid 19 test for free of charge.  
You can visit **Jeongwang Public Health Center.**  
Including **Undocumented Migrants.**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면제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뉴스·공지 > 새소식 > 676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도  
 코로나19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검사받으세요.

คนต่างชาติดังกล่าวหาก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บการตรวจโควิด19ได้ฟรีโดยไม่ต้องยื่นยืนยันวีซ่า กรณีได้รับ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จากสถาบัน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เนื่องจากอาการโควิด19 สำนักงาน 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จะไม่ได้รับแจ้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และการบังคับใช้จะถูกระงับ

Нелегально пребываемые иностранцы без проверки статуса визы тоже могут пройти тест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если проходите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лечение в медицинском учреждении, ваши данные не передаются в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офис и откладывают контроль, что спокойно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обследование.

Ngay cả là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cũng không phải qua quá trình kiểm tra visa vẫn có thể nhận xét nghiệm Corona-19 và trường hợp có triệu chứng Corona-19 nên cần nhận xét nghiệm và điều trị cũng sẽ không bị thông báo thông tin cho văn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 việc bắt giữ cũng được hoãn lại nên cứ yên tâm nhận xét nghiệm.


시흥시다문화이주민센터



# 'สมุดบัญชีเงินฝากการเอาชนะ COVID-19' ของเขตคยองกีโด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กา

## จง 다문화가족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โดจะสนับสนุน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ประสบปัญหา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ติดเชื้อโคโรนาสายพันธุ์ใหม่ (COVID-19) เป็นเวลานานเพื่อเปิดสมุดบัญชีเงินฝากเชิงลบจำนวนมากถึง 10 ล้านวอ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โดประกาศเมื่อวันที่ 29 ที่ผ่านมว่าจะส่งเสริมโครงการ 'สมุดบัญชีเงินฝาก' นัก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เอาชนะ COVID-19 ตั้งแต่เดือนมกราคมปีใหม่นี้ นี่เป็นครั้งแรกในบรรดา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ในประเทศและให้เงินกู้ที่ไม่มีหลักประกันดอกเบี้ยต่ำโดยไม่

มี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การค้ำประกันแก่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ต้องการเงินทุนเร่งด่วน แต่มีปัญหาในการใช้ภาคการเงินแรกเนื่องจาก

อันดับเครดิตที่ต่ำหรือมีปัญหาเกี่ยวกับ 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สูง สมุดบัญชีเงินฝากนี้สามารถยืมได้สูงสุด 10 ล้านวอนต่อ บริษัท ระยะเวลากู้ 1 ปี แต่สามารถขยายได้ 4 ครั้งจึงใช้ได้นานถึง 5 ปีอัตราผันแปร 3 เดือน (ณ วันที่ 17 ธันวาคม) คือ 2.58%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สำหรับการค้ำประกันพิเศษโดยใช้มูลนิธิต่าประกัน

สินเชื่อ Gyeonggi ที่มีอยู่ผู้ใช้จะต้องจ่าย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การค้ำประกัน 1% ต่อปี แต่ Gyeonggi-do จะจ่ายค่า

ธรรมเนียมค้ำประกันเต็มจำนวนสำหรับ COVID-19 นี้ที่เอาชนะ

ในบรรดา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ดำเนินงานในพื้นที่คยองกีโดตัวแทนมีอันดับ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 6 หรือน้อยกว่ารายได้เฉลี่ย (80% หรือน้อยกว่าโดยพิจารณาจากครัวเรือน 4 คน) หัวหน้าครัวเรือนที่เกษียณอายุแล้วในช่วง 40 ถึง 50 ปีผู้ลี้ภัย, ผู้พิการ คน, ครอบครัวพ่อแม่เลี้ยงเดี่ยว,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กา จอง ชีวุดชั้นพื้นฐานต้องสอดคล้องกับผู้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การค้ำประกันผู้ใช้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มีดอกเบี้ยสูงและผู้ก่อตั้งใหม่ซึ่งเป็นคนหนุ่มสาวที่อายุต่ำกว่า 39 ปี จำนวนเงินสนับสนุนทั้งหมด 2 แสนล้านวอน

และ บริษัท อย่างน้อย 20,000 แห่งจะได้รับประโยชน์ตั้งแต่วันที่ 11 มกราคมธนาคารสามารถเปิดได้ที่สาขา 154 แห่งของ NH Nonghyup Bank และสำนักงานสาขา 61 แห่งซึ่งตั้งอยู่ในพื้นที่ Gyeonggi

เนื่องจาก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โดเป็น 'สมุดบัญชีเงินฝากสำหรับการกู้คืนกรณีฉุกเฉิน' ธนาคาร NH Nonghyup จึงให้บริการแบบครบวงจรสำหรับการขอค้ำประกันการรับการค้ากรอง (รวมถึง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สถานะ ณ สถานที่) และ

เงินกู้เพื่อ ให้ประชาชน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สะดวกและรวดเร็ว นโยบายใน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 ดังนั้น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ต้องการรับการ

สนับสนุนสามารถรับคำปรึกษาผ่าน 25 สาขาของมูลนิธิค้ำประกันสินเชื่อ Gyeonggi (หมายเลขตัวแทน 1577-5900) และสาขาของ NH Nonghyup Bank 154 สาขาใน Gyeonggi-do และสำนักงานสาขา 61 แห่ง (หมายเลขตัวแทน 1661- 3000, 1522-3000)

เกี่ยวกับ 'เอาชนะ COVID-19 สมุดเงินฝากสำหรับนักธุรกิจรายย่อยในคยองกีโด' ผู้จัดการ Hwang Young-seong, ฝ่ายสนับสนุนองค์กรเฉพาะด้าน Gyeonggi-do ซึ่งเป็นแผนกหลักที่รับผิดชอบกล่าวว่า "โครงการนี้ทำให้นักธุรกิจ

ขนาดเล็กที่กำลังต่อสู้กับ COVID-19 มีอำนาจในการเอาชนะภัยพิบัติและลุกขึ้นอีกครั้งมัน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กักกันทาง เศรษฐกิจที่ดำเนินการเพื่อจุดประสงค์นี้ "เขากล่าว" เราคาดหวังว่ามันจะเป็นจุดเริ่มต้นเพื่อนำไปสู่วงจรที่งดงามของ

เศรษฐกิจในท้องถิ่นผ่านช่องทางการจัดหาเงินทุนด้วยตนเองที่ราบรื่น ." <한글 기사 44면> 이아리 기자

#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ยู่ระหว่างการทดสอบโคโรนายังได้รับ "ค่าชดเชยการสูญเสียรายได้จากการลาป่วย"

คนงานจำนวนมากสัมผัสกับการติดเชื้อ COVID-19 จากการติดต่อกับคนหลายคนอย่างหลีกเลี่ยงไม่ได้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คนงานที่มีความเสี่ยง เช่น คนงานรายวันต้องกังวลเกี่ยวกับการดำรงชีวิตของพวกเขาก่อนที่จะทดสอบว่าพวกเขามีอาการที่น่า สงสัยของ COVID-19 หรือไม่

ในกรณีของศูนย์โลจิสติกส์ Bucheon Coupang ในกรณีของคนงานรายวันค่าจ้างรายวันจะเชื่อมโยงโดยตรงกับการดำรง ชีวิตของพวกเขาดังนั้นแม้ว่าพวกเขาจะมีอาการสงสัย COVID-19 แต่พวกเขาก็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อย่าง ง่ายดายหรือไป ทำงานโดยไม่ได้พักผ่อนปัญหาคือหากผู้ที่มีอาการของการติดเชื้อไม่ได้รับการทดสอบและยังคงทำงานต่อไปอาจนำไปสู่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ของการติดเชื้อในชุมชน

ดังนั้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โดจึงจ่ายเงินจำนวน 230,000 วอนต่อคนสำหรับ "ค่าชดเชยการสูญเสียรายได้จากการเจ็บป่วย" เพื่อให้คนงานที่มีความเสี่ยงสามารถผ่านการทดสอบ COVID-19 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กังวลเรื่องความเป็นอยู่

■ การชดเชยการสูญเสียรายได้สำหรับการลาป่วยมีผลกับคนทำงานรายวัน ... ใบสมัครในเดือนกุมภาพันธ์นี้

ในปีนีเพื่อให้สอดคล้องกับท่าทีของรัฐบาลในการ "ขยายการทดสอบ COVID-19 การทดสอบล่วงหน้า" โครงการนี้จะดำเนิน

การโดยการผ่อนปรนข้อกำหนด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เพื่อให้คนงานที่มีข้อสงสัยทั้งหมดที่ผ่านการทดสอบวินิจฉัย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โดยไม่คำนึงถึงอาการเป็นการเสริมสร้างมาตรการในการดำรงชีวิตของคนงานที่เปราะบางและการป้องกันการแพร่ระบาดของ COVID-19

นอกจากนี้ขอบเขตการสนับสนุน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จะขยายออกไปด้วย ปีที่แล้วแอปพลิเคชัน จำกัด เฉพาะผู้อยู่อาศัยถาวร

และผู้ย้ายถิ่นฐานที่แต่งงานแล้วแต่ในปี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จดทะเบียนในจังหวัดทั้งหมดจะมีสิทธิ์รวมถึ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คยองกีโด

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สมัครคือตั้งแต่วันที่ 1 กุมภาพันธ์ถึง 10 ธันวาคมและเอกสารที่จำเป็น เช่น แบบฟอร์มใบสมัครสำเนา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 ประชาชนการยืนยันประสิทธิภาพการแยกตัวเองและการชดเชยสำหรับใบเสร็จรับเงินที่ฉ้อโกง และเอกสารยืนยันคุณสมบัติจะถูก ส่งไปยังเมือง / เขตที่เกี่ยวข้องทางอีเมล ส่งไปรษณีย์หรือเยี่ยมชมคุณ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คุณสามารถขอรับการตรวจ

วินิจฉัยได้หลังจากได้รับการตรวจวินิจฉัยผ่านศูนย์บริ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หรือคลินิกคัดกรองและหลังจากผลการตรวจ (ลบ) ออก

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ของ COVID-19 ขอแนะนำให้สมัครทางออนไลน์แทนการเยี่ยมชมและจะจ่ายค่าตอบแทน เป็น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 หรือ บัตรเติมเงินหลังจากตรวจสอบเอกสาร

สำหรับข้อมูลเพิ่มเติมโปรดติดต่อ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คยองกีโด (031-120) หรือ ผ่านเมือง / ปิ่นในทางกลับกันปีที่แล้วจังหวัด

คยองกี โจ่ายเงิน 233,253 ล้านวอน (ณ วันที่ 16 พฤศจิกายน 2020) ให้กับผู้คน 1,011 คน หลังจากห้าเดือนของการ

เริ่มต้น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งินชดเชยการสูญเสียรายได้จากการ

ลาป่วย มีคนงานระยะสั้น 235 คน คนงานรายวัน 429 คน คนงานประเภทพิเศษ 264 คน และ พยาบาล 83 ค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พบว่า 43% ของผู้สมัครทั้งหมดเป็นคนงานรายวันเช่นสถานที่ก่อสร้างซึ่งไม่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ร่างกาย หรือ หยุดพักได้แม้ว่าจะมีอาการที่น่าสงสัย เนื่องจากค่าจ้างรายวันของพวกเขาเกี่ยวข้องกับโดยตรงกับการดำรงชีวิตของพวกเขา

ในขั้นต้นมีเพียงคนงานที่ถูกกักกันตัวเองจนกว่าผลการทดสอบจะได้รับแจ้งหลังจากได้รับการทดสอบอย่างจริงจังสำหรับอาการที่น่าสงสัยของ COVID-19 แต่ตั้งแต่เดือนกรกฎาคม คนงานที่ไม่มีอาการซึ่งเข้าเยี่ยมชม และ ใช้สิ่ง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

หลายอย่างที่รายงานโดยมาตรการตอบโต้การกักกันส่วนกลางรวมอยู่ด้วย

นอกจากนี้ระยะเวลาในการขอรับเงินชดเชยการสูญเสียรายได้จากการลาป่วยเมื่อปีที่แล้วได้ขยายออกไปอย่างเร่งด่วนจากวันที่ 11 ถึง 24 ธันวาคม เพื่อให้สอดคล้องกับจำนวนผู้ป่วยที่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 COVID-19 ที่เพิ่มขึ้น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เพื่อ

ป้องกัน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ของกลุ่มโดยอนุญาตให้คนงานที่อยู่ในจุดบอดด้วยเหตุผล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 ฯลฯ ได้รับการทดสอบอย่าง

รวดเร็ว เงินทุนการสูญเสียรายได้จากการลาป่วยเมื่อปีที่แล้วได้ขยายออกไปอย่างเร่งด่วนจากวันที่ 11 ถึง 24 ธันวาคม

<한글 기사 47면> 이아리 기자



连接世代-  
提高人生周期共感

连接世代-  
提高人生周期共感

中国語



## 妊娠·生育

### □ 产妇·新生儿健康管理支援

保健政策科地区保健组 (031-310-5857)  
正往保健分所 (031-310-5941)

- 支援对象：辖区内2020年内生育的家庭
- 筛选标准：在本辖区进行居民登记的孕产妇（按照申请日期为准近期健康保险金缴纳额度提供分级支援）
- 申请时间：预产期40日前~产后30日内
- 支援内容：产妇的产后健康管理及新生儿管理上门服务
- 申请方法：前往保健所申请或在线申请
- 申请流程：保健所申请→合作企业签约→使用代金券



### □ 生育奖励金支援

保健政策科地区保健组(031-310-5850)  
正往保健分所(031-310-5921)

- 支援对象
  - 以新生儿出生日为准，父或母在始兴市辖区内居民登记且居住满180天
  - 新生儿出生时居住时间未满180天的居民在本辖区内住满180天时（父或母居民登记转入始兴市的日期应在新生儿出生日之前）
- 申请时间：全年
- 支援内容：第一胎50万元，第二胎100万元，第三胎200万元，第四胎及以上1,000万元
- 申请方法：申报出生时在洞行政福利中心申请
- 提交材料：身份证，存折复印件(父或母)

### □ 产后调理费支援

保健政策科地区保健组(031-310-5838)  
正往保健分所(031-310-5938)

- 支援对象：以新生儿出生日为准，在京畿道辖区内居住时间在1年以上的生育家庭(收入水平不限)
- 申请时间：以出生日(包含)为准12个月内
- 支援内容：新生儿1名支援50万SIRU(始兴市地区货币)
- 申请方法：前往新生儿居民登记所在洞行政福利中心提交申请
- 提交材料：身份证，居民登记簿本及初本，出生证明等

### □ 女性残疾人生育费用支援

残疾人福利科残疾人福利组(031-310-6867)

- 支援对象：已登记的女性残疾人中生育、流产·死胎分娩者
  - 2020年1月1日后生育的产妇
  - 2020年1月1日后妊娠4个月以上发生胎儿流产·死胎分娩者
- 注意事项
  - 人工流产手术导致的流产不予支援
- 申请时间：全年
- 支援内容：生育(包括流产·死胎分娩)时，每胎支援1百万
- 申请方法：前往洞行政福利中心申请
- 提交材料：①身份证，②存折复印件，③出生证明，居民登记簿本，医疗机构诊断书中的一项

### □ 先天性失聪检查及助听器支援

保健政策科地区保健组 (031-310-5838)  
正往保健分所 (031-310-5941)

- 支援对象：辖区内的生育家庭
- 申请标准
  - 中等收入标准180%以下的家庭(2名以上的多子女家庭)时，收入水平不限
  - 第一胎是双胞胎的情况可视为多子女家庭
- 支援内容：针对新生儿听力筛查门诊检查时本人负担的部分提供支援(5,000元~25,000元)
  - \* 医疗保险仅适用于出生后28天以内的检查
- 申请方法：前往保健所申请

### □ 低收入群体纸尿裤·配方奶粉支援

保健政策科地区保健组 (031-310-5857)  
正往保健分所 (031-310-5941)

- 支援对象：育有未满2周岁幼儿的 家庭
- 筛选标准：国民基础生活保障家庭、潜在贫困家庭、单亲家庭、中等收入标准80%以下的残疾人或中等收入80%以下的多子女(2名以上子女)家庭
- 申请时间：自婴儿出生后到满两年的前一天为止可提交申请，按照申请日为准提供支援
- 支援内容：支付国民幸福卡代金券积分
- 申请方法：前往洞行政福利中心和保健所申请

### □ 难孕夫妇支援

保健政策科地区保健组 (031-310-5838)  
正往保健分所 (031-310-5938)

- 支援对象：难孕夫妇(中等收入标准180%以下)
- 支援内容：体外受精(新鲜7次，冷冻5次)人工受精最多支援5次，20~110万元
- 申请方法：前往保健所申请
- 提交材料：诊断书，医疗保险证复印件，医疗保险金缴纳收据，家庭关系证明等

### □ 营养PLUS支援

健康都市科健康促进组(031-310-5842)

- 支援对象：中等收入80%以下的家庭
  - 孕产妇，生育·哺乳期，婴幼儿(未满66个月)
  - 影响健康的危险因素(贫血，身材矮小，低体重，营养不良)中符合一项的
- 支援内容：按照支援对象情况提供6种食品套餐，教育及咨询，营养状况评价及管理
- 申请方法：前往保健所申请
- 提交材料：居民登记簿本，医疗保险金缴纳证明等

4

妊娠·生育 5

连接世代-  
提高人生周期共感

### □ 备孕阶段检查

保健政策科地区保健组(031-310-5837)  
正往保健分所(031-310-5941)

- 支援对象：辖区内预备新婚夫妇及新婚夫妇、备孕夫妇
- 支援内容：为健康备孕提供夫妻健康体检
  - 女性：风疹抗体，肝炎抗体，贫血，血型，肝功能，血糖，尿糖，尿蛋白，性病，结核(X-ray)
  - 男性：肝炎抗体，贫血，血型，肝功能，血糖，尿糖，尿蛋白，性病，结核(X-ray)
- 申请方法：前往保健所申请

### □ 孕妇基础检查

保健政策科地区保健组(031-310-5837)  
正往保健分所(031-310-5941)

- 支援对象：始兴市辖区孕妇
- 支援期限：备孕阶段 ~ 怀孕12周以内
- 支援内容：血液检查(B型肝炎抗体，贫血，血糖，梅毒，艾滋等)，尿检(尿糖，尿蛋白)
- 申请方法：前往保健所申请

### □ 孕产妇叶酸支援

保健政策科地区保健组(031-310-5837)  
正往保健分所(031-310-5941)

- 支援对象：始兴市辖区孕产妇
- 支援期限：怀孕16周起 ~ 产后3个月为止
- 支援内容：最多提供6个月的叶酸
- 申请方法：前往保健所申请



### □ 孕产妇健康项目支援

保健政策科地区保健组(031-310-5837)

项目名称	开课时间	定员	内容
预备妈妈 五感胎教	3,4,5,6,9,10,11月 每周(周四) 14:00~16:00	15	1周) 阅读·绘本胎教 2周) 美术创意 3周) 花艺/艺术字/DIY手工胎教中选1
开心妈妈 备产教室	3,6,9月 每周(周二) 14:00~16:00	15	1周) 英才胎教，妈妈的情绪 2周) 母乳喂养，新生儿看护 3周) 分娩法，产后恢复期
母乳喂养 门诊教室	3,4,5,6,9,10,11月 隔周(周四) 10:00~11:30	7	产前母乳喂养练习指导， 产后个人乳房按摩等
SAFE 顺产瑜伽	4,5,10月 每周(周四) 14:00~15:00	10	1周) 基础呼吸法，腰部骨盆运动 2周) 头部/肩部，髌关节平衡运动 3周) 缓解腰痛，腹肌强化运动

\* 课程费：免费/按申请顺序确定(15名)

### □ 始兴分娩育儿学校

正往保健分所(031-310-5916)

- 支援对象：孕期16周以上，未满36周的孕妇，夫妇，多文化孕妇，预备夫妇
- 支援内容
  - 时 间：3月 ~ 11月(孕妇-2期/每期4讲，祖父母-1期/3讲)
  - 地 点：正往保健分所保健教室(2楼)
  - 内 容：怀孕·分娩·育儿相关的孕产妇教育及祖父母教育
  - 参加方法：各期课程以预约制进行(孕产妇、祖父母30人以内)



### □ “我想成为妈妈”不孕不育预防教育

正往保健分所(031-310-5916)

- 支援对象：准爸爸准妈妈，新婚夫妇，育龄妇女，难孕夫妇
- 支援内容
  - 时 间：4月(2次)，10月(2次)
  - 地 点：正往保健分所保健教室(2楼)
  - 内 容：为了健康受孕而开展的孕前健康管理、试管婴儿等不孕不育手术前健康管理、不孕不育预防教育
  - 参加方法：事前预约制(30人以内)

### □ “母乳喂养门诊”始兴母乳喂养119

保健政策科地区保健组 (031-310-5857)  
正往保健分所 (031-310-5941)

- 支援对象：辖区内孕期在20周以上的孕妇及哺乳期产妇
- 运营内容：
 

孕 妇	孕期乳房管理方法指导，母乳喂养方法指导，个人乳房诊断及哺乳指导
哺乳产妇产	哺乳姿势矫正，母乳不足咨询，乳房及乳头问题管理等
- 运营时间：
 

始兴市保健所	2019年3月起第二、第四周周四 10:00 ~ 12:00
正往保健分所	2019年2月起第二、第四周周二 10:00 ~ 12:00

  - \* 须电话预约

### □ 母乳喂养吸奶器出借

保健政策科地区保健组(031-310-5837)  
正往保健分所(031-310-5941)

- 支援对象：辖区内生育的产妇(\*100%预约制)
- 使用期限：自申请日起可借用两周(需要延长时须重新申请，如吸奶器无后续借用预约，咨询确认后继续使用。)

### □ 生育工资

各洞行政福利中心定制福利组

- 支援对象：生活，医疗，住房补助领取者分娩时(含预产期)支援
- 支援内容：补助领取者分娩(含预产期)时每人支援70万元(双胞胎时支援140万元)
- 申请方法：前往管辖洞行政福祉中心申请

6

妊娠·生育 7



# "시흥 다문화가족, 취업 준비하고 목돈 마련 통장 가입하자"

## 시흥시, 여성인턴제 참가자 모집 및 목돈 마련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인 여성 및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도 시흥시의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해 탄탄한 미래를 준비해보자.

### #시흥여성새일본부, 여성인턴제 참가자 모집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일본부는 기업체와 인턴 참가 여성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

여성인턴제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과 결혼이민 여성들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여성인력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과 능력과 취업의지를 갖춘 취업희망여

성과의 연계를 통해, 3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81명을 모집한다.

기업에게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채용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원한다.

3개월 인턴기간동안 월 80만원의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며, 인턴 채용 후 9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턴연계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미만 기업체가 대상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1인 이상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자세한 조건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인턴 참여 여성에게도 9개월 이상 근무 시 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인턴제를 희망하는 여성은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시흥여성새일본부(031-310-6023~6037)에 신청방법을 문의하거나 시

흥시 홈페이지 일자리경제포털(<https://www.siheung.go.kr/economy/contents.do?mId=0109010600>)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 #저소득층 목돈 마련 통장 가입자 모집

시흥시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희망키움I, 희망키움II,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가입 참여자를 모집한다.

통장 가입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3년 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등이 더해져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I’은 일하는 생계 혹은 의료수급 가구, ‘희망키움통장II’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는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내일키움통장’의 가입 대상자는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에서 1개월 이상 참여한 근로자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는

각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39세)과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만15세~39세)이 대상이다.

두 통장 모두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10차에 걸쳐 연10회 가입자를 모집하며, ‘희망키움통장II’와 ‘청년저축계좌’는 1~4차에 걸쳐 연4회 모집 한다. 지원혜택과 요건은 통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2,757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가입기간 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접수)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저축액이 쌓이는 만큼 미래에 대한 꿈도 커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인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입자 모집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262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시흥 거주 외국인주민 압잘 씨, 어려운 이웃 위해 사랑의 후원금 기탁

### 정왕본동에 200만원 기탁, 해마다 기부 ...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도 활발하게 참여



다문화 사회가 성숙해 감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생활하는 외국인주민도 늘고 있다. 그 중에는 지역 사회 외국인주민을 위해 기부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

범적인 이들이 적지 않다. 정왕본동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 압잘씨(AFZAL MUHAMMAD, 정왕본동 외국인 자율방범대 소속)는 지난 1월 27일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코로나19등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써 달라며 200만원을 기탁했다.

한국에 온 지 16년이 된 압잘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껴서 모은 돈으로 해마다 잊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압잘씨는 또한 외국인 거주가 많은

정왕본동의 특성에 맞게 외국인자율방범대를 통해 방범활동, 김장담그기, 미용실자원봉사 등 꾸준히 자원봉사활동 실시했고, 타국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병원에 동행하며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관내 저소득가구를 위해 140만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시를 위해 마스크 100장을 후원하는 등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늘근 정왕본동장을 비롯한 맞춤형복지팀 직원들과 압잘씨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탁받은 사랑의 후원금은 정왕본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기금으로 지정기탁 후 정왕본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오늘근 정왕본동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이렇게 해마다 잊지 않고 후원해 주신 압잘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로 서로 돕는 정왕본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 코로나야, 물러가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다짐하고 다문화가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세계 여러나라 국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센터직원들의 활기찬 표정이 인상적이다. 올해는 정말로 코로나19가 물러가길 바란다. <사진=부천다가> 김영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그리고 회복의 힘 키운 일 년"

〈기고〉 최지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도사

작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번 확진자가 나왔다.

별일 아닐 줄 알았다.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전염병들처럼 그저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다. 아니었다. 1번 확진자 발생 이후 일 년의 흘렀고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소용돌이 안에서 헤매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나 흔하게 겪는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 어느 곳에 가던 체온을 측정하고 방문기록을 남기는 게 불편하지 않게 되었다. 입학은 미뤄졌고 교육과 회의는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비대면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당연해졌고 대면이라고 하면 조금 두렵게 되었다. 그리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휴관

을 하였다.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익숙함은 곧 그리움이 되었다.

당연하게 들렸던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 그리고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와 쾌활한 웃음소리, 예쁘게 선생님을 부르는 목소리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센터 앞에는 커다란 벚꽃 나무가 여러 그루 있다. 봄이 오를 제일 먼저 알리는 그 벚꽃나무는

매년 어찌나 예쁘게 꽃을 피우는지 벚꽃이 만개할 때면 포토 존으로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작년 벚꽃나무는 외롭게 봄을 시작하고 끝을 내었다. 우리는 모두 공허하게 바꿨지만 센터는 생기를 잃었다.

조금씩 생기를 회복하려던 우리 모두에게 우려하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현실이 되었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는 코로나19에서

티끌만큼 멀어졌지만 마음은 조금 더 허전해졌다.

뉴스에선 백신 구입과 접종시기에 대한 희망적인 뉴스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지만 실제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작년 이맘때 보다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잃었고 잃은 만큼 경험치를 쌓았다. 우리에게 회복의 힘이 있다고 믿는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려 노력 중이다. 일상에서의 방역 수칙 매뉴얼을 지키고 개인의 위생을 보다 신경 쓰고 '나 하나쯤은...'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한국어 대면 교육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곧 방문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간 하지 못했던 센터를

새단장하고 있다.

너무 당연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울림이 중단되었다. 공허하고 우울한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의 곁에는 늘 행복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하루하루 희망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 작고 소중한 희망에 행복하려 한다. 시간은 빠르다. 이 추위가 지나면 곧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앞 벚꽃나무에 봄우리를 볼 수 있을 것만 같다. 올 봄에는 센터가 그 어느 때보다 활짝 피어날 수 있길, 작년에 힘들고 우울했던 나날들을 다문화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쁜 목소리들이 센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부천시청 032-320-3000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7-1370 부천교육지원청 032-326-2108 부천여성의전화 070-7733-4995 행복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부천고용지원센터 032-320-8900 범죄신고 112 부천원미경찰서 1566-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에보안내 131



# язательно оформл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действует теперь и на студентов! 국민건강보험. 장기 유학생 즉시 가입 ... 단기 유학생은 6개월 이상 체류시 가입



Еще в июле 2019 года была произведена реорганизация системы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Согласно новым изменениям, все иностранцы, находящие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более 6 месяцев должны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оформи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страховку. При этом и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прибывшие в страну по студенческой или брачной визе, обязаны оформить страхование сразу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Однако в случае с иностранными студентами обязательная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об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страховании была отложена до 28 февраля 2021 года по запросу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траны.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ачиная с 1 марта 2021 года все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въезжающие в стран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а срок более 6 месяцев по визе с квалификацией “обучение за гра-

ницей” (D-2) или “общее образование” (D-4), должны оформи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страховку и платить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Учитывая особенности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остаются в Корею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целях и не ведут никакой доход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становило льготу в размере 50% на страховую взнос для виз D-2 и D-4. Однако в этом году, чтобы отразить трудности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из-за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Ковид 19) и помочь урегулировать систему, было решено применить 30% льготу.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вать льготу с каждым годом. Так с марта 2022 по февраль 2023 - льгота составит 40%, и 50% после марта 2023 года.

Сроки подачи заявки на оформл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могут отличаться в каждом отдельном случае.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бывшие по визе D-2 и D-4 для получения необходим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ли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будет составлять как минимум 2 года. Поэтому сразу после въезда в страну необходимо оформить государ-

стве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страховку. То же самое касается 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бывших по визе F-4. Если цель вашего обучения это курсы, включая языковую подготовку, оформл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й страховки необходимо если срок вашего п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6 месяцев.

Такие изменения позволяют сократить расход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та на 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 уменьшить количество случаев, когда оформляли страховку в случа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орогостоящего лечения.

2019년 7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외국인 위주로 개편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유학생 및 결혼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도 입국 후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유학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교육부의 요청으로 2021년 2월 28일까지 유예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유학(D-2)’ 또는 ‘일반 교육(D-4)’ 비자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교육 또는 학위를 받기 위해 D-2 및 D-4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은 최소 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 후 즉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F-4 비자로 입국하는 조선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학업 목적이 어학 연수를 포함한 교육 목적인 경우,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6개월 이내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정부는 교육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유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D-2, D-4 비자에 대한 보험료를 인하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으로 인한 교육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30%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매년 부담을 늘려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0%, 2023년 3월 이후에는 보험료의 50%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치료를 위한 정부예산 지출을 줄이고 비싼 치료비가 발생할 때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례 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울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京畿道女性家庭財團稱:“在新冠病毒的形势下需要广泛联合,任何人都不能被排除在外。”

京畿道女性家庭財團最近發行了《全球災難,新冠病毒和移住民》焦點分析報告書。

據該報告顯示,新冠病毒會對脆弱、處於被疏遠狀態的人群產生影響,特別是对移住民產生更大影響具有非常大的可能性。因此,在應對新冠病毒帶來的危機時,包括移住民在內保護他們的權利,並與社會團結及溝通密切相關。

在此次焦點分析中,活用國家人權委員會去年11月公布的《新冠病毒和移住民人權監測結果》,針對移住民篩選出的新冠病毒形勢下感到最困難的方面,以及制度和政策等進行了提醒。

調查結果顯示,移住民選擇的新冠病毒所帶來的最大困難是收入減少帶

來的經濟損失”(第一次66.6%,第二次65.7%),其後依次為,利用大眾交通工具等日常生活不便、利用醫療機構帶來的困難和恐懼、歧視制度和政策等。另外,據調查,他們曾因新冠病毒在工作崗位上遭受過損失(90.9%),還曾經歷過減薪、無薪休假、解僱及勸告辭職等損失。

作為強力的單一語言使用國,韓國政府的官方公布也是只使用韓國語,因此,居住在韓國的移住民由於語言及社會文化上的阻礙,在獲取預防新冠病毒信息方面必然會遇到困難。

特別是,根據新冠現況,對移民產生直接影響的簽證、滯留、出入境相關信息、外國感染者的治療費等針對外國人的各種政策的詳細內容正在發生變化,

但相關信息尚未充分提供給移住民。

因此,去年京畿道運營的“京畿外國人SNS記者團”事業,用移住民的母語提供相關報道,在新冠病毒抗體中起到了很大的作用。

另外,2020年3月因新冠病毒引起的,經濟上受到打擊後,以首爾市、京畿道等部分地方自治團體為中心,正式展開了關於災難基本所得支付的討論,從4月開始,也從中央政府層面上支付了災難支援金。當時,還發生了在中央政府及地方自治團體的災難支援金對象中,外國人被排除在外的情況。

對此,京畿道最近根據國家人權委員會發出“在新冠病毒支援時區別對待外國人是歧視”的勸告,決定在第二次

災難基本所得支付對象中,將所有在道內登記的外國人和在國內申報居所的外籍同胞也包括在內。

研究負責人崔英美研究委員指出:“就像戰勝病毒的身體具有免疫力一樣,災難會破壞共同體,但災難得到妥善克服的共同體比之前更加牢固和安。病毒不分國界和種族,因此和病毒對抗的我們也應該超越憎惡和歧視,需要不排除任何人的廣泛的聯合。”

崔研究委員還強調指出:“需要包括在同一領土因同樣的災難而受到更大影響的移住民在內的災難對應政策”,“國家要特別注意,要讓移住民包含在積極地溝通渠道中,絕對不能被排除在外”。

<한글 기사 41면> 왕그나 기자



## 전국 17번째 해바라기센터 부천시 개소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부천시 권역 피해자 지원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센터장 신응진)가 1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위치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항설관 지하 2층이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시·도·지자체, 지방경찰청, 병원의 협약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가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의 공동 예산으로 설치된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는 응급지원과 지속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형’ 센터다. 전국에는 총 17개, 경기도에는 총 3개의 통합형 센터가 있다.

병원 내 응급지원센터는 피해자 치료와 안정을 위해 산부인과 진료실, 상담실, 진술 녹화실, 안정실 등을 별도로 갖췄다. 병원 인근에는 지속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피해자

의 심리를 지원하는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를 마련했다.

센터 소장을 맡은 이소영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 5명과 상담원, 간호사, 임상심리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인력 15명이 협력하여 해바라기센터를 찾는 피해자를 지원하게 된다.

신응진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장은 “안산이나 고양시로 이동해야 했던 부천시 권역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개소로 피해자 지원 분야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지역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032-651-1375)로 상담하면 신속하고 안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도 물론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 다문화가족 “우울 OFF, 즐거움 ON”

부천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0만원 확대해



이다. 올해는 2월 1일부터 발급을 시작해 2만3천명의 부천시민에게 20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6세 이상(2015.12.31. 이전 출생)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이며, 1인당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10만원을 지원한다. 사용처는 도서, 공연, 문화체험, 놀이공원,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문화예술·여행·체육분야 온·오프라인 가맹점이다.

올해부터는 2020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한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자동재충전’을 시작한다.

부천시는 올해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10만원으로 확대하고,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원금을 자동으로 충전하는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자동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발급자인 경우 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이용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전화(ARS) 연결을 통해서도 재충전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김영의 기자

## 다문화가족,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부천시, 청년구직자의 경제적 부담 덜기

부천시가 ‘벼락 맞은 정장’ 사업을 통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며 청년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2019년부터 운영한 ‘벼락 맞은 정장’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새기듯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응원하며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대여 품목은 재킷, 바지, 셔츠, 블라우스, 치마와 넥타이, 벨트, 구두까지 정장 세트 일체다. 대여 기간은 3박 4일로, 최초 이용 시 전문가의 코디 조언과 함께 간단한 수선도 받을

수 있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올해 대여매장은 서울에 소재한 뉴피닉스(방배동 422-6, 3층)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취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부천일자리센터로 문의(032-625-8431~9)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벼락 맞은 정장

면접 준비 걱정50%  
일차마자 완벽취업!  
과 함께라면

문의: 부천시  
032)625-2715  
032)625-8431~8439

지원대상	준비물	대여장소	대여시간
부천시 주민등록 만18세~만39세 구직청년 (고교졸업예정자 포함)	구직등록 (부천시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일자리센터 방문 워크넷 구직신청) 신분증 면접준비용	뉴피닉스 02)1833-5389	평일 10:00~20:00 주말(토,일) 10:00~17:00 공휴일 휴무



## 코로나検査を受けた外国人住民‘病暇所得損失補償金’支給

労働者たちも意図せずともコロナ19感染にさらされることがある。しかし特に日雇い労働者など脆弱労働者は、コロナ19が疑われる症状があれば検査に先立ち、まず生計の心配をす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富川クーポン物類センターの例でみられたように、日雇い労働者の場合一日の稼ぎがそのまま生計手段となるため、コロナ19が疑われる症状があってもすぐに検査を受けたり休まずに仕事に出かけるだろう。問題は感染症の人が検査を受けずに仕事を続けると、それが地域社会感染拡散につながってしまう。そのため京畿道は昨年より脆弱労働者が生計の心配をせずにコロナ19検査を受けられるよう、‘病暇所得損失補償金’を一人当たり23万ウォン支給している。

■ 病暇所得損失補償金、日雇い労働者たちに効を奏する…今年2月に受付け

今年‘コロナ19先制検査拡大施行’という政府方針に合わせ、症状のあるなしに関わらず診断検査を受けた脆弱労働者すべてが支援対象となるよう、

支給要件を緩和して事業を施行する。脆弱労働者の生計対策とコロナ19拡散防止防疫網をより強化するためだ。あわせて外国人に対する支援範囲も広がった。昨年は永住権者と結婚移民者に限り支援したが、今年は道内に居住する登録外国人すべてが対象となり、居住地が京畿道の外国国籍同胞も含まれる。

申し込み期間は2月1日から12月10日まで。申込書、身分証のコピー、自家隔離履行および補償金不正受給関連確約書、資格確認立証書類などの必須書類をメール、郵便または訪問し申し込むこと。ただし保健所・選別診療所を通じて診断検査を受け、結果(陰性)が出てから申し込むこと。

コロナ19拡散を少しでも防止するために訪問受付よりオンライン受付をお薦めする。書類審査を経て地域貨幣やプリペイドカードで補償金を支給。

詳しいことは京畿道コールセンター(031-120)、または市・郡に問い合わせること。

昨年の京畿道病暇所得損失補償金支援は、スタートから5ヶ月で1,011人に2億3,253万ウォン(2020年11

月16日基準)を支給した。短時間労働者235人、日雇い労働者429人、特殊形態労働従事者264人、療養保護士83人などだ。

特に一日の稼ぎが生計と直結していて、疑わしい症状があっても検診を受けたり休めず働かなくてはならない工事現場などの日雇い労働者が支援者全体の43%に達し、京畿道の迅速な政策推進が効を奏したようだ。

当初コロナ19の疑わしい症状で検査を受け、検査結果通報までの間に自家隔離した労働者のみが対象であったが、7月からは中央防疫対策本部に通報があった感染者訪問多重利用施設を訪問・利用した無症状労働者も含まれることになった。

また昨年の病暇所得損失補償金の申し込み期間も12月11日から24日までと緊急延長した。コロナ19感染者が急増する状況に合わせ、経済的理由などにより死角地帯に置かれた労働者が迅速に検査を受けられるようにし、集団拡散を遮断するための措置だ。

<한글 기사 47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 “Cần có sự liên kết một cách rộng rãi để không ai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do Covid-19”

Hội phụ nữ & Gia đình tỉnh Gyeonggi đã có báo cáo mới nhất mang tên 「Những tai ương mang tính toàn cầu hóa, những người dân di cư và Covid-19」, phân tích những điểm nổi bật đang diễn ra trong hiện tại. Theo nội dung của báo cáo, Covid đã khiến một bộ phận người dân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đặc biệt là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ể đối phó những nguy hại của Covid-19, không chỉ những công dân Hàn quốc mà ngay cả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ũng cần được bảo hộ những quyền lợi của họ, đặc biệt phải có sự liên kết giữa giao lưu và hội nhập xã hội.

Trong phân tích những điểm nổi bật lần này, bản báo cáo đã vận dụng “Kết quả tiến hành theo dõi nhân quyền của người dân di cư và Covid-19” được công bố vào tháng 11 vừa qua của Hiệp hội nhân quyền Quốc gia. Trong báo cáo đưa rõ những điểm khó khăn nhất của người dân di cư do dịch Covid-19 gây ra, những chế độ cũng như những chính sách, vv Theo kết quả điều tra, người dân di cư cho biết điều họ cảm thấy khó khăn nhất khi dịch Covid-19 xảy ra đó chính là “những thiệt hại về kinh tế do giảm thu nhập(chiếm 66,6% trong đợt điều tra lần 1 và 65,7% trong đợt điều tra lần 2)”, những bất tiện trong sinh hoạt hàng ngày như sử dụng những phương tiện công cộng hay mua bán đồ dùng sinh hoạt, những khó khăn và sợ hãi trong việc sử dụng những dịch vụ y tế tại cơ quan y tế, những phân biệt đối xử trong chế độ và chính sách hỗ trợ, vv Ngoài ra, dịch Covid-19 còn gây ra những ảnh hưởng nhất định mà người lao động trực tiếp hứng chịu là những thiệt hại trong công việc(chiếm đến 90,0%),

giảm lương, nghỉ không lương, sa thải hay khuyến cáo nghỉ việc, vv là những nội dung mà báo cáo thu được sau điều tra cụ thể.

Trong tất cả các bài phát biểu của Chính phủ liên quan đến dịch Covid đều chỉ được viết bằng một ngôn ngữ duy nhất là tiếng Hàn Quốc do đó việc tiếp thu hay hiểu được những nội dung mà Chính phủ phát biểu cũng là một điều rất khó khăn đối với bộ phận người dân di cư.

Đặc biệt những bộ luật hay những quy định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người dân di cư đó chính là vấn đề về visa, lưu trú, những thông tin liên quan đến xuất nhập cảnh, những hỗ trợ về chi phí điều trị dành cho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bị nhiễm Covid, hay những thông tin có liên quan, người di dân cũng không được thông báo một cách cụ thể.

Do đó, tỉnh Gyeonggi đã triển khai dự án “Đoàn nhà báo SNS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tỉnh Gyeonggi” trong năm trước được viết hoàn toàn bằng ngôn ngữ mẹ đẻ đã đưa những thông tin cụ thể nhất liên quan đến tình hình Covid cho bộ phận người nước ngoài một cách triệt để nhất.

Mặt khác, kể từ tháng 3 năm 2020 một số khu vực chịu ảnh hưởng chính của dịch Covid-19 như thành phố Seoul, tỉnh Gyeonggi hay một số những tỉnh thành lân cận đã có những hỗ trợ về tiền thu nhập cơ bản dành cho người dân do thiệt hại trong nền kinh tế, tháng 4 cùng năm đó Chính phủ cũng đã hỗ trợ trong phạm vi toàn quốc. Trong cả hai lần hỗ trợ nói trên của Chính phủ cũng như của cơ quan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là người

không nhận được bất kì sự hỗ trợ nào từ hai tổ chức nói trên.

Mới đây tỉnh Gyeonggi nhận được sự khuyến cáo của Hiệp hội nhân quyền quốc gia trong báo cáo “Trong hỗ trợ dịch Covid-19, cách đối xử khác người trong nước và người nước ngoài là một sự phân biệt”, tỉnh Gyeonggi đã quyết định hỗ trợ số tiền thu nhập cơ bản cho cả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trong đó bao gồm cả những kiều bào.

Bà Choi Yeong Mi-Hội viên nghiên cứu cho biết rằng “Cũng giống như việc cơ thể phải có hệ miễn dịch thì mới có thể đẩy lùi được những virus, mặc dù những thiên tai có thể phá hủy được cả một cộng đồng những nếu cộng đồng cùng nhau chung tay đẩy lùi những thiên tai đó thì chắc chắn cộng đồng sẽ trở nên an toàn hơn bao giờ hết” và “Giống như việc virus không phân biệt ranh giới quốc gia cũng như chủng tộc, điều mà chúng ta hiện nay cần phải có đó chính là sự liên kết giữa những thành viên trong xã hội, không nên loại trừ hay phân biệt bất cứ một thành viên nào”.

Bà Choi nhấn mạnh rằng “cần có một chính sách ứng phó với những thiên tai không chỉ dành riêng cho công dân Hàn quốc mà cần phải chú ý đến cả những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ang cùng gánh chịu hậu quả của thiên tai cùng với công dân trên cùng một lãnh thổ, một quốc gia” và “Quốc gia cần chú ý đến việc giao tiếp một cách tích cực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giúp họ không cảm thấy mình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tại Hàn quốc”.

<한글 기사 41면>

강혜나 기자



# Фонд женщин и семьи Кёнгидо: «Необходима широкая солидарность, чтобы никто не остался в стороне из-за пандемии»

Фонд женщин и семьи Кёнгидо недавно опубликовал отчёт, посвящённый анализу проблемы «глобальная катастрофа, Корона19 и мигранты».

Согласно данному отчёту, Корона 19 влияет на люд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уязвимом и разрозненном положении, и, вероятно, окажет большее влияние, особенно на мигранто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ключение мигрантов в список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кризис, вызванный Корона 19, защищает их права, а также связывает с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ей и обществом.

В данном анализе проблемы, объявленн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миссией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были использованы «результаты мониторинга Corona 19 и прав мигрантов». Помимо самых сложных момен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пандемией, выбранных мигрантами, так же была затронута система политики и др.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наиболее сложным аспектом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выбранным мигрантами, был «Экономический ущерб из-за снижения доходов (1-й этап - 66,6%, 2-й этап - 65,7%), давшие неудобства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такие как покупк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б-

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ложность и страх обращения в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и в завершении дискриминация в системе и политике. Кроме того из-за Corona 19 было сокращено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чих мест- (90,9%), а также были понесены убытки из-за сокращения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неоплачиваемого отпуска, увольнения и рекомендации к увольнению.

Корея страна, говоряща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на одном языке, и официальн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сообщения были объявлены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иммигранты, проживающие в Корею, столкнулись с неизбежн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при получении информации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COVID-19 из-за языковых и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барьеров.

В частности, моменты политики, касающие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иностранцев, такие как изменения 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и условий пребывания, информация о въезде и выезде, а также медицинские расходы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которые изменяю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екущей ситуацией, связанной с пандемией и т.д,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недостаточно доступна

для мигрантов.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роект Кёнгидо «Иностранцы репортёры соцсетей Кёнг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ыграл большую роль в освещении ситуации, связанной с пандемией, предостави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статьи на родных языках мигрантов.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когда в марте 2020 года стал очевиден экономический ущерб из-за Corona 19, некоторые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такие как Сеул и Кёнгидо, начали всерьёз обсуждать выплаты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а с апреля пособия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также выплачивались на уровне центр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то время иностранцы были исключены из списков получающих пособия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и как центр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так и ме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В следствии от управления Кёнгидо недавно последовали рекомендации в Национальный парламент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Кореи: «Другое отношение к иностранцам пр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омощи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 это дискриминаци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было решено включить все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в Кёнгидо и зарубежных со-

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заявили о своём проживании в Корею во врем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по исследованиям,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Цой Ён Ми отметила: «Бедствие разрушает сообщество, однако сообщество, успешно преодолевшее бедствие, подобно организму, обладающему иммунитетом, который побеждает вирус, становится более сильной и безопаснее, чем раньше». «Поскольку вирусы не выбирают ни границы, ни расы, для борьбы с ними и нам, переживавшим через неприязнь и дискриминацию, чтобы никто не остался в стороне, необходимо прийти к широкой солидарности».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Цой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а: «Необходима политика реагирования, включающая мигрантов, которые находясь на той же территории также подверглись бедствиям и пострадали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Стране, обращающей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еобходимо активно привлекать мигрантов к каналам общения, стараясь избегать отчуждения».

〈한글 기사 41면〉

장올가 기자

**Elementary School**

**드림 레터** Career Newsletter for Parents Supporting Children's Dreams

Multilingual No. 3

## Follow the Role Model to Help Nurture the Dreams of Your Children

National Center for Parents Education www.parents.go.kr

A role model acts as a guide that can help children reach their dreams. When a child discovers a role model, he/she is more likely to strive to become that person. Help your children find a role model that best fits their interests and values in order to pursue their dreams.

**Q. Why do children need a role model?**

A role model refers to an exemplary figure in life. Finding a role model and understanding how he/she accomplished his/her dreams is an essential process for children. How the role model overcame challenges and the amount of effort put into an accomplishment can provide useful guidelines for the child's life. More specifically, role models provide strong motivation for children to realize their potential and dreams. Children are more likely to accomplish career goals by having role models since they can influence the children's interests, career paths, and life values.

**Q. How can I help my child find his/her role model?**

Parents play an important role for younger children who are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media. Discourage them from choosing a "cool" role model without considering their own interests or talents. Instead of directly rejecting their choice for a role model, ask your children to specifically identify and decide which aspects of their role model that they find appealing. It is advised that you understand your children's interests and talents and, at the same time, search for a notable figure who made an accomplishment in a related field.

**Q. How should my child choose a role model?**


To choose a role model, you need to identify your child's interests. Find out what exactly your child likes or is interested in. Then search for a role model among people who made a distinct achievement in the child's field of interest. Note that the decision should not be based on simply liking or disliking someone. Also consider how certain talents or achievements of the role model resemble your child's future. A role model discovered through active exploration will become a strong motivation for your child's career.

**Q. How can I help my child find his/her role model?**

Parents play an important role for younger children who are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media. Discourage them from choosing a "cool" role model without considering their own interests or talents. Instead of directly rejecting their choice for a role model, ask your children to specifically identify and decide which aspects of their role model that they find appealing. It is advised that you understand your children's interests and talents and, at the same time, search for a notable figure who made an accomplishment in a related field.

**Knock Knock TIP.**  
People whose dream came true by following a role model

Vincent van Gogh, who admired Jean-Francois Millet's work, practiced painting using Millet's style and even tried to follow his lifestyle. Former U.S. President Barack Obama placed a bust of Lincoln in his office and dealt with problems by having an imaginary conversation with Lincoln about what he would have done. Olympic skating champion Yuna Kim practiced by watching Michelle Kwan's performances since she was young to reach the top. With your children, find stories about people who made their dream come true with the influence of role models.



**드림 레터**

## Role Model Search For Career Road Map

A role model does not have to be a famous person. Anyone you respect and want to be like, or a person who can set an example in your life, can be a role model. Find a suitable role model for your child's values and explore how they made accomplishments to help your child design his/her career path.

**STEP 1. Finding a role model that matches your child's values**


<b>Personalities with passion and leadership</b>	e.g.) Barack Obama, (            ), (            )
<b>Personalities with service and devotion</b>	e.g.) Audrey Hepburn, (            ), (            )
<b>Personalities with talents and gifts</b>	e.g.) Yuna Kim, (            ), (            )
<b>Innovative and pioneering personalities</b>	e.g.) Wright Brothers, (            ), (            )
<b>Personalities who made breakthroughs and discoveries</b>	e.g.) Alexander Fleming, (            ), (            )
<b>Child's role model</b>	

**STEP 2. Searching for a role model**

<b>Child's role model</b>	e.g.) Alexander Fleming	
<b>Major achievement of the role model</b>	e.g.) Development of first antibiotic	
<b>Reason for selecting as the role model</b>	e.g.) Saved the lives of many people	
<b>Lessons learnt from role model</b>	e.g.) Commitment and dedication to research results	
<b>Available resources for child</b>	e.g.) Visiting science museums	

Find career counseling cases related to role models.

Let's look at what other children have in mind about their career? Find a role model for your child from career counseling cases.  
Junior Career Net (www.career.go.kr/jr) > I have worries about my career > Career counseling > search 'role model'





#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460명 선발

## 2월 8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민회장학회 통해 신청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도내 대학생 및 전문대생, 예체능 특기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을 위해 2월 8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민회는 1986년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 경기도 애향심 고취와 인재 발굴 양성으로 향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중 (재)경기도민회장학회는 연마다 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인재 양성 및 발굴에 힘쓰고 있다.

올해 선발인원은 총 460명으로 장학생(대학생, 전문대생) 410명과 특기생(체육, 예능) 50명에게 100만~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시 자격조건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로서,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이다.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학점(4.5만점 기준 3.0) 이상, 신입생인 경우 수능성적

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점 이상이거나, 고교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으로, 2020년도 부모의 연간 건강보험료 고지 합산금액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장학생(성적, 소득) 선발 평가기준은 성적 20%, 부모소득 70%, 자원봉사활동 실적 5%, 다자녀 5%를 합산해 총 100% 반영되며, 장애인 가정은 장애정도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된다.

예·체능특기생은 2020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학생(고교생, 대학생, 전문대생)으로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대회규모, 시상내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류접수는 사·군을 통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로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기타 장학생 선발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전화(02-2055-2320, 02-2055-2322)와 홈페이지(www.ggdm.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 코로나 시대 더욱 암울한 이주민의 현실

## 송인선 (사)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이민자 200만명 시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민자를 구제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이민자 고충 상담 지원 현장 사례를 공유합니다.

이민자들은 국경을 넘어 언어가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왔을 뿐인데 체류자격에 따라 마음대로 취업도 할 수 없고 원하는 도시에서 마음대로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부의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늘 아래 다 같은 인간이고 사람인데 최소한의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아도 체류자격에 따라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례1)** K국에서 온 M씨(남)는 한국에서 유학생 자격으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땀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류자격변경이 안되어 3살 난 어린 딸과 함께 1년 4개월째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자리 찾기를 희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M씨는 하루 속히 취업을 해야만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구직활동(D-10) 기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아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사례2)** N국에서 온 F씨(여)는 중학생 아들 둘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남편의 비즈니스 사업가 체류자격으로 입국을 하여 한때는 사업이 잘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어려운 고향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관할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연장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온 가족이 미등록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년간 미등록자로 살면서 사업의 재기를 노렸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F씨의 남편은 어느 날 출입국사무소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F씨와 그의 아들 둘은 끝내 출국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등록자로 살고 있습니다. F씨 혼자서 언어도 서툴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일 자리를 찾기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제활동으로 그야말로 하루 한두끼 먹기도 바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사례3)** J국에서 온 P 씨(여)는 결혼이주여성입니다. 어린 딸을 동반하고 재혼으로 한국에 온 P 씨는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는 1년 전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면서 동반한 딸과 함께 독립하여 늦게나마 사람다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P씨는 얼마 전에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동반한 딸은 금년에 대학을 가야 하는데 현재의 가정경제 사정으로는 대학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딸이 대학을 포기한다고 가정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P씨의 백혈병 항암 치료비에 기초생계비까지 사회초년생 딸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P씨는 법적으로는 현재 남편과 혼인관계에 있기에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밖에도 P국에서 온 결혼이민자는 자녀 없이 결혼 6년 만에 이혼을 하고 이혼 후 2년 만에 신장투석을 주 3회 받느라 제대로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국적까지 취득하지 못하여 그야말로 나 홀로 신장병과 투병 중에 있습니다.

P씨는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어도 고향에는 신장투석을 받을 만한 의료기관이 없어 고향 방문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이러한 이민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1412.co.kr

##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번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



## 아픈 아이 돌봄이 고민이라면 '오산시 아픈 아이 119 지원사업'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 60시간 한도 무료 사용 가능



어린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전염성, 유행성 질병 등으로 등원·등교가 어렵게 되면 당장 돌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산시에서는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걱정을 덜 수 있다.

오산시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오산시 아픈 아이 119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오산시 아픈 아이 119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사업 내에 있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오산시 시책사업이다.

이용요금은 국가지원 50%, 본인부담금 50%이며, 오산시 아픈아이119지원사업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아동별 연 60시간 한도 내에서 오산시가 지원하여 이용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오산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재원. 재학 중이며, 수족구 등 법적 전염성 질병 및 감기, 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등원, 등교가 어려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녀 별 연 60시간이 지원된다. 연 60시간 초과 시에는 이용요금의 50%만 지원된다. 이용료는 평일 기준 이용요금 시간당 1만2,050원을 지원하며, 정부 지원 50%, 오산시 50% 지원된다. 야간(22:00~06:00) 및 일·공휴일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Tip. '오산시 아픈아이 119지원사업'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https://new.idolbom.go.kr>)

2. 국민행복카드 발급(회원가입 명의자와 같아야 함)

3.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378-9769, 9765)로 연락하여 서비스 신청 후 돌봄비 과전

4. 국민행복카드 선결제

5. 서비스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7가지 서류를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

(이용신청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시설미등원확인서 또는 결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만족도조사, 청구서)

6. 서비스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서류 제출 시 다음 달 10일에 오산시 지원금 지급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오! 해피스쿨'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오! 해피스쿨'을 운영한다.

'오! 해피스쿨'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되며 학기제(한 학기 4개월)로, 수업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수·금 이뤄진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며 신청은 2월 8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받는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해 가족 간 유대관계 향상을 위해 무료(교재비 자부담)로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기초 1~3단계,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모국어로 배우는 한국어 등이다. 다.

오산시 관내 결혼이민자 대상이며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복습반 ▲기초 1단계-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기초 2단계-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기초 3단계-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한국어 ▲TOPIK 고급 자격증 대비반- 취업을 위한 한국어 ▲체험 프로그램(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등이 진행된다.

김영의 기자

### 2021년 '오! 해피스쿨' 온라인교육 수강생 모집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수강할 결혼이민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운영일정**  
- 3월 3일(수) ~ 6월 30일(수) / 매주 월,수,금 10:00~12:00(주 3회)

정규 한국어 (월요일, 수요일)	특수목적 한국어 (금요일)	체험 프로그램 (매월 마지막 주 금)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한국어	한국생활적응 복습반	다문화 동아리
기초 1단계(훈민, 정음)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슬기로운 한국생활
기초 2단계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슬기로운 한국생활
기초 3단계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	미래설계 프로그램
TOPIK 고급 자격증 대비반	취업을 위한 한국어	미래설계 프로그램

**2. 수강신청 및 배치평가**

기간	- 02/08(월) ~ 02/24(수) *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시 대기접수 * 방문제한 시간: 11:30~13:00 에는 접수 불가
방법	- 센터 방문 접수(주소: 오산시 성호대로 83, 1층) - 정규단계 수강 희망자는 배치평가 실시 후 점수에 따라 수강 가능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WASH YOUR HANDS

with running water and soap for at least 30 seconds

Proper hand washing can reduce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by half.

- PALMS**  
Rub hands palm to palm
- BACKS OF THE HANDS**  
Right palm over left dorsum with interlaced fingers and vice versa
- BETWEEN THE FINGERS**  
Palm to palm with fingers interlaced
- FINGERS INTERLOCKED**  
Backs of fingers to opposing palms with fingers interlocked
- THUMBS**  
Rotational rubbing of left thumb clasped in right palm and vice versa
- UNDER THE NAILS**  
Rotational rubbing backwards and forwards with clasped fingers of right hand in left palm and vice versa

Publication Date : 2017.12



## 코로나 슬기로운 집콕생활 '여기!'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 및 운동 등을 통해 지혜롭게 이 시기를 보내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오산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기초지식 개선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수강료를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신청은 2월부터 12월까지며 자격증 취득일 기준 오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주민등록 기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납부한 수강료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 이내(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다. 지원은 신청증빙서류 확인 후 1개월 이내 지원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 #집콕 운동 '오산건강홈트' 인증이벤트

오산시는 코로나19로 신체 활동량이 저하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산건강홈트' 영상 인증이벤트를 진행한다.

'오산건강홈트' 영상 이벤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 능력이 저하된 시민들을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영상을 따라 운동하는 인증이벤트이다.

참여 첫 번째 방법은 '오산건강'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오산시'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는 오산건강홈트 영상을 시청하고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 운동하는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인스타그램에서 운동하는 사진을 올린 후 #오홈운 #오산건강홈트 #집콕운동이벤트 3가지 해시태그를 달면 된다.

두 가지 방법 중 1개를 선택해 등록하고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 후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참여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오산시 지역주민 또는 오산시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오산건강'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2월 9일 오후 6시까지 참여자들이 제출한 설문지를 통해 개별 연락할 예정이며 홈트레이닝에 도움이 되는 폼롤러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계획했다. 집에서 운동을 통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오산시 중앙동-사회복지시설 지역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보호 체계 핫라인 구축협약 체결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신선교)는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아동 및 다문화·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19개소와 복지안전망 핫라인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4일에 걸쳐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협약식에는 사

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하여 그 뜻을 함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위기대응 비상연락체계 복지안전망 핫라인 구축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공동 사례관리 및 지역보호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복지시설과 중앙동은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민(사회복지시설)은화재, 재난 등 위기 발생 및 위기 이웃 발견 시 핫라인으로 제보 및 정보를 공유하고, 관(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은 공공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례관리 추진, 이웃돕기, 유관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김영의 기자



## Самгетан (Самгетхан) 삼계탕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아가자란 아이다라고 합니다. 한국생활 3년

차로 한국요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음식과 관련된 개인 유튜브 채널 'Вкусно по корейски' (맛있는 한국)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매주 여러분을 만나 요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Сегодня я хочу поделиться с Вами рецептом потрясающего, корейского супа самгетан(Самгетан). Название буквально означает, что суп состоит из трёх главных ингредиентов, а именно из женьшеня (삼), курицы (계) и бульона(탕). Самым главным ингредиентом в этом супе считается женьшень.

Интересный факт.. Во времена Чусона суп назывался гесамтан (гесамтан). Всё потому что в те времена не было холодильника и людям приходилось сушить и измельчать женьшен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н сохранился долгое время. И поэтому в то время самым главным ингредиентом в самгетан считалась курица (계).

Помимо этих трёх ингредиентов, в суп так же добавляют рис, финики и кару деревьев.

Благодаря такому количеству полезных для здоровья продуктов, корейцы считают что самгетан очень питательный и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вышению иммунитета.

Как не странно, но этот питательный горячий суп, в Корее принято есть летом. И не просто летом, а в самые жаркие дни лета. В Корее три таких дня (в июле и августе). И так как в жаркие летние дни мы теряем много влаги и организм сильно устаёт, считается что самгетан с его полезными ингредиентами о

тлично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 наши силы.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то, что суп потрясающе вкусный и насыщенный.

Если вы решите приготовить самгетан, уверена что Вам откроется новый, яркий и незабываемый вкус корейского куриного супа.

Ингредиенты:

Курица - 1шт

Рис(сырой) - 150гр

Набор для самгетана - 1 упаковка

Чеснок - 10 зубчиков

Зелёный лук - 100гр

Вода - 3 литра

Соль и перец по вкусу и желанию

Способ приготовления:

Хорошо промыть курицу и удалить лишние куски жира. Обтереть курицу бумажными полотенцами. Далее промыть рис (не менее 4х раз).

Начинить курицу рисом, финиками и чесноком. Закрепить зубочисткой конец чтобы начинка не вываливалась в процессе приготовления.

В кастрюлю налить воду, выложить курицу, зелёный лук, женьшень и кару деревьев.

Варить на медленном огне 2~2,5 часа.

После приготовления супа вынуть и выбросить набор для самгетана.

Суп получается очень солнечным и невероятно вкусным. Думаю все останутся довольны такой альтернативе стандартного куриного супа.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 위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에서 현장 지원까지 파주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성심)는 파주시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직장 생활과 한국 생활을 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임금체불, 사업재해, 출입국문제, 고용허가제 문제 등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측은 특히 '다문화이주민+센터'의 일환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사업을 위탁받아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를 지원하고 있다.

### #상담에서 현장 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센터는 한 곳에서 일상생활 고충 상담 및 편의 제공,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생활적응, 사업주의 인력 활용을 원활화 할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2017년 6월 23일에 위탁받아, 2017년 7월 11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신속

히 해결하고, 상담에서 현장 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사이의 보다 나은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외에서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행정서비스인 방문전화,통역 지원뿐 아니라 한국 생활의 적응력을 키워주는 한국어와 문화교육을 운영 제공하고 있다.

###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력, 맞춤형 서비스 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특히 고용 관계상 애로 및 갈등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해 가급적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어지게 하고 있다. 하지만 복합적인 애로요인이 있는 자에게는 통합적인 상담,교육,체류 허가,고용 등을 각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없이 한 장소에서 진행하며, 대상자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안정된 취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각종 고충 상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인 귀환 및 체류 기간 만료 시의 각종 보험 및 귀국 절차를 안내한다.

파주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시간은 코로나-19 이내로 월요일~금요일(9:00~18:00)이며 서비스 지원 문의는 전화(031-949-9161)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김영의 기자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귀저기 갈기, 목욕 등 영아의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법정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의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절차

정부지원 판정신청 (동주민센터)

판정통지 (우편,문자)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이용자 승인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

돌봄미 연계 신청서 작성 및 배정

이용료 납부 서비스 이용

#### 지인추천 이벤트

2개월에 한번씩 지인에게 아이돌봄사업을 추천하면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www.idolbom.go.kr](http://www.idolbom.go.kr)  
 ★연락문의 031)949-9163 아이돌봄팀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2021년, 코로나19 초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 지급방법

- 지급조건 : ① '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② 경기도 거주 취약노동자로 ③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음성판정)
  - ※ '20년 12월 25일(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
  -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 당초 '20년 사업은 '20. 12. 24(목)로 접수 마감하였으나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미통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단, 성남, 시흥, 김포, 안산시는 선불카드)
- 지원내용 : 1인당 1회 23만원
  - \* 사용승인일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단, 12월 31일 일괄사용마감)

###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12월 10일(금)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각 시·군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
  - ※ 방문접수는 카드 수령 시 추가방문이 불가피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접수 자제
- 신청서류 : ①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② 신분증(사본) ③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 ④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⑤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요양보호사)

### ■ 절차안내

진단검사 실시	자가격리	보상금 신청	서류심사·지급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1~2일)	• 이메일, 우편, 방문 (검진결과 통보 후)	시군 - 신청자 지역화폐

### ■ 유의사항

- 검사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으로 진단검사비 발생시 본인 부담(진단비 추가 지원 없음)

###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4월에 모든 외국인주민에 지급한다”

Второй план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Кёнгидо-предоставят всем иностранным резидентам.

Кёнгидо с 1 числа следующего месяца перед новогодними праздниками и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ачнет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второй план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выплачивается по 100.000 вон на каждого жителя.

Есть три способа подачи заявки: онлайн, офлайн и услуга для уязвимых с выездом.

Вы может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онлайн с 1 февраля по 14 марта (с 9:00 до 23:00) через веб-сайт пособия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Кёнгидо и выбрать одну из форм выплат: Кёнги и Джиёхвапхе ( ), или кредитная карта (12 видов). Использование доступно уже с 2 февраля.

Сроки подачи заявки Оффлайн (на месте), в связи с карантинной ситуацией, были отложены на март. Заявки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с 1 марта по 30 апреля.

Посети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айонный, областной) по адресу, карту предоплаты изменят на карту Кёнги Чиёхвапхе ( ).

«Служба приема заявок с выездом»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 1 по 28 февраля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семей с одним родителем, граждан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и получателей пособия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Срок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особия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составляет 3 месяца с даты получения сообщения-одобрения и должно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о до 30 июня,

так же в городе, в котором прописан получатель.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до Ли Джэ Мён в отчете «Второго плана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Кёнгидо», отметил: " В целях преодо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вызванного пандемией по Кёнгидо, в рамках "Второго плана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 этом году так же будет выплачено по 100.000 вон всем жителям, независимо от возраста, профессии и дохода.

13,99 млн. граждан Кёнгидо, включая 480.000 иностранцев и этниче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не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пособие в рамках первого плана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меют право на пособие. В итоге наряду со 100.000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все 580.000 мигрант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ёнгидо, включены во второй план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Тем не менее, сроки выплат, учитывая рекомендаци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после тщательного изучения ситуации, связанной с короной 19 и карантинных условий.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до Ли Чжэ Мён 20 числа в управлении Кёнгидо в отчете " Второго плана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отметил: "До полного прекращения пандемии, случаи заражения Корона19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ся и в будущем, и в следствии возрастут эконом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ля окончательной победы над пандемией, в важной задачей является согласованность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с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мерами в целях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худшения экономики».

В дополнение, Губернатор Ли Чжэ Мён сказал: «Учитывая безотлагательность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и беспокойство по поводу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rona 19, Управление Кёнгидо предложило план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Кёнгидо». «Я глубоко благодарен за искреннюю решимость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для граждан; управление Кёнгидо внимательно изучит предложение парламента Кёнгидо и вынесет решение о выплатах».

В этот день, перед тем как представить метод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губернатор Ли и по поводу беспокойства, касающегося второго плана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сказал: « После предложения проекта, в парламенте Кёнгидо в течение почти десяти дней велась бурная дискуссия о том как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гармонизировать санитарный карантин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Прежде всего, что касается опасений, связанных с тем, что «выплаты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для увеличения потребления вызовут препятствия для карантина», - он сказал, - «успех К-карантина, на который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во всём мире, был достигнут благодаря актив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граждан. Я уверен, что граждане с таким опытом о сознанием будут строго соблюдать правила карантина, как и раньше, даже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небольшой сум

мы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пособий.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прежнему выплачивает огромные суммы выборочных пособий, не при как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карантин не усугубляется из-за выплат, и было трудно найти основания для утверждения о том, что распространённые не крупные суммы выплат 지역화폐, создаст проблемы для карантина».

Что касается вопроса о возможности разницы среди регионов: «Трудно уровнять регионы, потому что система мест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гда каждый регион осуществляет управление согласно политике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лиц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воими особенным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егионы на фоне разнообразия конкурируя так же и учатся друг у друга».

Кроме того, «В городе Пхочхон, который имеет самую низкую финансову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реди 31 городов и округов по Кёнгидо, сумма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ставила 400.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тем не менее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около 10 городов и округов с низкой финансовой независимостью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едоставили средства для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Как видно из предоставленных выплат, финансовая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финанс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как таковы не связаны между собой.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особия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 это больше приоритет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и составления бюджета, чем проблема финансов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добавил он.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на новогодне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сказал, что помимо политики поддержки центр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аждое местное управление может предоставить поддержку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Кёнгидо решило предоставить 지역화폐 в равной степени всем гражданам,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равенство в поддержке доходов, сократи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расходы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ддержать малый и средний бизнес посредством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потребления, оживить экономику и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финансовой активности»- объяснил губернатор Ли.

Кроме того, анализ Национальной бюджетной политики показывает то,

что эффект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рамках первого плана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был превышен в 1,81 раз. Учитывая текущ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поддержку доходов и эффект ожив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во время первого плана выплат 지역화폐, Кёнгидо решило, что второй план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необходим и не может быть излишним затруднений во время выплат.

В частности, выражая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случая, произошедшего лет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мужчина был приговорён к 1 году и 6 месяцам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за кражу печёных яиц на 5.000 вон. Это ужасная ситуация, которая возникает из-за невозможности найти однодневную работу и в следствии не имея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из-з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связанного с Corona 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делило нуждающимся выборочные пособия 2-го и 3-го плана, однако до сих пор существует "невидимая зона", т.е. граждане, которые н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ыборочные пособия». Губернатор Ли подчеркнул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ниверсальных выплат.

Заявку на второй план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как и во время первого плана, можно подать как онлайн так и посетив местное управление; крайний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ки и период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принципе такие же как и во время первого плана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отличие от первого плана выплаты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по которому пособия предоставлялись только брачным иммигрантам и лицам с ПМЖ, в этот раз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а так же этниче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которые заявили о своем проживании в Корее, включены во второй план выплат. Это решение позволит всем иностранным резидентам, проживающим в Кёнгидо, осознать то, что они являются гражданами Кёнгидо, и гордиться этим.

한가지 아쉬운 점은 외국인은 4월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한글 기사 2면〉

장울가 기자



## 接受新冠病毒核酸检查的外国居民也可获得“病假收入损失补偿金” 外国人等弱势劳动者进行新冠病毒核酸检查的情况，支援23万韩元，2月1日起申请

在劳动者中，不可避免地在与很多人接触的过程中，很多人都被感染了新冠病毒。特别是，日当等弱势劳动者如果出现新冠病毒可疑症状，在接受检查前首先担心生计问题。

以富川库方物流中心为例，日当劳动者的日薪直接关系到生计，因此，即使出现新冠病毒疑似症状，也不能轻易接受检查或休息，只能去工作。问题是，如果有感染症状的人在未接受检查的情况下继续工作，稍有不慎就会导致地区集体感染扩散的结果。

为此，京畿道从去年开始面向弱势劳动者每人支援23万韩元的“病假收入损失补偿金”，以便他们不用担心生计问题，接受新冠病毒核酸检查。

病假收入损失补偿金，对日当劳动者奏效...今年2月受理

今年根据“扩大实施新冠病毒筛选检查”的政府基调，将放宽支付条件，使接受检查的弱势劳动者都能获得支援，与是否有症状无关。这是为了进一步强化对脆弱劳动者的生计对策和防止新冠病毒扩散的防疫网而做出的举措。

同时，对外国人的支援范围也将扩大。去年只对拥有永住权的人和结婚移民者进行了支援，但今年居住在道内的登录外国人将全部成为支援对象，包括在京畿道的外籍同胞。

申请时间为2月1日至12月10日，申请书、身份证复印件、自家隔离履行及补偿金不正当领取相关保证书、资格确认证明书等材料等必需材料可通过相关居住市、郡通过接收电子邮件、信

件或访问。但是，通过保健所和筛选诊所接受诊断检查，得出结果(阴性)后，才能申请。

从防止新冠病毒扩散的层面出发，劝告在线申请，而不是访问申请，并通过材料审查，以地区货币或预付信用卡的形式支付补偿金。

详细的事项可以通过京畿道咨询中心(031-120)或市、郡进行咨询。

另外，去年京畿道病假所得损失补偿金支援开始5个多月后，向1011人支付了2亿3253万韩元(以2020年11月16日为准)。短时间劳动者235名、日当劳动者429名、特殊形态劳动从事者264名、疗养保护师83名等。

特别是，日薪与生计有直接关系，即使有可疑症状，也不能接受检查或休息，只能去现场工作的日当劳动者占43%，因此，可知京畿道迅速推进政策奏效了。

起初的检查对象只是因患新冠病毒疑似症状而接受诊断检查，从检查结果显示，直到通报之前进行自家隔离的劳动者，但从7月份开始，中央防疫对策本部通报的对确诊患者进行使用大众设施的无症状劳动者也包括在内。

另外，去年病假所得损失补偿金的申请受理时间也从当初的12月11日紧急延长到了24日。这是为了防止因经济原因而处于死角地带的劳动者也能迅速接受检查，防止大量感染扩散而采取的措施。

<한글 기사 47면>

왕그나 기자

## 외국인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나선다

### 파평면, 코로나 확산방지 주민이 만든 비누 전달



파주시 파평면은 지난 1월 25일 지역 내 기업체를 방문해 기업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주민들이 손수 만든 비누를 전달했다.

수제비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씻기로 건조증 등 피부질환 유발 가능성이 커 이를 방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의 정을 나누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수태 파평면장을 비롯해 파평면주민자치회, 농업경영인회, 뗏다 파평이모 등 파평면 마을공동체가 함께 참여했다. 파평면 마을공동체에서는

지난해 10월에 파평의 지리적 역사적 자원인 울곡 선생을 활용한 상품 브랜드화 사업으로 밤 울피를 이용한 수제비누를 제작했다.

또한 파평면은 지난해 12월 포천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캄보디아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7일에는 마을공동체 회원들과 함께 농축산 농가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파평면에는 208명의 외국인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태 파주시 파평면장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북한이탈주민 실태 전수조사 실시

### 파주시, 정착 실태와 생활환경 취업실태 등 조사



파주시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파주시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 전수조사.분석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관내 거주 중인 약 370여 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정착 실태와 생활환경, 취업실태 등 전반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수조사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직접 탈북민을 만나 설문 및 심층 면접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거주 및 경제활동 실태, 애로점과 건의 사항 등을 파악한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은 ‘먼저 온 통일’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평화공존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수요를 바탕으로 탈북민의 정착과 자립기반

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파주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 축하선물.초기정착 물품지원과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등을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2021년도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이끌어갈 운영자를 공모했다.

공모사업은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1,150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사업 1,625만원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사업 3,354만원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사업 2,500만원 ▲다문화아동 이중 언어 교육지원 사업 1,510만원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사업 2,000만원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555만원 ▲외국인주민(근로자) 한국어교육 사업 1,250만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1,365만원으로 총 9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파주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중 공지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이제, 콜톡하세요!**

- 실생활 질병상담 및 감염병 신고
-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 발신자 부담없이 누구나 이용가능
- 전화뿐만 아니라 카톡 문자상담까지!





# 코로나 우울감, 다양한 가족 위한 다양한 교육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요

##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자격증 취득·마음동행 미술치료 등 운영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 지원한다.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참가자는 2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하며, 모집 대상은 부모가 중국, 일본 출신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및 일반 초등학생이다.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총 50회기 진행된다. <중국어 I>은 상반기 교육이 2월 24일~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교육 시간은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총 18회기 이뤄진다. 둘째,넷째 주 토요일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0회 마련된다.

하반기 교육은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총 12회 진행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회 이뤄진다.

<중국어II>는 2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총 18회, 둘째,넷째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10회가 진행된다.

하반기 교육은 8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12회 진행되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10회 운영된다.

<일본어>는 2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총 16회, 첫째,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회 진행된다. 하반기 교육은 8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후 4시부

터 6시까지 총 24회 이뤄진다.

교육 장소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 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해당 언어의 말하기, 쓰기, 읽기 교육이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각 반 10명(일반학생 50% 이하 모집) 선착순 모집하여, 교육과정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무료(교재비 자부담)며 전화(031-395-1811) 또는 방문 신청받는다.

### #다문화가족 마음동행 미술치료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마음동행 미술치료'를 진행한다.

군포시 거주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다가운에서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6회기에 걸쳐 이뤄진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며 참가 신청은 2월 16일까지 받는다.

미술 매체를 활용한 소통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QT, 그림검사 별칭 짓기, 난화, 지점토, 색소금, 만다라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료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센터(031-392-1814)로 하면 된다.

### #원격수업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교육을 진행한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을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상시 운영되며 각 가정 내 또는 센터 내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한국어교육은 발음교정반 1과 동화책으로 만나는 한국어교육, 토픽 읽기, 토픽 듣기, 토픽 쓰기, 취업반, 발음교정반2, 중도입국반 등이 운영되며 센터 방문 및 전

화(031-395-1811) 접수한다. 신규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무료며 교재비는 개별 구입해야 한다.

### #ITQ자격증 취득과정 참여자 모집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ITQ자격증(한글, 엑셀) 취득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 참가자는 2월 17일까지 전화(031-392-1811) 또는 방문 신청받으며 각 과정당 취업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자 15명을 모집한다. 한국어 수준 3급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한글과정과 엑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운영된다.

자부담 15만원을 내야 하며 교재비는 별도다. 취업소양교육 1회 및 정착단계 집단상담 2회 필수 이수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 언어평가를 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교육을 지원한다. 센터 및 보육시설과 초등학교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1:1 개별지도 또는 모둠수업으로 이뤄진다.

언어발달촉진, 발음, 읽기, 쓰기 지도가 이뤄지며 기간은 6개월~ 2년이다. 주 1-2회 40분 진행되며 전화(031-395-1811) 신청받는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구비해야 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군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대상으로(일반가정 50%이하 참여 가능)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하고자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01 중국어A: 중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 수: 15:30~17:30 토: 10:00~12:00(첫,셋째주)
- 02 중국어B: 중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 월: 17:30~18:30 토: 9:30~11:30(둘,넷째주)
- 03 일본어: 일본어 읽기, 쓰기, 말하기 수: 16:00~18:00 토: 10:00~12:00(첫,셋째주)

모집기간: 2021.2.1~2021.2.17  
 모집대상: 해당국가 출신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초등학생  
 모집인원: 각 반 10명 (일반가정 아동 5명 이하)  
 교육장소: 센터 내 또는 온라인  
 문의: 031.395.1811 담당자: 유애연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다(多)잡(JOB)고(GO)

**ITQ자격증 (한글,엑셀) 취득과정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2021. 1. 29(금) ~ 2. 17(수)  
 \*코로나19로 시작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접수방법: 방문 또는 전화접수  
 ☎ 문의: 031-392-1811 담당: 이윤나

모집대상: 각 과정 당 취업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자 15명  
 (\* 한국어 수준 3급 이상) \* 신청 후 면접을 통해 선정

교육기간: \*중복 신청 가능  
 2021. 3. 1 ~ 4. 30 매주 화, 목 13:30~15:00(한글)  
 2021. 5. 1 ~ 6. 30 매주 화, 목 13:30~15:00(엑셀)

유의사항: \* 자부담 150,000원(각 과정 당) \* 교재비 별도 (2월 마지막 주 평일)  
 \* 취업소양교육 1회 및 정착단계 집단상담(2회) 필수 이수  
 \* 중도 탈락 시 1년 내 취업교육 참여 불가(출석 80% 이상 필수)

군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만 12세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언어평가를 실시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교육을 지원합니다.

대상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내용	언어발달촉진, 발음, 읽기, 쓰기 지도
장소	센터 /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특별한 장소 제공 필수)	기간	6개월 ~ 2년
비용	무료	시간	주 1~2회(40분)
교육 형태	1:1 개별지도 or 모둠수업	신청 방법	전화신청:031-395-1811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필수사항: (외부기관의 경우 다문화가정 2명 이상, 독립된 공간 제공 필수)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Tỉnh Gyeonggi hỗ trợ phí thu nhập cơ bản lần thứ 2 dành cho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Tỉnh Gyeonggi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cho toàn dân trong địa bàn tỉnh 100,000won/người lần thứ 2 bắt đầu nhận đăng kí kể từ ngày 1 tháng sau.

Người dân có thể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theo 3 phương pháp, online, offline và đến nhân viên cơ quan hành chính sẽ trực tiếp tìm đến người dân để nhận đăng kí, cách đăng kí thứ ba này chỉ áp dụng cho những người thuộc thành phần cần được hỗ trợ của xã hội.

Bắt đầu từ 9h sáng đến 11h tối, kể từ ngày 1 tháng 2 đến ngày 14 tháng 3, người dân có thể truy cập vào trang chủ của hệ thống hỗ trợ thu nhập của tỉnh Gyeonggi để đăng kí trong hạng mục nhận tiền đặc thù của địa phương. Các bạn có thể lựa chọn 1 trong 12 loại thẻ đã được hiển thị sẵn trên trang chủ để đăng kí. Thời gian sử dụng số tiền hỗ trợ này sẽ bắt đầu từ ngày 2 tháng 2.

Đối với ách thức đăng kí offline, đó là đăng kí nhận tiền hỗ trợ ngay tại hiện trường, do tình hình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vẫn đang diễn ra trên toàn tỉnh, do đó thời gian có thể đăng kí sẽ bắt đầu từ ngày 1 tháng 3 đến hết ngày 30 tháng 4. Địa điểm đăng kí là tại ủy ban nhân dân nơi mình đang sinh sống, tại đây người đăng kí sẽ nhận được thẻ hỗ trợ là thẻ thanh toán đặc thù của khu vực.

Phương pháp nhận đăng kí cuối cùng đó chính là "Tìm đến người đăng kí", phương pháp đăng kí này chỉ dành cho những người cao tuổi, người khuyết tật, gia đình có một bố hoặc mẹ nuôi con nằm trong diện có thu nhập thấp, những người đang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cơ bản về sinh hoạt hàng ngày của Chính phủ. Thời gian triển khai phương pháp đăng kí này là từ ngày 1 tháng 2 đến hết ngày 28 tháng 2.

Thời gian có thể sử dụng số tiền trợ cấp này là 3 tháng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tin nhắn của cơ quan hành chính thông báo có thể sử dụng được số tiền đã trợ cấp, thời hạn cuối cùng có thể sử dụng là đến hết ngày 30 tháng 6.

Ngoài ra, một số điều mà người đăng kí cần nắm được đó chính là số tiền hỗ trợ này chỉ có thể sử dụng được tại một số những địa điểm buôn bán đã được liên kết sẵn. Nhằm phần nào khắc phục được những khó khăn về kinh tế dành cho người dân trên địa bàn toàn tỉnh, tỉnh Gyeonggi đã có thông báo chính thức hỗ trợ phí thu nhập cơ bản dành cho mỗi người dân trên địa bàn toàn tỉnh là 100,000won/người mà không phân biệt độ tuổi, nghề nghiệp hay thu nhập cá nhân.

Trong lần trợ cấp thứ 2 này,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trợ cấp sẽ bao gồm 48 nghìn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ũng như kiều bào mà lần thứ nhất không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của Tỉnh. Như vậy tổng số người dân dự kiến sẽ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của Tỉnh lần thứ 2 này vào khoảng 13,990,000 người. Như vậy bao gồm cả 10 nghìn người dân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tổng cộng 58 nghìn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sẽ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lần thứ 2 này của Tỉnh.

Tuy nhiên về thời gian trợ cấp số tiền này, do Tỉnh

phê duyệt ý kiến trưng cầu của đảng Dân chủ có nguyện vọng phản ánh thời gian phòng chống dịch để có thể trợ cấp một cách tốt hơn do đó Tỉnh sẽ có thông báo chính thức về thời gian trợ cấp sau.

Ngày 20, ông Lee Jae Myeong-chủ tịch tỉnh Gyeonggi đã phát biểu với nội dung "trước khi dịch Covid-19 kết thúc những lây nhiễm sẽ vẫn còn diễn ra và kéo theo đó là tình hình kinh tế cũng sẽ gặp rất nhiều khó khăn", và "vì thế để có thể chấm dứt được dịch Covid-19 này chúng ta cần cố gắng hơn nữa trong việc phòng chống dịch cũng như có những giải pháp tốt nhất nhằm ngăn chặn sự đi xuống của nền kinh tế hiện nay" tại "cuộc báo cáo liên quan đến vấn đề trợ cấp thu nhập cơ bản lần thứ 2 dành cho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dân trên địa bàn toàn tỉnh".

Ông Lee cho biết thêm "Hội đồng tỉnh Gyeonggi đã có những đề án kịp thời hỗ trợ người dân khắc phục những khó khăn trong tình hình hiện tại, cụ thể là vấn đề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dành cho người dân lần thứ 2" và "xin trân thành cảm ơn những đề án của Hội đồng đưa ra nhằm hỗ trợ người dân, Tỉnh đã quyết định sẽ thông qua đề án đó và hỗ trợ phí thu nhập cơ bản này cho người dân trên địa bàn toàn tỉnh".

Đứng trước vấn đề phát biểu về cách thức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lần thứ 2 này, Ông Lee giải thích thêm "đã nghiên cứu rất kĩ trong khoảng 10 ngày phương pháp điều chỉnh những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phòng chống dịch cũng như những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nền kinh tế để làm sao có thể đưa ra được phương án giải quyết một cách tốt nhất".

Đầu tiên, để giải thích cho những rào cản có thể xảy ra do việc trợ cấp thu nhập với những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phòng chống dịch, ông cho biết rằng "hiện tại toàn thế giới đang tập trung hướng về những vấn đề phòng chống dịch của nước ta, những thành công trong công tác phòng chống dịch tất cả đều có sự hỗ trợ hợp tác từ phía người dân. Do đó Tỉnh quyết định hỗ trợ một số tiền nhỏ đến người dân đã và đang có ý thức phòng chống dịch nhằm khuyến khích những hành động của họ" và "mặc dù ngay trong thời điểm hại tại Nhà nước cũng đã bỏ ra một số ngân khố quốc gia tương đối lớn nhằm điều hành các trạm kiểm dịch tuyến thứ nhất trên địa bàn toàn quốc nhưng điều này không đồng nghĩa với việc Nhà nước hỗ trợ người dân thêm một số kinh phí khác mà ảnh hưởng đến việc phòng chống dịch, hơn nữa cũng không có căn cứ gì để có thể cho rằng việc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bằng tiền đặc thù của địa phương gây ảnh hưởng đến việc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Để đáp lại những chỉ trích về vấn đề có sự chênh lệch về nội dung trợ cấp giữa các địa phương, ông cho biết "mỗi địa phương lại có những đặc thù, những tình hình kinh tế cũng như sự điều hành mang hành chính khác nhau giữa những người điều hành, chúng ta cùng sống trong một xã hội có sự cạnh tranh giữa những khu vực do đó rất khó có thể cân bằng nội dung hỗ trợ giữa các địa phương với nhau".

Theo đó, "trong lần trợ cấp thu nhập cơ bản lần 1 của năm trước, trong số 31 quận huyện thuộc địa bàn tỉnh Gyeonggi có thành phố Pocheon là thành phố có khả năng tự lập về kinh tế khu vực thấp nhất trong toàn Tỉnh do đó số tiền được hỗ trợ là 400,000won/người, tuy nhiên đối với thời điểm hiện tại có đến 10 quận huyện nằm trong khu vực có khả năng tự lập về nền kinh tế rất thấp, các khu vực này khi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cho người dân cũng đều hiểu rằng khả năng tự lập về kinh tế khu vực có rất ít liên quan đến khả năng cung ứng nguồn tiền" và "kết luận cho thấy số tiền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không hẳn chỉ là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khả năng tài chính mà nó còn phản ánh cả những quyết định về thi hành chính sách cũng như những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tổ chức ngân sách quốc gia".

Ông Lee cho biết "vào buổi họp báo chào mừng năm mới Tổng thống Moon Jae In đã nói rằng từng địa phương có thể tự quyết định những hỗ trợ của địa phương mình dành cho người dân mà không nhất thiết phải song song với những chính sách hỗ trợ của Chính phủ", và "tỉnh Gyeonggi quyết định trợ cấp tiền đặc thù của khu vực nhằm hỗ trợ những cơ sở kinh doanh trên địa bàn một cách công bằng nhất cũng như nâng cao tính xử lý hành chính tại địa phương giúp thúc đẩy kinh tế và hỗ trợ những cơ sở kinh doanh đang hoạt động tại khu vực".

Ngoài ra, ông đã lấy ví dụ cụ thể về những phân tích về Phòng chính sách dự toán của Quốc hội với hiệu quả tăng 1.81 lần của số tiền hỗ trợ thu nhập trong đợt trợ cấp lần 1 vừa qua. Ông cho biết "khi xem xét về những phương diện hiệu quả của việc hoạt tính hóa nền kinh tế và hỗ trợ thu nhập từ việc trợ cấp bằng tiền đặc thù của khu vực trong đợt 1 vừa qua, việc trợ cấp thu nhập lần thứ 2 trong tình huống hiện tại là điều hoàn toàn cần thiết, việc trợ cấp cũng không gặp nhiều cản trở hay khó khăn". <한글 기사 2면>

Trong đợt trợ cấp lần 2 này không chỉ những người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những người có quyền định cư vĩnh viễn F-5 mới được nhận mà ngay cả những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hỉ cần đăng kí cư trú hợp pháp và có thể cư trú đó Xuất nhập cảnh cấp sẽ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này. Sự hỗ trợ này cũng phần nào giú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thấy tự hào về những chính sách hành chính dành cho bản thân mình. 강혜나 기자

**원격수업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군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일시	: 2021년 2월 15일 ~ 상시
참여방법	: 센터 방문 및 회원등록 - 반 배정 안내 - 수강신청서 작성 및 교육참여
비용	: 무료 / 교재비 별도(개별 구입)
장소	: 각 가정 내(비대면), 센터 내(대면)
신청	: 센터 방문 및 전화접수 가능
문의	: 031)395-1811. 담당. 노희진
내용	* 신규 신청 시 외국인 등록증, 여권 지참

발음교정반1, 동화책으로 만나는 한국어교육, 토익 읽기, 토익 듣기, 토익 쓰기, 취업반, 발음교정반2, 중도입국자녀반, 검정고시반, 기초반1,2

군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Bạn đã đọc hướng dẫn về bảo hiểm người gửi tiền chưa?

Bạn đã nghe giới thiệu về quan hệ bảo hiểm tiền gửi chưa?

### Thế nào là Chế độ bảo hiểm tiền gửi?

Nếu một công ty tài chính không thể thanh toán tiền gửi của khách hàng do tạm ngừng kinh doanh hoặc phá sản, Tổng công ty Bảo hiểm tiền gửi Hàn Quốc sẽ thanh toán tiền gửi thay để bảo vệ người gửi tiền.

### Chế độ hiển thị, giải thích, xác nhận mối quan hệ của bảo hiểm tiền gửi

Hệ thống hiển thị, giải thích và xác nhận mối quan hệ của bảo hiểm tiền gửi là một hệ thống để ngăn ngừa bán hàng không hoàn chỉnh và ngăn ngừa thiệt hại cho người tiêu dùng tài chính thông qua việc hiển thị trên các ấn phẩm quảng cáo để cho biết sản phẩm tài chính do công ty tài chính cung cấp có bảo hiểm cho người gửi tiền hay không và hạn mức bảo hiểm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bảo vệ người gửi tiền, giải thích và ký xác nhận khi ký hợp đồng giao dịch tài chính.

### Dễ dàng tìm hiểu về sản phẩm tài chính được bảo hiểm!

Các sản phẩm tài chính được bảo hiểm có gắn logo cho bạn biết ngay người gửi tiền có được bảo hiểm hay không.

### Tìm kiếm các sản phẩm tài chính được bảo hiểm

\*Vui lòng kiểm tra sản phẩm tài chính được bảo hiểm bằng mã QR.

Bạn có thể dễ dàng tìm kiếm các sản phẩm tài chính được bảo hiểm tại trang web của Tổng công ty Bảo hiểm tiền gửi.

<http://www.kdic.or.kr>

(Trang chủ → Chế độ bảo hiểm cho người gửi tiền → Đối tượng bảo hiểm → Sản phẩm tài chính → Tìm kiếm sản phẩm tài chính thuộc đối tượng bảo hiểm)

### Hãy thử tính xem giá trị tiền gửi được bảo hiểm của bạn là bao nhiêu!

Tổng công ty Bảo hiểm tiền gửi Hàn Quốc đã ra mắt "Máy tính mô phỏng số tiền gửi được bảo hiểm" trên trang web của mình ([www.kdic.or.kr](http://www.kdic.or.kr)) để bạn có thể mô phỏng tính toán xem có được bảo hiểm tiền gửi hay không và số tiền gửi được bảo hiểm là bao nhiêu bằng cách nhập trực tiếp các công ty tài chính, sản phẩm tài chính, số tiền giao dịch, v.v.).

### Hãy truy cập vào Học viện tài chính trong sinh hoạt!

Tổng công ty Bảo hiểm tiền gửi cung cấp chương trình giáo dục chứa đựng thông tin tài chính cần thiết trong đời sống thực tế, chẳng hạn như phương pháp quản lý tài chính, chế độ bảo hiểm tiền gửi và chế độ hỗ trợ tài chính. (Cung cấp giáo trình điện tử, có thể đăng ký học tại chỗ)

Để biết thêm thông tin chi tiết, vui lòng tham khảo trang chủ "Học viện tài chính trong sinh hoạt" ([edu.kdic.or.kr](http://edu.kdic.or.kr)), để giải đáp các thắc mắc khác, vui lòng liên hệ số điện thoại tư vấn của Tổng công ty Bảo hiểm tiền gửi (1588-0037).

### Hãy liên hệ với Tổng công ty Bảo hiểm tiền gửi để được giải đáp thắc mắc!

Để giải đáp các thắc mắc khác về Chế độ bảo hiểm tiền gửi, vui lòng liên hệ số điện thoại tư vấn của Tổng công ty Bảo hiểm tiền gửi (1588-0037).

**Tổng công ty Bảo hiểm tiền gửi**  
04521 30,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Tài liệu này được lập vào tháng 10 năm 2020 và nội dung có thể thay đổi do các sửa đổi của luật và quy định liên quan. Ngoài ra, tài liệu này chỉ được cung cấp cho mục đích cung cấp thông tin nhằm nâng cao hiểu biết về Chế độ bảo hiểm tiền gửi và không có hiệu lực pháp lý.

Tài liệu tham khảo dùng cho người cư trú tại Hàn Quốc

Korean | Vietnamese

Tổng Công ty BHTG Hàn Quốc (KDIC) bảo hiểm tiền gửi cho mỗi cá nhân tại mỗi tổ chức tối đa là 50 triệu Won bao gồm gốc và lãi quy định (trong trường hợp hợp đồng bảo hiểm, đó là giá trị hoàn lại cộng với một số khoản thanh toán khác)

## bảo hiểm tối đa lên đến 50 triệu Won.

**Số tiền vượt quá hạn mức 50 triệu Won không được bảo hiểm.**

Vui lòng kiểm tra một lần nữa trước khi bạn đăng ký sản phẩm tài chính!

- Đây có phải là sản phẩm tài chính được bảo hiểm?
- Bạn đã được nghe giải thích về sản phẩm được bảo hiểm chưa?
- Bạn đã ký xác nhận về việc đã được giải thích chưa?

Các sản phẩm tiền gửi có kỳ hạn, tiền gửi tiết kiệm và hợp đồng bảo hiểm và các sản phẩm được đảm bảo khác của ngân hàng, công ty chứng khoán, công ty bảo hiểm, ngân hàng tiết kiệm và ngân hàng bán buôn được KDIC bảo hiểm.

(Tuy nhiên, các công cụ đầu tư như trái phiếu, sản phẩm đầu tư tài chính, hợp đồng chính của sản phẩm bảo hiểm biến đổi không phải là đối tượng được bảo hiểm)

**Tổng công ty Bảo hiểm tiền gửi**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Các tổ chức tài chính và sản phẩm tài chính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bảo hiểm

**Các tổ chức tài chính được bảo hiểm là ngân hàng, công ty bảo hiểm, công ty môi giới và giao dịch đầu tư, ngân hàng bán buôn và ngân hàng tiết kiệm tương hỗ.**

- Các chi nhánh ngân hàng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Liên đoàn Hợp tác xã Nông nghiệp quốc gia (Nonghuyop), Liên đoàn hợp tác Ngư nghiệp quốc gia (Suhuyop) cũng được bảo hiểm.
- Tuy nhiên, các chi nhánh địa phương của Nonghuyop và Suhuyop, Liên đoàn các liên hiệp tín dụng quốc gia và các Hợp tác xã tín dụng cộng đồng không được KDIC bảo hiểm mà được bảo hiểm bằng các quy tự sở hữu được lập theo các luật có liên quan

**Không phải tất cả các sản phẩm tài chính của các tổ chức tài chính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KDIC bảo hiểm thì đều được bảo hiểm**

- Trên nguyên tắc, chỉ bảo hiểm đối với các sản phẩm tài chính đảm bảo chi trả tiền gốc vào ngày cuối kỳ hạn như sản phẩm tiền gửi có kỳ hạn, sản phẩm tiền gửi tiết kiệm, sản phẩm tín thác có bảo đảm tiền gốc v.v...
- Sản phẩm đầu tư tài chính, sản phẩm thuộc loại đầu tư, tài khoản quản lý tiền mặt (CMA) tại công ty chứng khoán, trái phiếu thứ cấp, chính sách chính của hợp đồng bảo hiểm có thể thay đổi trừ mức tối thiểu được bảo đảm) v.v... không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bảo hiểm.
- Các khoản tiền gửi của chính phủ và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bao gồm các trường học công và dân lập) không được bảo hiểm.

**Các trường hợp thiệt hại do sản phẩm tài chính không được bảo hiểm**

Một công ty tài chính mời bạn tham gia vào một sản phẩm được đảm bảo tiền gốc và "chỉ đầu tư vào các công ty chất lượng cao và không bị lỗ trừ khi quốc gia sụp đổ" tuy nhiên sau đó việc mua lại sản phẩm bị ngừng lại.

**Công ty không cung cấp các dịch vụ tài chính tương tự như dịch vụ của các công ty tư vấn tài chính, hoặc ngân hàng nhưng không có quy định pháp lý nào điều chỉnh, công ty tài chính tương đồng (P2P) không phải là đối tượng được bảo hiểm.**

**Trường hợp thiệt hại do lừa đảo là sản phẩm được bảo hiểm**

Công ty R không phải là tổ chức tài chính bất hợp pháp. Công ty này tổ chức các buổi hội thảo đầu tư và đăng các hướng dẫn lên mạng xã hội nói rằng sản phẩm A là "sản phẩm được bảo hiểm tiền gốc lên đến 50 triệu Won", anh L tin vào thông tin này và tiến hành đầu tư nhưng sau đó không thể nhận lại được khoản tiền mình đã đầu tư.

### So sánh chính sách BHTG của Hàn Quốc và Việt Nam

Mục	Hàn Quốc (Tổng Công ty BHTG Hàn Quốc)	Việt Nam (BHTG Việt Nam)
<b>Hạn mức BHTG</b>	50 triệu KRW	75 triệu VND (khoảng 3,750,000KRW)
<b>Danh mục sản phẩm tài chính được bảo hiể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iền gửi không kỳ hạn (tiền gửi thông thường, tiền gửi công ty, tiền gửi tạm thời, tiền gửi phát séc, v.v.)</li> <li>- Tiền gửi tiết kiệm (tiền gửi có kỳ hạn, tiền gửi tiết kiệm có kỳ hạn, tiền gửi kỳ quỹ nhà đất, tiền gửi dạng tích lũy định kỳ)</li> <li>- Tiền gửi ngoại tệ</li> <li>- Tiền ủy thác với tiền gốc được bảo đảm, v.v.</li> <li>- Tiền gửi gửi trong các sản phẩm tài chính hưu trí xác định phần đóng góp hay các tài khoản hưu trí cá nhân được KDIC bảo hiể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iền gửi không kỳ hạn</li> <li>- Tiền gửi có kỳ hạn</li> <li>- Tiền gửi tiết kiệm</li> <li>- Chứng chỉ tiền gửi</li> <li>- Giấy tờ có giá và các loại tiền gửi khác</li> </ul>
<b>Danh mục sản phẩm tài chính không được bảo hiể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ứng chỉ tiền gửi (CD)</li> <li>- Hợp đồng mua lại (RP)</li> <li>- Sản phẩm đầu tư tài chính (giấy chứng nhận người thụ hưởng, quỹ tương hỗ, quỹ thị trường tiền tệ (MMF))</li> <li>- Tài khoản tín dụng thực (ví dụ như các khoản ủy thác cụ thể)</li> <li>- Trái phiếu do ngân hàng phát hành</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iền gửi tại tổ chức tín dụng của cá nhân là người sở hữu trên 5% vốn điều lệ của chính tổ chức tín dụng đó.</li> <li>- Tiền gửi tại tổ chức tín dụng của cá nhân là thành viên Hội đồng thành viên, thành viên Hội đồng quản trị, thành viên Ban kiểm soát, Tổng giám đốc (Giám đốc), Phó Tổng giám đốc (Phó Giám đốc) của chính tổ chức tín dụng đó; tiền gửi tại chi nhánh ngân hàng nước ngoài của cá nhân là Tổng giám đốc (Giám đốc), Phó Tổng giám đốc (Phó Giám đốc) của chính chi nhánh ngân hàng nước ngoài đó.</li> <li>- Tiền mua các giấy tờ có giá vô danh do tổ chức tham gia bảo hiểm tiền gửi phát hành.</li> </ul>
<b>Thời hạn trả tiền bảo hiểm</b>	Trong vòng 7 ngày làm việc	Trong thời hạn 60 ngày, kể từ thời điểm phát sinh nghĩa vụ trả tiền bảo hiểm, tổ chức bảo hiểm tiền gửi có trách nhiệm trả tiền bảo hiểm cho người được bảo hiểm tiền gửi.

\* Tỷ giá : tiêu chuẩn ngày 5/10/2020

### KDIC bảo hiểm tiền gửi cho mỗi cá nhân tối đa là 50 triệu Won bao gồm gốc và lãi quy định, không bảo hiểm cho phần tiền vượt quá 50 triệu Won.

- Lãi suất quy định là lãi suất thấp hơn giữa lãi suất cam kết ban đầu của tổ chức tài chính và lãi suất do KDIC quyết định khi xem xét lãi suất bình quân của tiền gửi có kỳ hạn 1 năm của các ngân hàng thương mại tại Hàn Quốc.
- Đối với Hợp đồng bảo hiểm, hạn mức được tính trên cơ sở tổng tiền bảo hiểm được hoàn lại khi chấm dứt hợp đồng bảo hiểm thời hạn (tiền bảo hiểm được hoàn lại sau khi hết hạn hợp đồng) và một số khoản thanh toán phải trả khác.

**Ví dụ**

**Q** Trường hợp ngân hàng A phá sản, người gửi tiền có khoản tiền gửi 40 triệu Won tại một chi nhánh thuộc ngân hàng A và một khoản tiền gửi 60 triệu Won tại một chi nhánh khác cũng thuộc ngân hàng A, vậy người gửi tiền được KDIC bảo hiểm bao nhiêu?

**A** Do hạn mức bảo hiểm không áp dụng cho từng chi nhánh riêng rẽ trực thuộc cùng 1 tổ chức tài chính nên trong 100 triệu Won tiền gửi ở ngân hàng A, người gửi tiền chỉ được bảo hiểm 50 triệu Won.

**Q** Trường hợp cả ngân hàng tiết kiệm B và C đều phá sản, người gửi tiền có khoản tiền gửi 70 triệu Won tại ngân hàng tiết kiệm B và 30 triệu Won tại ngân hàng tiết kiệm C, vậy người gửi tiền được bảo hiểm bao nhiêu?

**A** Hạn mức bảo hiểm được áp dụng riêng rẽ cho từng tổ chức tài chính, do vậy người gửi tiền được hưởng 50 triệu Won tiền bảo hiểm cho khoản tiền gửi 70 triệu Won tại ngân hàng tiết kiệm B và 30 triệu Won cho khoản tiền gửi 30 triệu Won tại ngân hàng tiết kiệm C

**Q** Trường hợp ngân hàng A phá sản, người gửi tiền có khoản tiền gửi 40 triệu Won tại một chi nhánh thuộc ngân hàng A và một khoản tiền gửi 60 triệu Won tại một chi nhánh khác cũng thuộc ngân hàng A, vậy người gửi tiền được KDIC bảo hiểm bao nhiêu?

**A** Do hạn mức bảo hiểm không áp dụng cho từng chi nhánh riêng rẽ trực thuộc cùng 1 tổ chức tài chính nên trong 100 triệu Won tiền gửi ở ngân hàng A, người gửi tiền chỉ được bảo hiểm 50 triệu Won.

**Q** Trường hợp cả ngân hàng tiết kiệm B và C đều phá sản, người gửi tiền có khoản tiền gửi 70 triệu Won tại ngân hàng tiết kiệm B và 30 triệu Won tại ngân hàng tiết kiệm C, vậy người gửi tiền được bảo hiểm bao nhiêu?

**A** Hạn mức bảo hiểm được áp dụng riêng rẽ cho từng tổ chức tài chính, do vậy người gửi tiền được hưởng 50 triệu Won tiền bảo hiểm cho khoản tiền gửi 70 triệu Won tại ngân hàng tiết kiệm B và 30 triệu Won cho khoản tiền gửi 30 triệu Won tại ngân hàng tiết kiệm C





**'광명소식지 번역본' 다문화가정에 전달**  
**광명시, 다문화가정에 지역사회 소식 정확히 전달**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다문화가정을 위해 광명소식지 번역본(중국, 베트남, 일본)을 발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월 21일 시장실에서 첫 발행된 광명소식지 번역본을 중국, 베트남, 일본 다문화가정에 전달했다.

광명시는 다문화가정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번역본을 발행하게 됐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상위 다수 3개 국어로(중국, 베트남, 일본) 발행한다.

이날 전달식에서 박승원 시장은 “다문화가정에 지역사회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광명소식지 번역본을 발행하게 되었다”라며 “다문화가정도 우리 시민이다. 다 함께 행복한 광명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 참여한 예수잉(중국)은 “언어로 인해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해 번역본을 발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보기도 편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 소식지와 함께 보니 한국어를 익히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광명소식지 번역본을 복지관,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비치하고 희망 가정에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광명 소식지 번역본 우편 수신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지역사회와 함께 성평등한 세상 만들기'**

**광명시, 5일까지 여성권익증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접수해요**



여성친화도시 광명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내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광명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명시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광명시성평등기금을 활용해 각종 성평등 관련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광명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는 참여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건강가정육성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 성평등 관련 사업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오는 2월 1일부터 5

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2-2680-6199)으로 전화하면 된다.

광명시는 2월 18일 선정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를 선정해 2월 23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자는 3월부터 10일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실적과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는 지난해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6개 단체에 2천500여만 원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참여 단체는 다문화 가정, 여성장애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여성장애인 향기테라피 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을 위한 태권도 프로그램 등 성평등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광명시는 2012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무인안심택배함,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 점검, 흡방범 서비스,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지은 기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상관없이 모든 산모 대상**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신생아가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면 광명시에서는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산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인 산모부터 해당되며, 광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대 5일에서 최장 10일까지, 최저 3만8,000원에서 최고 75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복지포(www.bokjiro.go.kr)서 신청하거나 광명시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보건소 모자건강관리실(02-2680-2899)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가 의심된다면 나와 가족**  
**위해 즉시 코로나 검사 받아야**



2021년, 올해 들어 광명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분들 중 신규 확진자가 140명(1월 25일 기준)이 발생했다.

확진자 중 50.7%인 71명이 가족 간 감염으로 나타났으며, 20%인 28

명이 확진자의 접촉자 감염으로 확인되는 등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과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전파의 시작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시작점은 내가 될 수도 있다. 내 가족과 친구, 주변 지인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의심증상 발생시 코로나19 검사를 꼭 받아 가족 간, 지인 간의 2차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서로의 백신이 되어야 한다.

◆ 가족 감염 예방 수칙

- ①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경미한 호흡기 증상(기침, 두통, 근육통 등) 관찰해주기
- ②증상이 의심될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분리된 공간에 머무르며 마스크 착용하기
- ③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후 손 씻기 및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④가급적 다른 집 방문을 자제하고, 요양병원·시설 및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접촉 주의하기
- ⑤하루 세 번(10분씩) 이상 환기하고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이지은 기자



## 1인 가구가 함께 행복한 '1류 복지 광명'

### 광명건가다가, 경기도 지정 '1인 가구' 복지서비스 실시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2021년부터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경기도로부터 광명시가 지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자기 돌봄 및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시 1인 가구, 전체 가구의 30.5%

우리 사회는 전국의 1인 가구 수 급증에 따라 '혼밥', '혼술' 등 '혼자'와 관련된 신조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광명시는 2019년에 1인 가구 시민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0년 8월 말 기

준, 광명시 1인 가구는 전체 12만6,237가구 중 3만8,539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5%를 차지한다. 이러한 1인 가구 광명시민을 위해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중장년 수다살롱'은 중장년 1인 가구가 모인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취미, 자기개발, 문화 활동 등 같은 목적으로 모인 1인 가구 동아리를 모집해 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

'영양가 있는 밥 한끼'에 착안한 '식생활 개선 다이닝'은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밑반찬 등 요리 교육을 제공한다. 식생활 개선은 물론 외로움 감소 등 심리 정서적 효과도 노려볼 만하다.

'건강돌봄 프로그램'은 청년 또는 중장년을 위한 신체 건강 돌봄 프로그램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관계도 형성하며 만족감을 높이는 활동이다.

임무자 센터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고립감이라는 마음의 짐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1인 가구에게 자기 돌봄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이런 1인 가구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관계를 통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도입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정담회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 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 1월 26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이일규 시의원, 경기도청, 경기도주식회사, 광명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공공배달앱 도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배달특급'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출시한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파주시에서 시범 서비스 중으로 올해 안에 25개 지역에서 추가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는 광명시 도입을 앞두고 효율적 업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도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특급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의 기자

### 다문화 방문교육 사업안내

가정으로 찾아가는 1:1 맞춤형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h4>한국어교육</h4> <p>대상: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 회기: 주 2회, 2시간, 80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교육 1~4단계</li> <li>-어휘, 문법, 화용, 문화</li> <li>-한국어교육, 정서지원, 정보제공</li> </ul>	 <h4>부모교육</h4> <p>대상: 임신-아동기 부모 회기: 주 2회, 2시간, 40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li> <li>-가족상담 및 정서지원</li> <li>-기타 한국 생활 필요 정보제공</li> </ul>	 <h4>자녀생활</h4> <p>대상: 13세 미만 다문화자녀 회기: 주 2회, 2시간, 80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제지도, 독서코칭, 토론회</li> <li>-문화인식, 공동체 인식 지도</li> <li>-기본생활습관, 건강 및 진로지도</li> </ul>
---	--	--

**신청방법**

1. 센터문의접수: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서비스 이용가능여부 문의(02-6265-1366)
2. 행정복지센터: 센터 문의 후 거주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면-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체크)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동반 상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지참

**이용요금**

중위소득 150% 이하 (8인가구기준 597만원 이하) **무료이용**      중위소득 150% 이상 **월 8회기준 65,280원**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청문의 02)6265-1366 | Fax 02)2611-5470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대상자 모집

<h4>기본과정</h4> <p>2월 9일 ~ 4월 8일 매주 화, 목 12:00-15:00 총 17회기</p>	<h4>심화과정</h4> <p>4월 13일 ~ 4월 29일 매주 화, 목 12:00-15:00 총 6회기</p>
---	--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신청대상**

- 사전평가 응시 또는 연계과정 통해 5단계 배정받은자
- 사회통합 4단계 이수 후 중간평가 합격자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통해 개별신청

**신청기간**

- 기본과정 : 1월 19일 ~ 2월 2일      문의 02-6265-1366
- 심화과정 : 1월 19일 ~ 4월 6일      (담당자 장원희)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바리스타 자격 취득한 다문화가족의 핸드드립 커피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커피 주제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진행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1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핸드드립 커피'를 주제로 자조모임을 진행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 경기도 김포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진행했으며 지난 1월 바리스타 시험에 응시하여 2급 자격증을 전원 취득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결혼이민자들

의 고국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고향에 그리움이 간절한 실정이다. 이에 바리스타를 수료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힐링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이번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센터가 지난 1월 19일 재개관함에 따라 소규모 대면으로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원을 분배해 이를 간 진행됐다.

이번 자조모임에 참여한 키르기스스탄 출신 여성 A씨는 "바리스타2급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커피머신 없이 커피를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핸드드립 커피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다"며 "또한 그동안 커피숍에 가야 맞볼 수 있는 커피를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다니 이제야 진짜 바리스타 된 것 같다"라고 감탄했다.

참여자들은 이날 취득한 자격증을 전달받아 뿌듯함을 느끼며 커피향기 가득한 다음 자조모임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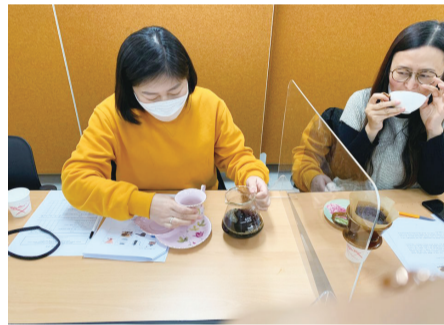
이지은 기자

### 면접정장 무료로 이용 청년 구직자 정장 대여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한다. 주민등록상 김포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1인당 최대 3회 회당 3박4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2월 1일부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apply.jobaba.net>)에서 구직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면접증빙자료 제출 후 승인 문자를 받으면 시와 협약한 대여업체에서 직접 빌리면 된다. 여성은 재킷·스커트·바지·블라우스·구두 등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을 한 번에 빌릴 수 있다.

이지은 기자



## 아빠와 자녀가 더 세밀하게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 '해피파파'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자녀 소통 정서순화 미술놀이' 진행, 공감과 소통 이끌어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1월 마지막 토요일,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 첫 번째 달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조정과 관련해 김포시 공공시설 재개장 운영이 개시된 1월 20일 이후,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해피파파'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전환하여 진행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대면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컸던 아빠와 자녀가 '부모자녀



소통 정서순화 미술놀이' 프로그램으로 주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이번 '해피파파' 수업은 '부모자녀 소통 정서순화 미술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보경 강사(전문상담사)가 준비한 음악에 맞춰 스트레칭 체조를 진행해 신체와 정서를 이완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가벼운 스트레칭은 긴장을 이완시키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

이날 늘 바쁘기만 했던 아빠와 자녀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은유적 표현으로

가족상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은 돈독한 유대감을 형성하기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가족의 소망을 담은 소망 나무 만들기는 아빠의 2021년 각오와 실천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을 하게 했다.

다문화가정의 어느 아빠는 "2021년 담배값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하루 담배값을 계산해보고 한 달 담배값을 계산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한 달에 두 번 시켜주는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혀 다른 참여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다른 가정의 아이는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의 소망까지 대신 전달하며 형제간의 우애를 표현해 가족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2021년 1월의 마지막 주,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집안에서만 웅크리고 있었던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한 주말은 어느

주말 보다도 의미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의 공통된 소망은 "2021년엔 모든 가족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기도 김포시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사업 평가환류를 통해 21년에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해피파파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아빠들에게 자녀 육아 돌봄, 가사,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자녀와 소통능력을 키우고 다른 가족과의 활동을 통해 정보도 나누고 집단 효능감도 높이고자 한다.

다음 2회기 해피파파 아빠품앗이 프로그램은 2월 27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 2월부터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58만명 확대

##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 시범사업', 1명당 주 1회 총 45회 공급



경기도가 2월 1일부터 '2021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는 기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가정보육 어린이 외에도 다함께돌봄센터까지 공급처를 확대해 대상 어린이가 56만8천명에서 58만3천명으로 늘어난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2월 1일 배를 시작으로 사과, 복숭아, 수박, 멜론, 포도, 감귤 등 제철과일 19종을 총 45회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과일은 지역에 따라 월요일~목요일 사이 주 1회 배송된다. 더 많은 어린

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은 공급 방식을 개선해 연중 건강과일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등원율이 50% 미만일 때 건강과일 공급을 중단했으나, 올해는 등원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공급처 대체를 위한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 시범사업'을 도입해 3개 시·군을 선정,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토마토, 딸기 등 친환경 과일 150톤을 제공한다.

새롭게 문을 연 어린이집은 해당 시군 건강과일 담당부서나 보육 담당부서에서 연중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보육 어린이에 대해서는 과일 생산시기에 따라 가정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올해도 성공적인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식습관과 건강 개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 역시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이 주된 목적이지만 제철과일의 판로 확대와 가격지지 역할도 상당하다"면서 "도내 과일·과채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과일 수급안정과 도내 과일 품목의 다양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공급과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방사능물질 검사 건 수를 지난해 100건에서 150건으로 늘릴 예정이며 검사 결과를 데이터화해 우수 생산 농가를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친환경, G마크,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등 고품질 국내산 과일 간식 제공을 통해 어린이 건강증진과 도내 과수농가 판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가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지은 기자

# 김포 여성농업인 대상 행복바우처사업 시행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는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직업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 '행복바우처' 사업을 기간 2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업인에게 1인당 20만원(자부담 4만원)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제공해 보건 복지 문화 비용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2001년생부터)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다. 다문화가족도 물론 신청할 수 있다. 자부담 4만원을 포함 20만원 한도 내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기한은 2월 23일까지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김포시 전 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합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가정 내 배달음식과 택배 이용의 증가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드립니다!

**지원대상** 김포시 193,234 전 세대  
※ 주민등록이 2020. 12. 31. 기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세대주

**배부물품** 세대당 20리터 50매

**지원시기** 2021. 1. 18.(월) ~

**배부방법** 1차 - 1월중 통·리장 세대별 방문 배부  
2차 - 2월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배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우리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 쓰레기를 정시(오전 4시~13시)에 수거하겠습니다.  
시민의 약속! 쓰레기를 정시(오후 8시~12시)에 배출하겠습니다.

**♻️ 재활용 쓰레기인가요?**

- ▷ 공동주택 :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 그 외 주택(단독, 상가 등) : 일·금 야간에 배출 장소에 배출
- 종이류 : 신문지, 종이컵, 상자류, 책자, 노트 등
- 비닐류 : 내용물을 빼우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
- 플라스틱류 :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은 제거 후 압착 배출
- 캔, 고철류 :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병류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이물질은 넣지 말고 배출
- 형광등 :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광등 배출 용기에 배출
- 건전지 : 행정복지센터나 아파트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의류, 이불 :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 수분 및 이물질 제거 후 녹색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공동주택은 녹색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수거함에 배출
-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 이쓰시개, 차류 피끼기(커피밀유, 한약재, 티백)
- 껌대기(갑각류, 조개류, 명품, 호두) - 씨앗(복숭아, 감 등)
- 뼈(닭등의 뼈, 생선뼈) - 껌(달걀, 양파, 마늘)

**♻️ 가전제품인가요?**

- 폐가전은 무상수거 대상
- 대형가전(1m 이상)은 가정방문수거(콜센터 1599-0903)
- 중소형가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배출

**♻️ 타는 쓰레기(일반)인가요?**

-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 흰색 종량제봉투에 배출
- 폐휴지, 코팅종이(전단지) 통물 통배, 조개 껍질류 등
- 이물질이 묻은 쓰레기 : 기저귀, 나무젓가락, 커피면 용기 등
- 그 외 쓰레기 : 황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이불, 인형, 장난감, 목재, 가죽류, 벨트, 가방, 신발 등

**♻️ 안 타는 쓰레기(일반)인가요?**

- 유리, 도자기, 금속, 황아리, 화분, 그릇 등 : 흰색 마대 종량제봉투에 배출
- 인터넷이 폐자재 등 흰색 마대 종량제봉투에 배출

**♻️ 대형 폐기물인가요?**

- 가구류 등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 배출스티커 구입(지정판매소) → 지역별 수거 업체에 전화 접수
- 스티커 부착 후 지정장소에 배출
- ※ 배출 전 꼭 업체에 전화하세요
- 인터넷 배출신고
- 김포시청 홈페이지 접속 → 분야별 정보 → 환경위생 → 쓰레기/폐기물 → 대형폐기물 → 온라인 신청하기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 (토요일 배출 금지/지역별 배출일 확인)

**♻️ 쓰레기 배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모든 쓰레기는 일·금요일 오후8시~12시 사이에 배출합니다. (토요일 배출 금지/지역별 배출일 확인)
- 모든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는 내 집 앞, 내 정포 앞에 배출합니다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은 단지 내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환경감시도시, 양곡, 장기지구는 꼭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크린넷에 직접 배출합니다.

**♻️ 2021년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안내**

수거지역	업체명	연락처	수거지역	업체명	연락처
동진	(주)세일환경	987-0543	김포본	(주)삼인	989-9061
대곡, 양촌	제일환경위	997-2771	공무	부일환경위	982-2241
월곶, 장기	구래	989-9268	사우	(주)세일환경	998-6563
운양, 마산, 하성	(주)김포신도시환경	991-4143	고촌	신경에코백(주)	987-6033

→ 수거대상 폐기물 :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 Gia đình đa văn hóa cũng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ổ tài khoản khắc phục Covid-19 dành cho tiểu thương” của tỉnh Gyeonggi 다문화가족도 가입할 수 있는 경기도 코로나 극복통장

Tỉnh Gyeonggi đã chính thức hỗ trợ tiểu thương đang hoạt động trên địa bàn tỉnh, mỗi doanh nghiệp có thể đăng ký mở sổ tài khoản minus với giới hạn tối đa của sổ vào khoảng 10 triệu won/doanh nghiệp nhằm khắc phục những hậu quả của dịch Covid-19 gây thiệt hại cho nền kinh tế cũng như ổn định kinh doanh trong lâu dài.

Vào ngày 29 vừa qua tỉnh Gyeonggi đã có thông báo chính thức sẽ triển khai “Dự án sổ ngân hàng khắc phục Covid-19 dành cho tiểu thương”, dự án sẽ bắt đầu vào ngày 1 tháng 1 năm mới.

Đây là một dự án đầu tiên trong cả nước, hỗ trợ tiểu thương đang cần huy động vốn gấp nhưng cấp độ tín dụng thấp nên không thể sử dụng những gói tín dụng từ ngân hàng mà phải sử dụng những gói sản phẩm của các công ty hỗ trợ vốn khác với lãi suất cao, nội dung hỗ trợ chính của dự án này đó chính là cho vay với lãi suất thấp và người vay không phải trả thêm chi phí bảo chứng

Giới hạn tối đa cho mỗi sổ ngân hàng dành cho mỗi doanh nghiệp là 10 triệu won.

Thời gian cho vay tuy là 1 năm nhưng người vay có thể gia hạn thêm thời gian sử dụng số tiền đã vay thêm 4 lần, như vậy người vay sẽ có thể sử dụng số tiền mà mình đã vay trong thời gian là 5 năm, sau khi hết thời gian này mới phải thanh toán số tiền đã vay. Trong 3 tháng đầu, tiền lãi mà người vay phải chịu là lãi suất biến động(tính theo tiêu chuẩn ngày 17 tháng 12), lãi

suất trong 1 năm sẽ là 2.76%. Đặc biệt,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đã từng sử dụng dịch vụ tín dụng bảo chứng của Quỹ bảo chứng tín dụng Gyeonggi sẽ phải trả tiền bảo chứng cho Quỹ nhưng đối với sổ tài khoản khắc phục Covid-19 này, khi người sở hữu sổ có nguyện vọng sử dụng tiền trong sổ thì tỉnh Gyeonggi sẽ thanh toán hoàn toàn số lãi mà người vay phải thanh toán cho bên Quỹ bảo chứng.

Những đối tượng là chủ doanh nghiệp đủ điều kiện mở sổ tài khoản này bao gồm chủ doanh nghiệp có cấp độ tín dụng dưới cấp độ 6, những chủ doanh nghiệp có thu nhập thuộc dạng trung(thu nhập bình quân dưới 80% tính theo tiêu chuẩn của gia đình có 4 thành viên), những chủ doanh nghiệp có độ tuổi 40~50 đang là lao động chính trong gia đình, chủ doanh nghiệp là người khuyết tật, người thuộc gia đình đơn thân, gia đình đa văn hóa, gia đình đông con, người thuộc diện đang nhận hỗ trợ sinh hoạt cơ bản của Chính phủ, người thuộc tầng lớp cần bảo trợ, những chủ doanh nghiệp đang vay vốn kinh doanh với lãi suất cao, những người dưới 39 tuổi có nguyện vọng mở lại việc kinh doanh, vv

Tổng số tiền đầu tư hỗ trợ lên đến 200 tỷ won, số tiền này sẽ có thể hỗ trợ cho ít nhất là 20,000 doanh nghiệp. Bắt đầu từ ngày 11 tháng 1, chủ doanh nghiệp nằm trong diện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của dự án có thể đến 154 chi nhánh ngân hàng Nông nghiệp NH và 61 chi nhánh hỗ trợ mở sổ tài khoản di động được đặ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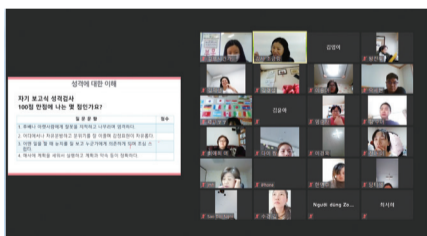
chốt trên địa bàn toàn tỉnh để đăng ký mở sổ.

Tỉnh Gyeonggi cho biết rằng sẽ hỗ trợ người đăng ký một cách hoàn hảo nhất(One-stop) từ khâu đăng ký bảo chứng, tiếp nhận hồ sơ, tiến hành xử lý hồ sơ(bao gồm cả xử lý ngay tại hiện trường) và hỗ trợ cho vay tại ngân hàng Nông nghiệp nhằm hỗ trợ người dân trong những thời điểm nguy cấp nhất. Theo đó, những chủ doanh nghiệp có nguyện vọng nhận được hỗ trợ của dự án này hãy liên lạc đến số điện thoại 1577-5900 của 25 chi nhánh Quỹ bảo chứng tín dụng Gyeonggi trên địa bàn toàn tỉnh để được tư vấn và có thể đăng ký mở sổ tại 154 chi nhánh ngân hàng Nông nghiệp NH cũng như tại 61 chốt hỗ trợ đăng ký di động được đặt trên địa bàn tỉnh(Số điện thoại liên hệ 1661-3000, 1522-3000)

Liên quan đến việc triển khai “Dự án sổ ngân hàng khắc phục Covid-19 dành cho tiểu thương của tỉnh Gyeonggi”, ông Hwang Yeong Seong-trưởng khoa hỗ trợ doanh nghiệp đặc thù của tỉnh Gyeonggi cho biết rằng “dự án này hứa hẹn sẽ có thể hỗ trợ được phần lớn những khó khăn mà tiểu thương đang hoạt động kinh doanh trên địa bàn tỉnh, giúp họ vực lại nền kinh tế cũng như những hoạt động kinh doanh đã chịu nhiều ảnh hưởng do dịch”, “ngoài ra đây cũng là dự án giúp thúc đẩy nền kinh tế của khu vực có thể đi vào một quỹ đạo tuần hoàn lý tưởng hơn của khu vực thông qua việc bổ sung thêm các nguồn vốn được hỗ trợ từ dự án này”. <한글 기사 44면> 강혜나 기자

## “멋진 부모 행복한 자녀” 부모교육 실시

### 김포건가다가, 성격유형과 양육태도&아동학대예방교육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1월 27일과 29일 총 2회기에 걸쳐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모교육 ‘멋진 부모 행복한 자녀’를 진행했다.

조금량 박사(여성가족부 부모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한 이날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자녀돌봄 및 가사분담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및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했

다. 1회기는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2회기는 비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의 성격유형에 따른 올바른 자녀 양육태도와 가정내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향상 및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관해 교육했다.

1회기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에서는 김포경찰서와 연계해 기초적인 법률상식과 가정폭력 대응, 112신고요령 등을 안내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정착을 지원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간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번교육을 통해 나와 자녀의 성격유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일상에서 부모의 말과 양육태도가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 2021 설 명절문화 캠페인 코로나19극복! 사회적 거리두고 마음은 가까이!

- 1. 코로나19 극복,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등한 설명절 되세요!**
    - 몸은 멀어도 마음은 함께해요  
-> 우리가족, 친지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동은 자제하며, 온라인으로 가족친지들과 정 나누기
    - 철저한 방역 수칙, 기억하세요  
-> 실내외 마스크 착용, 모임·행사 및 구워담·다중이용시설 이용자체하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으로 안전한 연휴 보내기
  - 2. 음식문화 함께 준비하고 간소하게!**
    - 음식은 적당량으로 간소하게 준비하고 과음이나 과식하지 마세요.
    - 남편과 자녀들도 역할을 분담하여 집안일과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와 청소도 함께해요.
    - 명절이나 가족행사시 음식은 계절식품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음식문화도 가꾸세요.
  - 3. 소동문화 즐거운 대화!**
    - 명절이나 가족행사시 가족간, 친척간 격려와 칭찬을 해주세요.
    - 조상이나 가까운 친척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세요.
    - 조상이나 정치이야기로 논쟁하지 말고 밥맛 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해요.
    - 다른 가족과 친척의 가치관도 존중해주세요.
  - 4. 여가문화 명절연휴 가족과 함께! 이웃과도 함께!**
    -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율놀이, 투호놀이, 불링, 공원산책, 가족영화를 감상해요. (마스크 착용 필수)
    - 내기문화는 지양해 주세요.
    - 가족과 추억을 만드는 이벤트가 있는 연휴, 명절문화를 즐기는 가족행사가 되도록 노력해요.
    - 가족이 모이는 명절, 자녀들에게 금전보다는 멋진 이름의 상장(실천을 잘하는 어린이상,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강한 어린이상 등)을 주거나 진심어린 칭찬을 해주세요.
  - 5. 양성평등 명절문화! 양가 가족과 나누는 명절!**
    - 양가 어른을 방문하기 전 미리 약속하고 찾아 뵙고 인사드려요. (정부지침 방역수칙 준수)
    - 양성평등한 명절연휴, 가족 모두 웃는 명절과 가족 행사를 만들어요.
    - 고향이나 양가 방문시, 운전할 때는 교통법규를 지키고 공공질서를 지켜요.
  - 6. 나누는 명절문화 세대간 마음 나누고 이웃과도 나누는 문화**
    - 가족, 친지, 이웃 등 세대간, 이웃 간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명절 문화를 만들어요.
    - 독거노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소년 소녀가장,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1인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과 더불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웃과도 소통하고 나누는 명절 되세요.
- <출처 : 계선자의 공적(2009)- 가족과 문화, 신철출판사>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경기도 김포시 한강4로 564 (구래동, LH한가람마을 2단지 아파트 내)
- Tel 996-5920 가족상담 996-5921 아이돌봄지원사업팀 996-5922 Fax 996-5924
- 경기육아나눔터 : 고촌도서관 5층 어린이자료실 내 997-5921
- 공동육아나눔터 : 구래동 LH한가람마을 2단지 아파트 내 997-5921
- 다문화가족소통교류공간 : 통진도서관 1층 다문화자료실 & 다가온 내 070-4108-4965



## “코로나19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폭넓은 연대 필요”

코로나로 이주민 힘든 점 ‘경제적 피해>일상생활 불편>의료기관 이용’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글로벌 재앙, 코로나19와 이주민」 이슈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이주민들에게 더욱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통합 및 소통과도 연관돼 있다.

이번 이슈분석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월 발표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이주민들이 겪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해 환기했다.

조사결과, 이주민들이 겪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은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1차 66.6%, 2차 65.7%)’였으며, 장애인·대중교통이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일터에서 피해를 경험했고(90.9%) 임금삭감, 무급 휴가, 해고 및 권고사직 등의 피해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력한 단일 언어 사용 국가인 한국은 정부의 공식 발표 역시 한국어로만 이뤄져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언어 및 사회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이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비자와 체류, 입·출국 관련 정보, 외국인 감염자의 치료비 등 다양한 외국인 대상 정책의 세부 내용이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나 유관 정보들이 이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경기도가 운영한 ‘경기도외국인SNS기자단’ 사업은 이주민들의 모국어로 관련 기사를 제공해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다.

한편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가시화되자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4월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 때 중앙정부 및 지자체들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외국인이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모든 경기도내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어 23면, 베트남어 25면, 러시아어 26면, 일본어 9면〉

이지은 기자

## 구직청년에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실시

과천시는 면접을 앞둔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정장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인 ‘과천시 청년옷장’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구직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면접용 정장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등 일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개개인 신체에 맞춘 간단한 수선과 코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3박 4일로 1인당 연 최대 5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b.net>)에서 가능하며, 시 담당자의 승인 문자를 받은 뒤 정장 대여업체에 예약 후 정장을 수령하면 된다.

최초 대여 시에는 직접 방문하여 입어보는 것을 추천하고 이후에는 방문과 택배 둘다 이용 가능하다.

문의 02-3677-2867

이지은 기자

### 내 아이 돌봄을 책임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찾아가는  
 1:1 돌봄 서비스입니다.

**대상** 영아 종일제 : 만 3개월~만 36개월  
시간제/종합형 : 만 3개월~만 12세

**내용** 돌봄 및 놀이 활동, 준비된 급,간식 제공 등  
(영아는 이유식, 목욕, 젖병소독 등 제공)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http://www.idolbom.go.kr))  
회원 가입 후 아이돌보미 연계(정부지원대상자는  
동사무소 문의,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 아이돌봄팀 02-507-0073 / 02-503-0041

사업명	일시	접수 기간	대상	인원	내 용	비 고 (사업구분)	
가족상담	연중	수시	상담을 원하는 개인 및 가족	-	· 개인 및 가족상담, 심리검사	가족관계	
놀이치료	연중	수시	놀이치료가 필요한 유아동	-	· 유아동 심리정서지원, 사회성 발달 및 적응 관련 놀이치료	가족관계	
코로나19 가스트레스 해소지원사업	2월~3월	1월	경기도 거주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	40가구	· 놀이 전문가와 집콕놀이, 랜선 도시락 수다방, 랜선 풍파티, 가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	가족관계	
가족사례관리	연중	수시	도움이 필요한 관내 거주 가족 (다문화가족 포함)	-	· 개인 및 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당면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문제 해결 지원 및 대처 능력 강화 · 심층상담 및 필요자원 연계 등	가족돌봄	
과천시 마을돌봄나눔터 (레이민슈르/부림동)	월~금 방학 중 (9:00~17:00)	접수완료	인근 거주하는 초등학생	레이민슈르 15명, 부림동 15명 (*긴급돌봄 운영)	·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숙제지도, 도서 및 학습 공간 이용, 급·간식 지도, 요일별 프로그램 · 긴급 돌봄 운영 중	가족돌봄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연중	접수완료	다문화가정 및 지역 유관기관	45가족, 유관기관 5곳	·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정보 습득	가족생활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시간제·종일제	연중	수시	과천시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	-	·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통한 양육 지원 -시간제 이용시간: (기본)1회 2시간 이상 -종일제 이용시간: (기본)1회 3시간 이상	-
	학습돌봄	연중	수시	과천시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1학년~6학년)	-	·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돌봄 활동가의 초등학생 전 과목 학습 지원	-
	질병감염 아동 특별 지원	연중	수시	과천시 만3개월~만 12세 이하 질병아동 및 시설아동	-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시간: (기본)1회 2시간 이상	-



## 코로나19 속 다양한 가족 '집콕놀이'로 안전과 재미 한 번에

###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복한 부(모)자(녀) 되기'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을 뒤흔들며 이제까지의 생활과는 180도 다른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 등교중지, 원격수업,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양육과 가사부담으로 육아 스트레스 및 육아 우울증, 집콕 스트레스, 부부간 불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에서 여성의 자녀돌봄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했다. 맞벌이 여성의 67%와 외벌이 여성의 89.9%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에 '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은 본인'이라고 답했으며 맞벌이 남성

은 5.9%만이 본인이 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답해 여성의 일, 가정 양립과 가사스트레스의 증가를 보여 주었다.

이에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생활에 대응하고, 높아져 가는 가사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지원사업-행복한 부(모)자(녀) 되기'를 진행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공모로 진행된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우울감과 양육 스트레스에서 발생한 심리적 피로감 등을 지원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한 부(모)자(녀)되기는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자녀 20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기 10가정, 아동기 10가정이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시작해 올 1월 15일까지 진행됐다.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집콕놀이, 랜선수다방, 랜선종파티, 상담 등 총 89회가 운영됐다.

'집콕놀이'는 개별로 놀이키트 수령 후 아동상담사 2인이 유아기(A팀), 초등기(B팀) 각 10가정에 부모-자녀 스트레스 해소 치료프로그램(놀이, 미술) 제공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일주일 이내 담당자에게 워크시트

지 제출하며 마무리됐다. '랜선도시락수다방'은 집콕놀이 종료 후 도시락 제공했으며 팀별로 랜선도시락 수다방 운영, 실제 경험한 가사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및 가사스트레스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 및 아이디어 나누고 공유하기 등이 이뤄졌다.

랜선종파티는 유아기(A팀), 초등기(B팀) 함께 모여 간단한 힐링레크레이션(게임활동) 진행 후 가사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팀별 의견을 한 번 더 나누는 후, 그중 가장 좋았던 의견을 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별 맞춤상담은 긍정적 변화 의지 고취를 위해 사전 상담을 진행했던 전문상담사가 개별 맞춤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부모-자녀 상담 2회기, 부모상담 1회기가 진행됐다. 상담을 더 원하는 가정에는 센터 내 무료 개인 및 가족 상담과 연계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통찰하고 개선함으로써 부모 역할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부모-자녀 간 스트레스 해소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에 친밀감 증진 및 자녀 감정수용 능력이 향상되어 부모-자녀 간 관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 안양건가다가, 아이 발달단계 맞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실시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큰 소리로 말해요, 함께 웃어요'를 진행한다. 아이의 발달단계에 맞춰 진행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신청하면 초기 면담과 언어평가를 거쳐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장소는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이며 기본 6개월, 주 2회, 40분 교육이 이뤄진다. 전화 및 내방 상담받으며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영아(24~36개월), 유아(4~7세), 초등학교생(1~6학년) 대상이며 만 12세를 초과하더라도 초

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031-8045-5709, 031-8045-6380)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건가다가는 이밖에도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의 복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 CHƯƠNG TRÌNH PHÁT TRIỂN NGÔN NGỮ

#### "CÙNG NHAU NÓI CƯỜI VUI VẺ"

'아이의 언어성장이 잘 되고 있을까요?' 고민이라면 아이의 발달단계에 맞춰 언어발달교육을 받아보는 게 어떠신가요?

**신청**

투표 단계 (초보)

다문화가족 언어발달교육 신청서

**신청**

초기면담

언어평가

교육

**Địa điểm**

Trung tâm và các cơ quan giáo dục khác như (nhà trẻ, mẫu giáo, trường tiểu học, trung tâm phúc lợi, thư viện...)

**hồ sơ**

① 외국인등록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lịch trình**

1 tuần 2 buổi, 1 buổi 40 phút  
1 lần 6 tháng (tùy theo kết quả đánh giá có thể nhận 3 lần liên tiếp)  
có thể học 1 mình hoặc theo nhóm

**đối tượng**

con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trẻ nhỏ: 24 ~ 36 tháng trẻ học mẫu giáo: 4~7 tuổi học sinh tiểu học: từ lớp 1 ~ lớp 6

※ Nếu trẻ đã trên 12 tuổi nhưng vẫn đang học tiểu học thì vẫn có thể đăng ký

**Đăng ký**

điện thoại hoặc đến trung tâm

문의사항

언어발달지도사 김소민 ☎ 031-8045-5709  
언어발달지도사 강현수 ☎ 031-8045-63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비산동) 동안문화관 2층  
홈페이지 [www.anyang.familynet.or.kr](http://www.anyang.familynet.or.kr)

### 多文化家庭子女语言发育支援事业

#### "大声说出来，一起笑出来。"

'孩子的语言成长顺利吗? 如果觉得苦恼的话根据孩子的语言发育阶段接受语言发育教育怎么样?'

**报名**

初次面谈

语言评价

开课

**地址**

• 中心  
语言发育教室

**准备文件**

① 外国人登陆证 ② 家族关系证明书

**时间**

• 基本课程6个月  
• 一周2次，一次40分钟

**报名对象**

• 多文化家族子女  
• 婴儿: 24 ~ 36个月  
• 幼儿: 4 ~ 7岁  
• 小学生: 1 ~ 6年级  
※ 超过12岁仍在读小学的学生也可以申请

**报名方法**

• 电话或来中心报名

咨询

语言发育指导师 김소민 ☎ 031-8045-5709  
语言发育指导师 강현수 ☎ 031-8045-63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비산동) 동안문화관 2층  
홈페이지 [www.anyang.familynet.or.kr](http://www.anyang.familynet.or.kr)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큰 소리로 말해요, 함께 웃어요."

'아이의 언어성장이 잘 되고 있을까요?' 고민이라면 아이의 발달단계에 맞춰 언어발달교육을 받아보는 게 어떠신가요?

**신청**

초기면담

언어평가

교육

**장소**

• 센터 내 언어발달 교실

**준비서류**

① 외국인등록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간**

• 기본 6개월  
• 주 2회, 40분 교육

**신청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  
• 영아: 24 ~ 36개월  
• 유아: 4세 ~ 7세  
• 초등학교생: 1 ~ 6학년  
※ 만 12세를 초과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전화 및 내방상담

문의사항

언어발달지도사 김소민 ☎ 031-8045-5709  
언어발달지도사 강현수 ☎ 031-8045-63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비산동) 동안문화관 2층  
홈페이지 [www.anyang.familynet.or.kr](http://www.anyang.familynet.or.kr)







## 다문화가족이 알면 도움되는 화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 여기!

시민텃밭농부 모집, 해외지사 설치 지원사업, 사회적 약자 위한 스마트 안전망 구축 등



### 해외지사 지원사업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지사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우수중소기업을 위해 화성시가 '2021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모국과 무역을 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도 화성시의 해외지사 사업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번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81개국 123개 비즈니스센터를 기업의 현지 지사처럼 활용해 바이어 발굴부터 시장조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현지 법인 설립, 물류 통관, 거래선 관리까지 수출에 필요한 전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으며,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 불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총 15개사를 선정해 해외지사화 사업비의 70%, 최대 245만원을 지원한다.

참가신청은 2월 5일까지 기업지원과 이메일(yena105@korea.kr)로 접수하면 되며, 접수 마지막 날인 5일 하루만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장경의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외에도 해외시장개척단 화상상담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지원 정책을 펼쳐 기업에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은 총 23개 기업이 참가해 약 79억 원, 114건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 시민텃밭농부 모집

화성시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텃밭농부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화성시는 오산동 338번지 일원에 조성한 '시민행복텃밭' 5500㎡ 중 약 3500㎡를 시민에게 분양하고 텃밭활동을 통한 공동체 복원에 나섰다.

텃밭은 1인당 1구좌(15㎡) 약 4평씩 분양하며, 해당 텃밭에서 수확한 농산물 중 일부는 지역 저소득층 등을 위한 농산물 나눔행사 등에 사용한다. 나눔 횟수에 따라 자원봉사 2시간을 인정한다.

분양 신청은 2월 9일까지 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문화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화성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기자 54명을 포함해 250명을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한다.

중복 접수한 가구는 자동 취소하며, 2019년 도시농부 학교 교육생과 지난해 텃밭 분양자는 후순위 추첨 대상이다.

이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밭갈이와 친환경 퇴비 등으로 건강한 텃밭을 준비 중"이라며, "텃밭을 통해 힐링도 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에게 분양하지 않는 2000㎡는 꽃밭 및 텃밭봉사단과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 실습 체험장으로 운영해 재배된 농산물의 100%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기부할 예정이다.

### 사회적 약자 위한 스마트 안전망

스마트 시티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화성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화성시는 스마트도시협의회, 웰컴코리아와 '사회적 약자보호 디바이스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웰컴은 관내 인지저하 어르신 87명과 드림스타트 아동 및 사례관리자 63명 총 150명에게 '스마트위치추적 단말기'를 무상 지원했다.

해당 단말기는 아동이나 인지저하 어르신이 설정된 안심보호구역에서 벗어나거나 위급상황에 처할 경우 관제센터로 비상호출을 보내고, 관제센터는 인근 CCTV영상을 확보해 상황과약 후 즉시 112에 신고, 긴급구조가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이다.

또한 가정방문 등 출장이 잦은 사례관리 담당자가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위험상황에서 신변보호도 지원한다.

송하성 기자

## 다문화가족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최대 5년간 보증료 면제 ... 업체 1곳당 1천만원, 보증료 없이 무담보 연 2%대 저금리 지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는 새해 1월부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며, 자금 유통이 시급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 사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통장은 업체 1곳당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이지만 총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 이용 가능하고, 3개월 변동금리(12월 17일 기준)는 연기준 2.58%, 1년 고정금리는 2.76%다.

특히 기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특별 보증은

이용자가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극복 통장은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대신 부담한다. 경기지역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신용 6등급 이하,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80% 이하), 40~50대 은퇴 실직 가장, 탈북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만 39세 이하 청년 재창업자 등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이며, 적어도 2만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통장은 1월 11일부터 경기지역 소재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과 61개 출장소에서 개설할 수 있다.

경기도는 '긴급 재난극복 통장'인 만큼, 도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에서 보증신청, 접수, 심사(현장실사 포함) 및 대출 등 모

든 업무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원받길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대표번호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황영성 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경제방역대책이다"라며 "원활한 자금유통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어 45면, 베트남어 40면, 러시아어 48면, 일본어 3면, 태국어 19면)

송하성 기자



# 더 나은 한국생활을 위해 러시아어권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법률생활 앱

## 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приложение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Жизнь в Корее”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появился бесплатный 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приложение "Жизнь в Корее"!

Прекрасный подарок был подготовлен в новом году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автором не имеющего аналогов пособия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деятельности русско-корейских судебных переводчиков в русскоязычной сфере/ "Судебный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полезные примеры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адвокатом Ко Мин Сок. Это бесплатное приложение для смартфонов- 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Жизнь в Корее", которое доступно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 1 января 2021 года.

В нем содержится базов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 различным правовым аспектам, связанным с пребыванием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орее: миграционные, трудовые, бракоразводные, жилищные и прочие.

Если вы стали жертвой незаконного увольнения или промышленной травмы и не знали, куда обращаться, столкнулись с вопросом смены жилья или составления договора купли-продажи, интересуют вопросы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смены статуса и другими миграционными вопросами, и просто интересно узнать о законах Кореи - закачивайте смело приложение "Жизнь в Корее".

В данном приложении можно найти контакты ав



тора справочника-приложения, адвоката Ко Минсок и пройти в его инстаграм "Жизнь в Корее".

Кстати, в данном приложении также есть ссылки, по которым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учебники "Судебный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полезные примеры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и "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на все случаи жизни в Корее".

В свое время, готовясь к экзаменам на получение лицензии юридического переводчика, я познакомилась с "Судебным переводом", которы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помог мне на экзаменах, так как в нем примеры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в нем изложены на обоих языках грамотно и понятно. Я считаю, что эта книга должна стать настольным пособием для тех, кто планирует или связал жизнь с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ми судебными переводами.

Вооружен- значит защищен. Целью приложения "Жизнь в Корее" является ознакомление мигрантов с "базовыми знаниями корейск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которые вы должны знать, чтобы заранее предотвратить правовые споры". Хоч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в наступившем году, сред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вооруженных знаниями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правочнику, в разы уменьшится число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незнания своих прав, так и правонарушителей. Репортёр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по Кёнгидо, Елена Ким.

러시아어권 외국인을 위한 무료 법률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Life in Korea'가 출시됐다.

새해를 맞아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은 예비 사법통역사와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을 위한 책인 '러시아어 사법 통역과 생활 법률'이다. 이 책은 러시아어 사법통역 및 유익한 생활법률 상담사례로 고민석 변호사가 쓴 책이다. 스마트폰용 무료 애플리케이션인 러시아어 법률 가이드 'Life in Korea'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이주, 노동, 이혼, 주거 등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인 내용과 기본 정보 등이다.

불법 해고 또는 산업 재해를 당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거나 집을 이사하거나 매매 계약서 작성 문제에 직면하거나 국적 취득, 신분 변경 및 기타 이주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 또 한국의 법이 궁금하다면 'Life in Korea' 애플리케이션을 과감하게 설치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가이드 저자 고민석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아 그의 인스타그램 'Life in Korea'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 교재와 '한국생활법률 안내서'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포함되어 있다.

한때 사법통역사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면서 '법률 번역'에 대해 알게 되었고, 모든 법률 자문 사례가 두 언어로 유익하고 명확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미 한-러-한 사법통역사가 되거나 관련 삶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한국의 생활법률을 이해하기 위해 이 교재가 가이드북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Living in Korea 앱의 목적은 이주민들에게 '법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한국법의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장이란 보호된다는 의미이다. 내년에는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이 가이드 덕분에 지식으로 무장하여 자기 권리를 모르고 침해받는 사람들과 범죄자 수가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多文化家庭可以开设京畿道“小工商业者克服新冠病毒存折”

京畿道为因新型冠状病毒感染症(新冠病毒)的长期化而面临经济困难的小工商业者提供可以开设1000万韩元限额的负存折支援。京畿道29日表示,将从新年1月开始推进“小工商业者克服新冠病毒存折项目”。

这在全国地方自治团体中尚属首次,对因信用等级低而难以利用第一金融权或因高利率私债而陷入困境的小工商业者,提供无担保、低利率贷款支援。

该存折可以向每家企业最多贷款1000万韩元。

贷款期限虽然是1年,但可以延长4次,最多可以使用5年,3个月的变动利率(以12月17日为准)是年基准2.58%,1年固定利率为2.76%。

特别是,利用现有的京畿信用保证财团的特别保证,用

户需要交纳年约1%的保证金,但此次克服新冠病毒存折保证金由京畿道全额承担。

在京畿道地区营业的小工商业者中,代表人员包括信用6等级以下、中等收入(4人家庭为准80%以下)、40至50多岁退休的家长、脱北者、残疾人、单亲家庭、多子女家庭、基础生活保障金领取者、次上位阶层、高利率金融使用者、满39周岁以下的青年再创业者等。

支援规模共达2000亿韩元,至少可以使2万家企业受益。

该存折从1月11日开始可以在京畿道地区154家NH农协银行的营业点和61个办事处开设。

京畿道的方针是,作为“紧急克服灾难存折”,为使居民能够得到便利、迅速的支援,在NH农协银行担保申请、受理、

审查(包括现场调查)及贷款等所有业务都以一站式(One-stop)进行。因此,希望得到支援的小工商业者可以通过京畿信用保证财团25个分行(代表号码为1577-5900)进行咨询,并可以通过京畿道内NH农协银行154个营业点及61个办事处(代表号码为1661-3000、1522-3000)进行申请。

与这次“京畿小工商业者克服新冠病毒存折”项目相关的主管部门京畿道特化企业支援科黄永成科长表示“该项目是为了给因新冠病毒受经营困难的小工商业者提供克服灾难重新站起来的力量而实行的经济防疫对策,期待通过灵活的资金融通,引导地区经济良性循环的桥梁作用”。

<한글 기사 44면>

왕그나 기자





# เตรียมตัวเพื่ออนาคตอย่างชาญฉลาด - การออมทรัพย์และประกันภัย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 저축과 보험

## 1. ท้าความรู้จักกับผลิตภัณฑ์เงินฝาก

มีผู้ย้ายถิ่นฐ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มากไม่เพียงแต่เดินทางมาเกาหลีเพราะลางข่าวว่าจะมีชีวิตที่ดีขึ้นแต่กลับพบว่าทุกอย่างไม่ได้ง่ายอย่างที่คิด พวกเขาเหล่านั้นพยายามทำงานอย่างหนักขั้นหนึ่งเพื่อที่จะส่งเงินกลับไปช่วยเหลือครอบครัวในถิ่นเกิด, เพื่อมีบ้านใหม่ที่ดีขึ้น, เพื่อเตรียมทุนการศึกษาสำหรับลูก ตัวอย่างเช่นพอจะมีชีวิตที่นั่นก็ช่วยให้สามารถเก็บเงินได้บ้าง? คำตอบคือการเก็บเงินรายใด

## 1. 저축상품에 대해 알아보기

외국인 이주민 중에는 한국에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일은 참 많습니다. 고향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도와 주기 위해,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아이들 교육이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 เคสตัวอย่างครอบครัวชาวเวียดนาม 다문화가족 사례

ดิฉันเป็นหญิงไทยที่แต่งงานและย้ายเข้ามาอาศัยอยู่กับครอบครัวสามีในเกาหลี หลังจากแต่งงานได้ไม่นานก็พบว่าภรรยาไม่ชอบงานในโรงงานที่สามีทำมาหากิน เธอจึงลาออกจากงานและหางานใหม่ทำเองที่บ้าน เธอได้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ะสอนลูกสาวของเธอให้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ด้วย เธอได้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ะสอนลูกสาวของเธอให้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ด้วย เธอได้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ะสอนลูกสาวของเธอให้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ด้วย

태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은 이주민 여성입니다. 결혼 얼마 후 목에 멍울 같은 것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갑상선 주변 종양으로 나왔고, 암은 아니지만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후유증으로 왼쪽 목에 마비증세가 왔고, 아직까지도 다리는 계속 재활시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15개월인데 시부모님과 남편이 돌봐야 했고, 수술비도 많이 나와서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미리 보험이나 저축을 해뒀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정말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การออมทรัพย์ควรทำ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เพื่อเตรียมรับมือกับอนาคต บรรดานักวิชาการกล่าวว่าควรเก็บเงินรายได้ 20-30% ไว้เป็นเงินเก็บจึงจะสามารถรองรับเหตุการณ์ในอนาคตได้ ดังนั้นเราจึงควรใช้เงินอย่างมีแบบแผนและเก็บเงินรายได้ส่วนหนึ่งไปเป็นเงินออม

저축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축할 때 매달 소득의 20-30% 정도를 저축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축할 때 매달 소득 중 일정 부분을 저축하도록 합니다.

ส่วนหนึ่งของแต่ละเดือนไปฝากธนาคารนั่นเอง บัญชีเงินฝากมีหลายรูปแบบ เช่น บัญชีที่ฝากถอนได้ตลอดเวลาตามต้องการ เรียกว่าบัญชีออมทรัพย์ทั่วไป(ไททงเชกกีง), บัญชีที่สามารถฝากเงินได้อย่างอิสระเรียกว่าบัญชีออมทรัพย์อิสระ(ซาซูจอกเชกกีง), บัญชีที่กำหนดให้ฝากเงินเป็นระยะเวลา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ที่กำหนดตามเงินที่กำหนดเรียกว่า ฝากประจำรายเดือน(ต็องกัจจอกกีง), บัญชีประเภทที่เงินก้อนไม่ฝากเอาไว้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ที่กำหนดเรียกว่า ฝากประจำระยะยาว(ต็องกัจจอกกีง) การนำเงินมาฝากออมทรัพย์เกี่ยวกับเงินฝากแต่ละประเภทนั้น

그럼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매월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저축은 아무 때나 입금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자유저축예금, 일정 기간과 금액을 정해서 저축하는 정기적금,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해주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 1 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ระหว่างการฝากประจำระยะยาวและการฝากประจำรายเดือน

การฝากเงินมีหลายรูปแบบ แบบแรกคือ ฝากประจำระยะยาว(เชกกีง) ซึ่งเป็นการนำเงินก้อนไปฝากไว้ที่ธนาคารภา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ที่กำหนดเมื่อครบวาระก็เปิดบัญชีส่วนอีกแบบคือ ฝากประจำรายเดือน(จอกกีง) ซึ่งเป็นการฝากเงินจำนวนน้อยเป็นระยะต่อเนื่องจนครบระยะเวลาที่กำหนด บัญชีประเภทนี้มีเป้าหมายเพื่อสะสมเงินก้อนก่อนตัดสินใจเปิดบัญชีตรวจสอบ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ให้ดีเสียก่อนเนื่องจาก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เงินฝากเปลี่ยนแปลงอยู่ตลอดเวลา บัญชีเงินฝากประจำระยะยาวและฝากประจำรายเดือนนั้นหากไม่ฝากจนครบตามวาระที่กำหนดก็จะได้รับเงินต้นคืนแต่จะไม่ได้รับดอกเบี้ยเงินฝากที่ตกลงกันไว้ ดังนั้นก่อนเปิดบัญชีประเภทนี้จึงควรตรวจสอบ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ฝากเงินให้ดีเสียก่อนแล้วจึงเลือกเปิดบัญชีที่เหมาะสมกับสถานะของตนเอง

### 1 예금과 적금의 차이

저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금은 목돈을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맡겼다가 찾는 것이고 적금은 적은 금액을 정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정해진 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축해서 큰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리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아보고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원금은 받을 수 있으나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니 처음에 저축 기간(만기)을 정할 때 개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 เข้าใจง่ายกับการฝากประจำระยะยาวและฝากประจำรายเดือน

การบริหารเงินก้อน : การนำเงิน 1 ล้านบาทไปฝากไว้ในธนาคารเป็นเวลา 1 ปีเรียกว่าฝากประจำระยะยาว(ช็องกัจจอกกีง)

การสะสมเงินก้อน : การฝากเงินเดือนละ 1 แสนบาททุกเดือนตามวันที่กำหนดเรียกว่าฝากประจำรายเดือน(ช็องกัจจอกกีง)



###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쉽게 이해하기

목돈 굴리기 : 100만원을 한꺼번에 1년 동안 은행에 맡겨두는 것은 정기예금입니다.

목돈 모으기 : 10만원씩 매일 같은 날에 저축하는 것은 정기적금입니다.

## 2 ผลิตภัณฑ์ออมทรัพย์เพื่อสะสมเงินก้อน

ปัจจุบัน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เงินฝากแตกต่างกันระดับ 1% ซึ่งถือเป็น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ที่ต่างกันมาก แม้จะมีดอกเบี้ยที่ออกให้เท่ากันแต่ดอกเบี้ยที่ได้รับดอกเบี้ยก็ไม่มีที่นำทิ้งพอใจ ดังนั้นเพื่อที่จะได้รับดอกเบี้ยเต็มจำนวนจึงควรมองหาผลิตภัณฑ์ที่ให้กวันมากขึ้นดอกเบี้ย ธนาคารซึ่งมีผลิตภัณฑ์เงินฝากที่กวันมากขึ้นคือเงินฝากดอกเบี้ยพิเศษที่เป็นที่รู้จักกันอย่างแพร่หลาย ได้แก่ ซินฮ็อง, แงฮ็อง, ฮย็อง เป็นต้น หากสมัครค่าสหภาพของ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ดังกล่าวก็จะสามารถรับสิทธิในการยกเว้นภาษีดอกเบี้ย และ รับดอกเบี้ยพิเศษ นอกจากนี้ในกรณีที่เป็นผู้ได้บรรณา, 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 เกษตรกรและชาวประมง ซึ่ง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เปิดบัญชีสะสมทรัพย์ส่วนบุคคล(SA)ที่จะได้รับสิทธิยกเว้นภาษีดอกเบี้ยในวงเงิน 2 ล้าน - 2.5 ล้านวอน(ไม่เก็บเงินรายได้ที่กำหนด) ผลิตภัณฑ์ ISA ไม่ได้มีแค่การฝากประจำและฝากออมทรัพย์เท่านั้นแต่ยังมี กองทุนและ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อื่นอีกมากมาย ซึ่งโดยปกติจะมีเงื่อนไขการฝากเงินเป็นระยะเวลา 3-5ปีจึงจะสามารถรับสิทธิยกเว้นภาษีดอกเบี้ยได้ดังนั้นจึงต้องตรวจสอบให้ดีก่อนสมัคร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ผลิตภัณฑ์เงินฝากดอกเบี้ยสูงจำนวนมากไว้บริการผู้สมรสชาวต่างชาติโดยเฉพาะ จึงควรนำไปรับรองความสัมพันธไมตรีครอบครัวและไปรับรองการสมรสไปรับค่าสิทธิที่ธนาคารต่าง ๆ เพื่อเลือกผลิตภัณฑ์ที่ให้ผลประโยชน์สูงสุดกับตนเอง

## 2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 알아보기

최근 은행에서 저축상품의 금리가 1%대까지 떨어져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까지 내게 되면 만기 시에 돌려받는 금액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이자에 세금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및 세금 우대 저축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신한, 농협 및 수협 등이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비과세 및 세금 우대 저축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인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면 200만원~250만원(소득 일정 수준 이하) 수익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내에는 예·적금뿐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3-5년 이상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에게는 상당히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상품이 많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여러 은행과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เงินฝากที่ทำให้ได้รับสิทธิ์ทำสัญญาของอพาร์ทเมนท์ : เงินฝากเพื่อรับสิทธิ์จองที่พักอาศัย

คุณสมบัติของผู้จองอพาร์ทเมนท์สร้างใหม่ที่ดีไม่ได้คือการมีบัญชีออมทรัพย์เพื่อส่งจองที่พักอาศัย บัญชีออมทรัพย์เพื่อส่งจองที่พักอาศัยเป็นบัญชีที่ไม่เพียงแต่เกาหลีเท่านั้นแต่ต่างจังหวัดที่นำเงินไปฝากในเกาหลีก็สามารถถือครองได้ เพียงนำ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คนต่างชาติไปสมัครที่ธนาคารที่เป็นเงินเรียบร้อย ผลิตภัณฑ์ประเภทนี้จะมีการดอกเบี้ยที่แน่นอนกว่าเมื่อเทียบกับผลิตภัณฑ์ประเภทอื่น

## 3 아파트를 ' 청약' 할 자격을 갖는 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축상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 가입하면 됩니다. 또한, 금리도 은행의 다른 상품보다 유리하여 2년 이상 가입 시 1.8%(2018.4월 고시 기준)의 금리를 적용하므로

ของธนาคาร นอกจากนี้หากเลือกเปิดบัญชีประเภท 2ปีขึ้นไปจะได้รับดอกเบี้ย 1.8%(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ที่ประกาศในเดือนเมษายน ปี 2018) เงินฝากประเภทนี้ถือเป็น 'ผลิตภัณฑ์เงินฝาก' ที่เหมาะกับการสะสมเงินก้อน แต่ถึงแม้จะมีบัญชีประเภท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ไม่ได้มีสิทธิ์ลดหย่อนภาษีเงินได้ประจำปี(40%ของยอดเงินฝาก, สูงสุด9แสนต่อปีจำนวน) นอกจากนี้ ยังมีนโยบายให้ครอบครัวหลักประกันชีวิตได้รับสิทธิพิเศษในการจองที่พักอาศัยโดยมีเงื่อนไขว่าเป็นผู้ที่ได้อพยพกับคู่สมรสโดยไม่เคยย้ายที่อยู่เป็นเวลา 3ปีขึ้นไปและสมาชิกทุกคนในครอบครัวจะต้องไม่มีบ้านเป็นของตัวเอง และต้องมีการฝากเงินในบัญชีออมทรัพย์เพื่อการส่งจองที่พักอาศัยไม่ต่ำกว่า 6 ครั้ง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연말소득공제 혜택(납입금액의 40%, 96만원 한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라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분이어야 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로서 청약통장을 6 회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ผลิตภัณฑ์ออมทรัพย์เพื่อส่งจองที่พักอาศัย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개요	
ประเภท 구분	รายละเอียด 내용
ผู้มีสิทธิ์สมัคร 가입대상	พลเมืองเกาหลี,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6 เดือนขึ้นไป หรือ เป็นคนไทย หรือ เป็นต่างชาติ
ยอดเงินฝาก 저축 금액	2 หมื่น - 5 แสนวอนต่อเดือน 월 2만원 - 50만원
ดอกเบี้ย 금리	ไม่เกิน 1 เดือนไม่มีดอกเบี้ย, 1เดือน-1ปี ดอกเบี้ย 1.0% ต่อปี, 1ปี-2ปี ดอกเบี้ย 1.5% ต่อปี, 2ปีขึ้นไปดอกเบี้ย 1.8% ต่อปี (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ที่ประกาศ ณ เดือนเมษายน ปี 2018)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1년 연 1.0%, 1년-2년 1.5%, 2년 이상 1.8% (2018.4월 고시 기준)
การได้มาซึ่งสิทธิในการ สัญญาส่งจองที่พักอาศัย 국민 주택 청약 자격 발생	ผู้ที่ได้รับการพิจารณาเป็นอันดับแรกคือผู้ที่ไม่มีบ้านเป็นของตัวเอง และเป็นลูกคนที่ 12 ครั้ง(มาตรฐานในเขตเมืองหลวง) 1순위는 무주택자로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일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수도권 기준)

<ที่มา : พลเมืองเกาหลีบ้านพักอาศัยในต้นเมือง>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코로나 검사받는 외국인주민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받는다 코로나 검사받으면 23만원 지급

노동자들 중에는 불가피하게 여러 사람과 접촉하다보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에 앞서 생계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부천 쿠광물류센터 사례에서도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곧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사를 받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했다. 문제는 감염증세가 있는 사람이 검사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면 자칫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 ■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일용직 노동자들에 주요...올해는 2월 접수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해 사업을 시행한다. 취약노동자들의 생계대책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망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가 넓어진다. 지난해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도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모두 대상이 되며, 거소지를 경기도에 둔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은 시작한지 5개월여 만에 1,011명에게 2억 3,253만 원(2020년 11월 16일 기준)을 지급했다. 단시간 노동자 235명, 일용직 노동자 429명, 특수형태노동종사자 264명, 요양보호사 83명 등이다. 특히 하루 일당이 생계와 직결돼 의심증상이 있어도 검진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공사현장 등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전체 지원자의 43%에 달해 경기도의 신속한 정책 추진이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한 노동자만 대상이었지만, 7월부터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이용한 무증상 노동자도 포함됐다. <중국어 32명, 베트남어 10명, 러시아어 12명, 일본어 25명, 태국어 19명> 이지는 기자

## 2021년 행복화성 지역화폐

지역화폐 구매한도 변경: 2021. 2. 1. 부터 적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월 구매한도	50만원	30만원	
연 구매한도	600만원	150만원	인센티브 1인당 15만원

- 구매한도: 월 30만원, 연 150만원 (초과충전분 인센티브 미지급)
- 인센티브: 충전액의 10% (월 3만원, 연 15만원까지)
- 소득공제 30%: 본인명의로만 가능, 신청필수 (소득공제 불가)



## 화성지역화폐 자주묻는 질문

-화성 시민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 평택, 오산 등에 거주하는 분도 회원 등록하여 충전하면 화성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충전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등 특별한 경우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 14세부터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제한 매장에서 결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제한 매장에서는 결제 자체가 안됩니다.”

-통장에서 카드로 충전할 때 이체 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라인 결제도 안됩니다.”

-가맹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020. 10. 5.부터 가맹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표자 본인이 본인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사이트 : <https://with.konacard.co.kr>”

-오프라인에서 구입한 지역화폐는 충전금액이 소진되면 사용이 안되나요?

“아닙니다. 본인의 통장에서 카드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발행분도 충전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는 반드시 산후조리와 관련한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결제불가 매장을 제외하고 산후조리원을 포함하여 모든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지역화폐 구입시 카드 사용이 가능하나요?

“현금으로만 구입 가능합니다.”

-카드 잔액을 ATM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현금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카드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분실신고 가능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신고 즉시 분실 신고한 카드는 사용이 중지되며, 재발급 받은 카드를 앱에 등록 후 잔액이관을 하면 이전 카드의 잔액이 새 카드로 이전됩니다.”

-카드를 삭제하고 다른 사람 핸드폰에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카드는 등록 후에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 삭제 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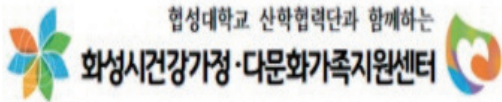
### 온라인 지역화폐 발급 절차

- STEP 1  앱(어플)설치 경기지역화폐앱(어플) 다운로드
- STEP 2  회원가입 앱(어플)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및 카드신청
- STEP 3  카드등록 카드 수령 후 카드 등록 카드 등록 시 즐겨찾는 지역[화성시] 추가
- STEP 4  계좌연결 원하는 은행 계좌 연결 후 언제든지 충전
- STEP 5  금액충전 카드 잔액과 이용 내역 및 할인 받은 금액 확인

2021년 1월부터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나의 기관인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기존 두 개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하기에 불가피하게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하는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센터에서 점검하고 더 나은 성장 도모해요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원사업 위해 우수 인력과 공간 확보해



한국에 오자마자 임신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어 공부를 충분히 하기도 전에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다(사진은 2021년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무식)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영유아기에 엄마로부터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 때문에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상존한다.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신순철)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언어발달지도사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수용·표현언어의 수준을 평가하고 평균적인 언어발달수준과 비교해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최대 2년까지 무료로 1:1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또 연 2회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 촉진을 위해 부모교육도 진행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부모교육이 진행됐다.

부모교육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가정 내 부모 역할 제시와 부모-자녀 관계형성 교육을 통해 다문화자녀의 언어 활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전화접수를 통해 대기자로 등록 후 추후 대상자 선정 안내전화가 오면 센터 학

은 외부 교육장에 방문하여 초기평가를 받으면 된다.

대기 기간은 화성시의 경우 권역별 대기현황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소요된다.

현재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1급 언어재활사 1명과 2급 언어재활사 1명 등 우수한 언어발달지도사업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교육실은 평일에 운영하는 센터 교육실(병점)과 주 1회 수요일에 운영하는 모두누리센터(남양) 교육실, 주 1회 화요일에 운영하는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항남) 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 시기 아동의 언어발달은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안정적인 관계형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화화녀의 언어발달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부모 역할과 자녀의 언어발달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기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언어발달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꼭 교육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031-267-8756, 8790으로 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 Много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так же могут открыть "Банковскую сберегательную книжк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Corona 19" Кёнгидо

Кёнгидо поддержит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и испытывающих эконом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из-за затянувшейс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Согона 19), предоставив возможность открыть минусовую банковскую книжку лимитом до 10млн. вон.

Кёнгидо 29-го числа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том, что с января нового года будет продвинуто проект «Банковская сберегательная книжка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в целях преодоления Согона 19».

Это первый проект среди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срочном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но из-за низкого кредитного рейтинга не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ервым финансовым сектором или уже имеют займы с высокими процентными ставка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необеспеченный кредит под низкие проценты без гарантийных сборов.

На данную банковскую книжку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до 10млн. вон на компанию.

Срок кредита составляет 1 год, но он может быть продлен 4 раза, поэтому его можно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до 5 лет, при этом трёхмесячная плавающая процентная ставка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7 декабря) составляет 2,58% в год, а фиксированная годовая ставка составляет 2,76%. В частности, установленные Фондо

м кредитных гарантий Кёнгидо специальные гарантии, по которым пользователь должен выплачивать гарантийный сбор в размере 1% в год, Кёнгидо,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Банковская сберегательная книжка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Согона 19,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покрывать гарантийный сбор.

Владельцы малого бизнеса, работающие в Кёнгидо, должны подходить к одной из следующей категории: Кредитоспособность ниже 6го уровня; средний доход (80% или меньше для семьи из 4 человек); безработные пенсионеры в возрасте 40-50 лет; выходцы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нвалиды; неполные семь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получатели основных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заработок аналогичный или немного выше самого низкого уровня дохода; финансовые пользователи с высокими процентными ставка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моложе 39 лет, снова(повторно) начинающие бизнес.

Общая сумма поддержки составляет 20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и е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не менее 20.000 компаний.

Данную банковскую книжку можно будет открыть с 11 января в 154 отделениях и 61 филиалах банка Нонгхёп (NH Nonghyup Bank),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Кёнгидо.

Кёнгидо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Банковская сберегательная книжка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Corona 19", предоставит комплексные услуги в NH Nonghyup Bank : подача заявки на гарантию, запись, рассмотрение (включая комплексную проверку на месте), а так же кредитов и т.д., чтобы жители могли получить удобную и быструю (One-stop) поддержку.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ладельцы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желающие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могут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в 25 филиалах Фонда кредитных гарантий Кёнгидо (главный номер 1577-5900), а также в 154 отделениях и 61 филиалах банка NH Nonghyup в Кёнгидо (главный номер 1661- 3000, 1522-3000).

Относительно проекта «Банковская сберегательная книжк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Согона19» главный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отдела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ятий Кёнгидо- Хнанг Ёнг Сонг сказал: «Этот проект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экономическую меру в условиях карантина, введённую с целью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которые испытывают затруднения из-за Согона 19, преодолеть трудности и снова встать на ноги».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 послужит толчком к тому, чтобы возобновить оборот местной экономики с помощью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го самофинансирования».

〈한글 기사 44면〉

장울가 기자